조선근로자들은 단결하라!

7 호 4월15일

평양 로동신문사발행 1950

조선근로자들은 단결하라!

근로자

북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 기관잡지

제7호 (53)

1950년4월15일

내 용

레닌 사상의 백전 백승의 힘

一九五〇년 四월 二十二일은 위대한 사회주의 十월 혁명의 어버이이며, 볼쉐위끼당과 쏘베트 사회주의 국가의 창전자이며, 전세계 근로 인민들의 스승이며, 수령인 울라지미르・일리츠・레닌 탄생 八十주년 기념일이다。

전세계 근로 인민들은 레닌주의가 승리하며 사회 발전의 모든 길이 공산주의에로 통하여 있는 시대에 살면서 레닌에 대한 지극한 정으로 그를 경모한다。

레닌은 맑쓰—엥겔쓰의 학설을 창조적으로 발전시켰고 더욱 풍부하게 하였으며 제국주의 단계에서의 자본주의 발전의 제법칙들을 발견하였다。

레닌주의는 자본주의 사회의 최고 발전 단계인 제국주의 시대의 맑쓰주의이다。 레닌은 제국주의 단계에서의 일국가 사회주의 승리의 가능성에 대한 리론을 천재적으로 창시하였다。 이 리론에 의하여 짜리 폭정을 전복하고 프로레타리아트 독재의 국가 형태로서의 쏘베트 국가를 창건하였으며 쏘베트 동맹을 전세계에서 가장 강대한 국가로 발전시켰다。

쏘베트 동맹의 승리는 전세계 프로레타리아로 하여금 자기 나라에서 자본주의 제도를 전복하고 프로레타리아트 독재 수립에 대한 믿음성있는 모범으로 되었다。

맑쓰—레닌주의는 과학적 선진 리론이며 이 리론과 사상은 실천과 행동에서 대중을 항상 파악한다。 맑쓰가 지적한 바와 같이 「리론은 그것이 대중을 파악하자마자 물질적 력량으로 된다」。

레닌주의는 지구의 六분지一에서,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투쟁 행정에서 쓰딸린에 의하여 발전되었고 더욱 풍부하게 되었다。 오늘에 있어서 쓰딸린주의자가 아닌 레닌주의자가 있을 수 없으며 레닌주의자가 아닌 맑쓰주의자는 있을 수 없다。

레닌과 쓰딸린은 프로레타리아의 전위대이며 지도자인 진정한 맑쓰주의 당——볼쉐위끼당을 창건하기 위하여 인민과, 경제주의자, 『합법적 맑쓰주의자』, 수정주의자, 기타 모든 기회주의자 및 멘쉐위크들과 투쟁하였다。

볼쉐위끼당은 제一 인터나쇼날의 타협주의적, 기회주의적 당파는 근본적으로 반대되는 새 형태의 당이며, 진정한 혁명적 당이며, 전세계 로동 계급과 피압박 인민들의 희망과 기대의 상징이다。

볼쉐위끼당에 의하여 지도된 로씨야 사회주의 十월 혁명의 승리는 인류 력사에서 일찌기 볼 수 없었던 새 기원을 열어 놓았다。 사회주의 十월 혁명 후 볼쉐위끼당의 지도에 의하여 쏘베트 동맹이 수행한 승리의 기록은 전세계 프로레타리아 혁명의 지침으로 되며 모범으로 된다。

맑쓰—레닌주의로 튼튼히 무장되었고 쓰딸린의 령도 하에 인민 대중과 혈연적 관계를 맺고 강철같은 규률과 조직적 공고성을 발휘하고 있는 볼쉐위끼당의 백전 백승의 위력은 레닌주의의 력사적 승리이다。

레닌과 쓰딸린은 프로레타리아트 독재에 대한 맑쓰의 학설을 발전시켰다。 로동 계급의 령도 하에 농민 대중과의 동맹에 기초한 프로레타리아트 독재의 공고화는 사회주의 건설에 있어서 결정적 역할을 놀았다。

레닌은 프로레타리아트 독재 형태인 쏘베트 동맹을 창건한 후 이에 의하여 조성된 구체적 조건 하에서 사회주의 로선을 정하였다。 레닌은 락후한 로씨야를 현대적 기술에 기초한 선진적 대공업화할 것을 지적하였으며 농민 대중을 사회주의의 길로 끌어들이기 위한 협동 조합을 계획하였다。

뜨로쯔끼와 부하린과 같은 인민의 원쑤——멘쉐위크들은 쏘련을 사회주의 건설의 길로부터 리탈시키기 위하여 집요한 방해를 거듭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기도는 파탄되었으며 혁명적 력량 앞에서 그들은 파멸되고 말았다。

제인민들 간의 호상 친선과 제민족 간의 평등적 사상에 기초한 레닌—쓰딸린의 민족 정책은 쏘베트 동맹이 조국 전쟁 시기에 위대한 승리를 확보할 수 있는 결정적 조건의 하나이었다。

레닌주의 사상의 강력한 력량은 제二차 대전 과정에서 쏘베트 동맹의 제인민들의 정치적 도덕적 공고한 통일에서 명백히 실증되었다。 레닌주의 사상은 제二차 대전 과정에서 전세계 근로 인민들과 식민지 반식민지 인민들의 의식 속에 강력한 영향을 주었다。 누가 제인민들의 리익과 민주와 자유를 고수하며 누가 반동과 제국주의의

자들을 옹호하는가를 인민 대중에게 똑똑히 보여 주었다。

레닌—쓰딸린의 기치를 고수하고 투쟁하는 볼쉐위끼당을 위시로한 각국의 공산당은 침략자를 반대하고 민족적 독립과 인민의 자유와 리익을 옹호하여 선봉적으로 투쟁하였다。

이와 반면에 부르죠아와 그의 머슴, 우익 사회당은 자기 조국과 인민을 배반하고 강점자들과 야합하였다。 그러나 민족주의와 사회 민주주의 간판을 들고 인민들 앞에서 행세하려던 그들의 반역적이며 기회주의적인 정체는 폭로되었다。

레닌—쓰딸린의 기치를 높이 든 국제주의 사상이야말로 진정한 애국주의 사상임을 인민들은 똑똑히 알았다。 민족주의자들과 사회 민주주의자들은 제국주의자들의 사슬에 얽매인 주구이며 조국과 인민의 반역자라는 것을 인민들은 똑똑히 보았디。

레닌과 쓰딸린의 기치는 제인민들의 해방과 평등과 개화의 기치이며, 평화와 제인민 간의 우호 친선의 기치이다。 국제주의와 애국주의의 가장 명백한 표현은 평화와 민주주의와 사회주의의 조국인 쏘련과의 친선이며 볼쉐위끼당과 쓰딸린에 대한 신임과 헌신이다。

만일에 레닌이 없었다면, 쓰딸린이 없었다면, 그리고 볼쉐위끼당과 쏘베트 동맹이 없었다면, 그리고 그들의 투쟁이 없었다면 전세계 프로레타리아의 운명은 오늘날 어찌 되었을까? 광명을 잃은 암흑 천지에서 락망의 길을 헤매는 노예의 운명을 면치 못하였을 것이다。 약소 민족의 해방은 달성되지 못하였을 것이며 오늘의 인민 민주주의 국가들의 륭성 발전을 상상조차 할 수 있었겠는가!

× × ×

一八七〇년 四월 二十二일 볼가 강변 씸빌쓰끄 아름다운 숲위로 솟은 태양은 전인류에게 광명을 가져왔다。 씸빌쓰끄에서 첫번 울린 레닌의 목소리는 진보와 평화를 사랑하는 전세계 인민들의 우렁찬 목소리로 화하여 인류가 사는 곳, 전지구의 방방곡곡에서 울리고 있다。 이 목소리는 제二차 대전 후에 더욱 높아졌다。

레닌과 쓰딸린에 의하여 창건된 쏘베트 군대는 제二차 대전에서 강점자들의 침공으로부터 위대한 사회주의 조국을 옹호하였을 뿐만 아니라 팟쇼 독일과 일제를 격파하고 그들의 철제 하에서 신음하던 수백만 인민들을 해방시켰으며 전세계 인류를 전쟁의 참화 속에서 구원하였다. 쏘베트 군대에 의하여 해방된 인민들은 인민 민주주의 국가를 수립하고 사회주의 건설의 길 위에서 륭성 발전하고 있다. 사회주의 十월 혁명 후 여러햇 동안 쏘련은 자본주의 국가들의 적대적 포위 속에 들어있던 유일한 사회주의 국가이었다면 오늘의 쏘련은 인민 민주주의 제국가들과 친선적 우호 관계를 맺고 국경을 접하고 있다. 중화 인민 공화국의 탄생과 쏘 중 우호 동맹 체결은 제국주의 진영에 대한 결정적 타격이다. 이상의 모든 사실은 레닌주의의 새 승리를 말하여 주는 것이다.

제국주의자들은 쏘련을 말살하기 위하여 갖은 발악을 다하고 있다. 외국 무력 간섭과 공민 전쟁 및 히틀러 도배의 침공 등은 멸망에 직면한 자들의 최후 발악이며 자기의 운명을 재촉하는 자들의 성급한 도전이었다. 이 성급한 자들은 벌써 멸망하였다. 맑쓰—레닌주의에 대한 반동들의 공격과 음해는 일세기 간의 장구한 긴 세월을 두고 감행되었다. 그러나 맑쓰—레닌주의는 진리이기 때문에 소멸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맑쓰—레닌주의는 사회 발전에 따라 장성하는 로동 계급의 력량과 함께 발전되며 풍부하게 된다. 제국주의자들은 자기의 멸망의 운명에서 벗어나려고 레닌주의에 대하여 온갖 훼방, 중상과 공격의 손을 뻗치고 있다. 그러나 『맑쓰주의를 없애버리려면 로동 계급을 없애버려야 할 것이다. 그러나 로동 계급을 없애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맑쓰주의가 무대에 나선 이래로 八十여년이 지나갔다. 그동안에 수십 수백의 부르죠아 정부들은 맑쓰주의를 없애버리려고 시도하였다. 그래 어찌되었는가? 부르죠아 정부들은 들락날락 하였지마는 맑쓰주의는 남아 있다. 그보다도 더 맑쓰주의는 지구의 六분지 一에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었다』 (볼쉐위끼당 제十七차 대회에서의 쓰딸린의 보고)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은 많은 실례들을 들 것도 없이 위대한 쏘베트 동맹과 인민 민주주의 각국들에서의 경제 발전 상황과 자본주의 국가들의 경제 상태를 일별함으로써 명백히 증명된다.

쏘련 인민들은 전후 五개년 계획의 두가지 기본 과업을 실행하면서 앞으로 전진하고 있다. 국내 피해 기대를 복구하며, 산업과 농업의 전전 수준을 회복하며, 그 수준을 초과할 과업과 배급제 폐지와 일용품 생산을 부단히 장성시키며, 생산품 가격의 대폭적 인하에 대한 확고한 기본 방침을 쏘련은 자랑스럽게 실천하였다.

쓰딸린은 사회주의로부터 공산주의로의 점차적 이행에 있어서 국가의 임무에 대하여 해명하였다. 이는 사회주의 국가에 대한 과학적 공산주의적 완전한 리론이다. 쓰딸린은 자본주의의 포위가 존재하는 한 공산주의에 있어서도 국가는 존재한다는 것을 해명하였다. 쏘베트 동맹에서의 계급적 관계는 본질적으로 변경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쏘베트 동맹의 국가적 기본 임무는 평화적 경제 건설과 문화—교양자적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다. 쏘베트 동맹에서는 국가의 강제적 기능이 · 국내적으로 필요치 않게 되었다. 쏘베트 국가의 기능은 외계의 침공으로부터 사회주의 조국을 군사적으로 보위하는 것으로 바뀌어졌다.

「적대와 모순은 전연 동일하지 않다. 사회주의 하에서 전자는 소멸하고 후자는 남는다」는 레닌의 명제와 쏘련에서는 대립의 통일과 투쟁의 법칙은 적대적 계급 사회에 있어서와는 다르게 작용한다는 맑쓰—레닌주의적 원칙이 쓰딸린의 지도하 쏘련에서 사회주의의 건설을 위한 실제 투쟁을 통하여 확증되었다. 낡은 것과 새것과의 모순, 사멸과 신생과의 모순의 투쟁은 낡은 것을 새 것으로 대치시키며 공산주의에로의 이행을 추진시키는바 이에 있어 비판과 자아비판은 결정적 의의를 갖는다. 쏘련에서 문화—교양 사업을 광범히 전개하고 있는 것은 이와 밀접히 련결된다.

맑쓰—레닌주의의 학설은 제국주의가 인류에게 전대 미문의 재난을 주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자본주의 제도는 대중적 빈궁의 제도이며, 자본주의의 모순과 공황으로부터의 출구를 침략 전쟁에서 찾고 있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전쟁 방화에 광분하고 있다. 그러나 전쟁을 반대하며 평화를 옹호하는 민주 력량은 반동세력보다 우세하다. 평화 옹호 운동에는 벌써 전 지구의 반수 이상의 인구가 망라되었다. 이 운동은 일찌기 볼 수 없었던 강력한 조직을 가지고 전개되고 있다. 평화 옹호 세계 위원회 제三차 회의에서는 원자 무기를 먼저 사용하는 정부를 전범자로 취급할 것을 주장하고 전세계 인민들이 이에 서명할 것을 호소하였다. 이 호소에 호응하여 각국에서는 서명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미국의 모험자들은 최근 군용기로 쏘련의 국경을 침범하였다. 전세계 평화의 성채인 위대한 쏘련 국경에 대한 미 제국주의자들의 침범은 전세계 량심적 인사들의 격분을 일으키고 있다. 미 제국주의자들의 광태는 물론 우리 공화국 남반부에서도 볼 수 있다. 미 제국주의자들이 매국노 리승만 도당을 사수하여 우리 조국을 분할하고 남반부를 식민지화하며 군사 기지화하기 위하여 얼마나 광분하고 있는가는 오늘 공화국 남반부에 벌어지고 있는 모든 현실이 웅변으로 증명하여 주고 있다.

레닌주의는 침략을 반대하며 평화를 옹호하며 제인민들 간의 평등적 친선을 위한 기치이다. 레닌은 프로레타리아 혁명을 민족 해방 운동과 결부시킬 것을 력설하였고 언제나 약소 민족 해방 운동에 동정과 지지를 주었다. 레닌은 중국 인민들의 혁명적 력량을 높이 평가하였다. 중화 인민 공화국의 탄생은 레닌주의의 새로운 승리이다.

레닌은 일제의 조선에 대한 야만적 통치를 비난하여 『일본은 최신의 모든 기술 발명과 순 아세아적 고문을 결합시킨 전대미문의 야수성을 가지고 조선을 략탈한다』고 하였다. 레닌과 쓰딸린이 창건한 쏘베트 동맹은 이러한 야만적 통치 하의 조선 인민을 해방시켜 주었고 민주 개혁과 민주 건설에 백방으로 원조를 주고 있다. 조선 인민은 쏘련 인민과 영원 불멸의 친선 관계를 맺으며 쏘련의 선진적 경험과 교훈을 모범으로 함으로써만 조국의 통일과 인민들의 복리를 증진시킬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조선 인민들은 전세계 근로자들, 피압박 인민들과 같이 레닌과 쓰딸린이 창건한 강대한 쏘베트 국가를 자기의 모범으로 삼으며 행복스러운 새 생활의 승리를 위한 투쟁에서의 위력있는 성채로 간주하고 있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스승이며 전세계 근로 인민의 수령인 일리츠를 경애하며 연구하여야 한다. 맑쓰—레닌주의—이는 전세계 근로 인민들의 투쟁 기치이며 불패의 물질적 력량이다. 이러한 강유력한 무기를 소유함이 없이는 원쑤를 싸워 이길 수 없으며 새 생활을 창조할 수 없다. 이를 소유함이 없이는 장래를 예견할 수 없으며 승리의 월계관을 쟁취할 수 없다.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궐기한 전체 조선 인민들은 맑쓰—레닌주의로 더욱 튼튼히 자기들을 무장함으로써 일리츠식으로 투쟁하여 국내 국외의 원쑤를 싸워 이겨야 할 것이다.

로동 계급과 그의 당의 실제 활동에서의 맑쓰—레닌주의의 변증법적 방법의 의의

신 엽

맑쓰—레닌주의의 학설은 로동 계급과 그의 선봉대인 공산당의 투쟁의 정확한 라침반으로서 불변하게 복무하고 있다. 이 학설은 로동 계급과 그의 당에 정세를 타산하며 주위의 사변들의 내부적 련락을 인식하고 사변들의 행정을 예견할 가능성과 사변들이 현재에 어떻게 그리고 어디로 발전되는가 만이 아니라 그 사변들이 미래에는 어떻게 그리고 어디로 발전될 것까지도 인식할 가능성을 준다.

맑쓰—레닌주의의 학설은 로동 계급을 위대한 혁명적 전망과 민주주의와 사회주의의 리상의 승리가 불가피하다는 것에 대한 확고한 신념으로써 무장시킨다. 가장 심오한 공산주의적 당성으로 일관된 이 학설은 사회주의의 각양 각색의 원쑤들, 적대적 이데올로기에 대한 용감성있는 비타협성을 로동 계급에게 가르친다.

위대한 레닌—쓰딸린 당의 지도를 받는 로씨야 로동 계급은 맑쓰—레닌주의의 사상의 기치 밑에서 력사상 처음으로 사회주의 혁명을 승리적으로 완성하고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하고 위대한 조국 전쟁에 있어서 영예로운 사회주의적 전과를 고수하였으며 현재에 있어서는 공산주의를 향하여 성과있게 전진하고 있다. 구라파와 아세아의 인민 민주주의 제국은 맑쓰—레닌주의의 기치 밑에서 새로운 광명한 생활을 건설하고 있다. 전체 진보적 인류는 평화와 사회주의와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을 향하여 이 승리적 기치 밑에 일층 긴밀하게 결속되고 있다.

로동 계급의 위대한 혁명적 학설의 창시자인 맑쓰와 엥겔쓰는 제국주의 이전의 자본주의의 시기, 프로레타리아트가 자본주의에 대해서 혁명적 돌격을 가할 준비를 하고 있던 시기에 살았다. 맑쓰와 엥겔쓰의 위업과 학설의 위대한 계승자이며 프로레타리아 혁명과 사회주의에 관한 문제가 직접적 실천 문제로 된 제국주의 시대에 혁명적 사업 무대에 나선 레닌과 쓰딸린은 맑쓰

주의의 학설을 일층 발전시켰으며 새 경험으로써 풍부하게 하였고 일층 높은 새 단계로 올려 세웠다。레닌주의는 『제국주의와 프로레타리아 혁명 시대의 맑쓰주의이다』(쓰딸린)

맑쓰—레닌주의는 다음과 같은 세개의 구성 부분, 즉 맑쓰—레닌적 철학, 맑쓰—레닌적 경제 학설 및 과학적 사회주의의 리론을 내포하고 있다。맑쓰—레닌주의의 이 세개의 구성 부분은 모두 서로 가장 밀접히 련결되어 있으며 한 덩어리의 강철로 주조된 듯한 완전하고 정연한 학설을 표상하고 있다。그런데 맑쓰—레닌주의의 철학은 또한 세개의 구성 부분의 유기적 통일을 이루고 있다。이 구성 부분으로 되는 것은 맑쓰—레닌주의의 변증법적 방법과 맑쓰—레닌주의적 철학적 유물론(이들은 결합하여 변증법적 유물론을 구성한다)과 그리고 사회 력사의 연구와 사회 발전의 법칙성의 연구에의 변증법적 유물론의 적용인 력사적 유물론이다。

이·브·쓰딸린은 다음과 같이 가르친다。『변증법적 및 력사적 유물론은 공산주의의 리론적 토대, 맑쓰주의 당의 리론적 기초를 이룬다。변증법적 유물론은 맑쓰—레닌 당의 세계관이다』

아·아·스다노브는 一九四七년 七월에 열렸던 철학 토론회에서의 자기의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맑쓰주의의 발생은 철학에서의 진정한 발명이었으며 혁명이었다……맑쓰와 엥겔쓰는 진보적인 것도 포함하는 선행한 모든 철학 체계와 구별되는 새로운 철학을 창조하였다……처음으로 과학으로 된 철학의 력사의 완전히 새로운 시기가 맑쓰주의로부터 시작된다……』

맑쓰와 엥겔쓰 이전의 철학은 제과학의 과학이라는 칭호를 참망하였다。과거의 철학 체계의 창조자들은 자연과 사회에 관한 다른 모든 과학도 자기들의 철학으로 슬쩍 바꾸려고 시도하였다。그들은 현실 생활 자체에서 찾아낸 것이 아니고 그들 자신의 머리에서 출발하는 법칙들을 제과학에 지령하였다。맑쓰주의의 철학은 제과학의 과학이라는 칭호를 참망하지 않고 자연과 사회에 관한 다른 과학들을 자기로써 슬쩍 바꾸지 않는다。이 철학은 모든 부문의 과학을 진정으로 과학적인 방법과 섯과적인 과학적 연구의 도구로써 무장시키고 그와 동시에 자연과 사회에 관한 제과학의 발전 과정에서 풍부화되고 발전되고 있다。

맑쓰주의 이전의 모든 철학적 리론은 생활과 인민으로부터 고립되고 인민과 인연이 없는 자들의 철학이다。맑쓰주의와 맑쓰주의의 철학은 수백만의 프로레타리아 대중의 손에서 자본주의로부터의 해방과 사회주의의 혁명적 승리를 위한 그들의 투쟁에서 과학적 무기로서 복무한다。

맑쓰 이전의 철학은 우선적으로 사변적(思辯的) 성격을 띠었었다。그는 다만 세계를 설명하려고 지향하였다。세계와 그의 법칙성에 대하여 유일하게 정확한 설명을 준 맑쓰주의 철학은 동시에 세계를 혁명적으로 변경하는 위력있는 무기이다。

맑쓰—레닌주의의 세계관의 가장 중요한 특징의 하나는 로동 계급과 그의 당의 세계관과 로동 계급의 실제 혁명적 투쟁과 사회주의 건설의 실천과의 불가 분리의 관계로써 조건지어지는 그의 창조적 성격이다。

맑쓰주의 철학의 창조적 발전의 위대한 실례로 되는 것은 레닌의 불후의 철학적 저작 『유물론과 경험비판론』이다。레닌은 이 저서에서 당시 전파되고 있던 반동적 부르조아 철학인 마하주의와 그의 설교자들인 몇몇 당원 인테리겐챠들, 즉 맑쓰주의의 리론 분야에서의 기형아들의 이형 동체임을 섬멸적으로 비판하는 동시에 엥겔쓰의 서거 후에 경과한 기간에 얻은 새로운 모든 것을 천재적으로 유물론적으로 종합시켰다。이 저서에서 레닌은 로씨야에서 창조된 새 형태의 레닌—쓰딸린 당의 리론적 제 기초를 고수하였다。

맑쓰—레닌주의의 철학의 창조적 발전에 있어서 최대의 도표로 되는 것은 이·브·쓰딸린의 천재적 철학적 로작 『변증법적 및 력사적 유물론에 관하여』이다。이 로작은 『맑쓰주의적 변증법적 방법의 무쌍의 명수에 의하여 쓰이고 불쉐위즘의 거대한 실천적 및 리론적 경험을 종합하였으며 변증법적 유물론을 새롭고 일층 높은 단계에로 제고시키며 맑쓰—레닌주의의 철학 사상의 진정한 최고봉으로 된다』(쓰딸린 략전 一七二페지)

맑쓰—레닌주의의 세계관의 가장 중요한 유기적 부분은 맑쓰—엥겔쓰가 발견하고 나아가서 레닌—쓰딸린이 창조적으로 발전시킨 변증법적 방법인바 이는 세계의 인식과 혁명적 변경의 유일하게 과학적인 방법이다。레닌과 쓰딸린은 맑쓰주의의 변증법적 방법을 맑쓰주의에 있어서의 결정적 요소요, 맑쓰주의의 『혁명적 본질』이라고 특징짓는다。

맑쓰—레닌주의의 변증법적 방법의 위대성은 그것이 자연과 사회와 인간의 사유의 가장 일반적인 발전 법칙들을 정확하고 과학적으로 표현한다는 데에 있다。

이·브·쓰딸린은 『변증법적 및 력사적 유물론에 관하여』라는 자기의 고전적 철학적 로작 가운데서 맑쓰주의의 변증법적 방법의 네가지 기본적 특징을 작성하였다。맑쓰—레닌주의의 변증법적 방법의 제一 특징의 본질은 우주의 가장 일반적인 법칙의 하나로서 현상의 주위 환경과의 련계가 있다는 데에 있다。이·브·쓰딸린은 맑쓰—레닌주의의 변증법적 방법의 제二 특징을 작성하면서 지적하기를 우주에서 광범히 작용되고 있는 다른 법칙은 운동, 변화 및 발전, 낡은 것의 부패와 새로운 것의 생장 발전에 있어서의 새로운 것의 승리라고 한다。맑쓰—레닌주의의 변증법적 방법의 제三 특징은 운동, 변화 및 발전의 과정의 기본적 형태는 눈에 띄이지 않는 점차적인 량적 변화가 근본적 질적 변화에로 법칙적으로 이행하는 것이며 우동은 단순

한 것으로부터 복잡한 것, 저급한 것으로부터 고급한 것으로의 이행이라는 데에 있다。 끝으로 제四 특징, 즉 맑쓰—레닌주의의 변증법적 방법의 가장 주요한 특징의 본질은 다음과 같은 데에 있다。변증법은 발전 과정의 내부적 내용은 대립의 투쟁, 즉 모든 현상에 고유한 대립적 면의 투쟁이라는 것에서 출발한다는 것이다。

이·브·쓰딸린은 맑쓰주의의 변증법적 방법의 제一 특징을 특징지으면서 지적하기를 모든 현상이 서로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있으며 서로 의존하고 제약하는 만큼, 어떠한 현상이든지 만약 그것이 주위 현상과 불가분적으로 관련됨에서와 또는 그것이 주위 현상에 의하여 제약됨에서 관찰한다면 리해할 수 있는 것이며 또 로증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테면 구라파의 인민 민주주의 제국가의 발생과 발전의 법칙성을 심오하게 리해하기 위하여서는 이것을 이 나라들의 근로 대중이 공산당과 로동자 당의 지도 밑에서 국내의 반동적 착취 계급들과 외국의 파시쓰트적 예속주의자들을 반대하여 수행하는 헌신적 투쟁과의 불가분리의 관련 속에서 그리고 우선 쏘베트 동맹이 제二차 세계 대전에서 호전적인 국제적 파시쓰트의 반동의 주요 세력을 분쇄하는 데 있어서 논 결정적 역할과의 관련 속에서 거대한 력사적 중요성을 가진 사건으로 간주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은 바로 쏘베트 군대야 말로, 즉 세계 최초의 사회주의 국가의 군대야 말로 중앙 및 동남 구라파 제국의 인민들을 파시쓰트적 학정으로부터 해방시켰으며 자기의 운명을 자신의 손에 틀어쥘 가능성을 주었다는 것이다。 쏘베트 동맹이 전후 시기에 있어서 인민 민주주의 제국에 주고 있는 위력있고 청렴한 지지를 고려에 넣을 필요가 있다。 중국 인민의 력사적 승리도 역시 그것을 세계 최초의 사회주의 국가의 존재와 독일 및 일본 제국주의자들에 대한 전쟁에 있어서의 그의 위대한 해방적 역할과의 유기적 관련 속에서 취급하는 경우라야만 심오하게 리해되고 설명될 수 있는 것이다。

본 문제를 취급하는 데 있어서의 이러한 심오한 변증법적 태도의 실례로 되는 것은 모택동의 다음과 같은 명제이다。『만일 쏘베트 동맹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만일 반파시쓰트적 제二차 세계 대전에서의 승리가 없었다면, 만일—이것은 우리에게 특히 중요한 것이어니와—일본 제국주의가 분쇄되지 않았다면, 만일 구라파에 인민 민주주의 제국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만일 동방의 피압박 제국의 앙양된 투쟁이 없었다면……국제 반동 세력의 압박은 물론 현재보다 훨씬 더 강할 것이다。 우리는 그런 환경에서 승리를 획득할 수가 괴연 있었을 것인가? 물론 없었다。 승리를 달성한 후에 그것을 공고히 할 수도 또한 없었을 것이다』

구라파와 아세아의 인민 민주주의 제국과 쏘베트 동맹과의 관계의 부단한 강화는 그 나라들의 앞으로의

위력있는 장성과 발전의 담보이며 전세계의 평화를 보장하는 담보이다。이 위대한 목적에 복무하는 것으로는 특히 금년 二월 十四일에 조인된 쏘중 량국간의 우호 및 호상 원조에 관한 조약이었다。

우리가 사는 현대의 제사건은 민주주의의 제원칙에서의 새로운 것이 극복되지 않는다는 것을 특히 명확하게 증명한다。이에 대한 가장 빛나는 도표로 되는 것은 위대한 조국 전쟁에 있어서 국제적 제국주의적 반동의 돌격대인 독일과 일본의 제국주의자들에 대한 쏘베트 인민의 력사적 승리이다。 또한 새로운 것이 극복되지 않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는 쏘베트 동맹이 히틀러 강점자들에게서 받은 막대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쏘련 인민 경제의 부흥과 일층 발전에 있어서 레닌—쓰딸린 당의 지도 밑에서 달성한 탁월한 성과들이다。 구라파와 아세아의 인민 민주주의 제국의 발생과 부단한 장성과 전세계의 민주주의와 사회주의의 력량의 부단한 증대가 이것을 명료하게 증명하고 있다。우익 사회당과 파시쓰트적 찌또 도당의 진영에 적(籍)을 두는 영 미국의 충복들의 발악은 극복할 수 없는 사회주의와 민주주의의 력량의 장성을 그들이 조금치도 멈추게 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우리들은 전세계에서의 사회주의와 민주주의의 승리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는 것이다』(말렌꼬브) 새것에 대한 불가항성에 관한 쓰딸린적 교의는 용감한 혁명적 락천주의와 공산주의의 승리에 대한 극복할 수 없는 확신으로써 로동 계급과 모든 진보적 인류를 무장시키고 있다。

운동이란 미세한 량적 변화가 점차적으로 근본적 질적 변화에로 넘어가는 과정이라는 맑쓰—레닌주의적 변증법의 명제는 제공산당의 혁명적 전략과 전술의 리론적 기초로 되는 것이다。『정치에 있어서 오유를 범하지 않기 위하여서는 개량주의자로 될것이 아니라 혁명가로 되어야 한다』라고 쓰딸린은 공산당의 정책과 그의 실천적 활동을 위한 맑쓰주의적 변증법적 방법의 제三 특징에서 흘러나오는 결론을 규정지였다。

레닌—쓰딸린 당과 그의 력사적 경험에 의하여 고육을 받고 있는 모든 나라의 공산당들은 이러한 쓰딸린적 원칙에 변함 없이 충직한 것이다。 쏘련에서 실현된 위대한 혁명적 개혁과 또한 인민 민주주의 국가에서 실현된 모든 위력있는 사회 경제적 및 정치적 개혁은 이러한 위대한 쓰딸린적 원칙의 생생한 체현이다。 공산당들은 이와 함께 로동 계급을 혁명의 도정에서 파멸적인 개량주의적 도정에로 탈락시키려고 하였던 로동 계급의 원쑤들인 제二 인터내쇼날의 기회주의 분자들의 온갖 시도를 늘 끊임 없이 폭로하였던 것이다。 쓰딸린적 테제는 제국주의의 이색 종복인 우익 사회주의자들과 또한 자본주의가 사회주의에로 평화적으로 변생한다는 그들의 반동적 설교를 폭로하기 위한

투쟁에 있어서 비상히 귀중한 무기로 되어 있다。

변증법적 유물론은 새로운 질적 상태에로의 비약적 이행이 모든 선행하는 발전에 의하여 준비되었을 때에만 법칙적 성격을 띠며 새로운 질을 형성시킨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여기에 있어 량적 변화의 축적이 이미 근본적 질적 변화에로의 이행을 위한 필요한 한계에 이르렀을때 모멘트를 옳바르게 결정하는 로동 계급의 당의 재능이 거대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쓰딸린은 가르치기를 모멘트의 옳바른 선택은 정확한 전략적 지도 조건의 하나이다 라고 한다。레닌이 위대한 十월의 혁명적 변혁을 수행하기 위한 모멘트를 얼마나 놀랠만큼 정확하게 결정하였으며 쓰딸린이 그 결과에 있어 十월 혁명에 못지 않은 심대한 혁명적 변혁인 전면적 집단화와 그의 기초 위에서의 계급으로서의 부농 청산을 수행하는 네 넘어가는 모멘트를 얼마나 놀랠만큼 정확하게 결정하였는가는 다 아는 바이다!

인민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제공산당은 맑쓰—레닌주의적 세계관에 준거하고、레닌—쓰딸린 당의 위대한 력사적 경험에 의거하여 많은 진보적 개혁의 수행을 위한 옳바른 모멘트의 선택에 대한 모범을 이미 보여주었던 것이다。위대한 맑쓰—레닌주의적 세계관과 맑쓰—레닌주의적 변증법적 방법은 앞으로도 제공산당이 장래의 혁명적 개혁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의 틀림없는 라침반으로 되는 것이다。

발전의 내용에 대한 원천으로서의 대립성의 투쟁에 관한 맑쓰—레닌주의적 변증법의 명제는 로동 계급과 그의 당의 실천적 활동을 위하여 비상히 고귀한 의의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이•브•쓰딸린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모든 현상과 물체에 있어서는 내재적 모순이 그 속성(屬性)이 된다。왜냐 하면 모든 물체와 현상은 그 부정적 측면과 긍정적 측면、그 과거와 미래、그 쇠멸(衰滅)하면서 있는 것과 발전하면서 있는 것을 가진 때문이다。그리하여 낡은 것과 새것、사멸되어 가는 것과 발생되어 가는 것、쇠멸되어 가는 것과 발전되어 가는 것과의 간의 투쟁은 발전 과정의 내용을 구성하는 것이다。

레닌과 쓰딸린은 두가지 형(型)의 기본적 모순、즉 적대적 모순과 비적대적 모순이 존재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적대적 모순을 위하여서는 폭력적 방법으로써、즉 혁명의 방법으로써 해결되는 낡은 것과 새것 간의 날카로운 비타협적 투쟁이 특징적이다。적대적 모순은 그 발전의 새로운 매 단계에 있어서 첨예화된다。적대적 모순에 대한 전형적 실례는 자본주의 국가에서의 부르죠아지를 반대하는 프로레타리아트의 투쟁이다。비적대적 모순은 평화적 방법으로써 점차적으로 극복되는 것이다。모든 착취 계급이 청산되고 사람들이 정신적—정치적 통일에 의하여 뭉쳐지고、제민족이 끊을 수 없는 우호로써 뭉쳐져 있는 쏘련에는 적대적 모

순이란 없는 것이다。여기에는 오직 비적대적 모순만이 있는 것이다。

례컨데 사회적 수요와 물질적 생산의 수준 간의 모순이 그러한 것이다。근로자들이 부단히 빈궁화되어 가고 있는 자본주의 국가와 반대로 쏘베트 사회의 발전의 불가분의 법칙은 인민들의 행복의 부단한 장성이다。

쏘베트 인민들의 행복의 부단한 장성은 물질적 생산의 수준을 따라 넘어 가는 주민들의 수요의 장성에 대한 원인으로 되고 있다。이러한 비적대적 모순은 볼쉐위끼 당에 의하여 령도되는、쏘베트 인민들이 자기들의 애국적 로동으로써 물질적 생산의 수준을 부단히 제고시키고 있다는 것으로써 명확하게 되는 것이다。

쏘베트 국가의 로동자、농민、인테리겐챠는 사회주의적 경쟁을 전개하면서 생산에서의 새롭고 선진적인 일을 위한 고상한 투쟁을 수행하고 있으며 불활발성과 구습 묵수(默守)를 비판하고 있다。

쏘련에서의 비판과 자기 비판은 쏘베트 문화의 모든 부면의 발전과 개선을 위한 강력한 무기이다。이에 대한 명백한 증거는 전후 시기에 있어 사상적 제사업의 개선 부면에서 전련맹 볼쉐위끼 공산당 중앙 위원회가 채택한 볼쉐위끼적 비판 정신으로 일관된 력사적 결정 및 시책인바 쏘베트 문화는 그의 좋은 영향을 받고 새롭고 강력한 개화를 이루었다。

인민 민주주의 국가에서 너욱 광범히 전개되고 있는 사회주의적 경쟁은 이곳에서 창조적 인민적 발의에 의거하고 있는 대중들의 사업상 혁명적 자기 비판이 너욱더 심대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인민 민주주의 국가에는 일방으로 로동 계급을 선두로 한 근로 대중과 또한 타방으로 아직 청산되지 않은 도시 및 농촌의 자본주의적 요소 간의 모순과 같은 그러한 적대적인 모순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모순은 오직 「누가 누구를」하는 원칙에 의한 투쟁에 의하여 즉 자본주의의 요소에 대한 사회주의 요소의 완전한 승리에 의하여서만 극복할 수 있는 것이다。

대립성의 투쟁의 법칙은 당 생활의 내부와 공산당의 생활 및 발전에도 반영되고 있다。

「투쟁 방법에 의한 당내 의견 불합치의 극복은 우리 당의 발전 법칙이다」(쓰딸린)。기회주의적인 우익 사회당과 원칙적으로 다른 새로운 형의 위대한 레닌—쓰딸린 당은 자기의 전력사를 통하여 당내의 모순들을 과감히 폭로하였고 로동 계급의 적대적 분자들을 반대하여 끝까지 수행한 결정적인 투쟁으로써 그를 극복하였던 것이다。자유주의적인 나로드니끄들、「합법적 맑쓰주의자들」、「경제주의자들」、멘쉐위크들、부르죠아 민족주의자들、무정부주의자들、우경 및 좌경 자본주의 부활주의자들——뜨로쯔끼—부하린적 반역자들을 반대한 레닌과 쓰딸린을 비롯한 볼쉐위크들의 투쟁은 이에 대한 명백한 증명으로 되는 것이다。제공산당은 볼쉐

위끼당의 실례에 있어 어떻게 당내의 모순들을 밝혀야 되며, 어떻게 당과 인민의 원쑤들을 무자비하게 폭로 분쇄하여야 되는가를 변함 없이 배우고 있는 것이다。

위대한 쓰딸린은 제모순의 극복을 위한 투쟁에 있어 높은 혁명적 경각성을 발휘할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二十여년 전에 이미 이·브·쓰딸린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다。「국제 자본이 우리들을 편안하게 남겨둔다고 예상한다면 어리석은 일입니다。동지들, 그렇지 않습니다。이것은 잘못입니다。계급이 존재하며 국제 자본이 존재합니다。그리고 그는 건설되는 사회주의 국가의 발전을 가만이 보고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전집 제十一권 五四폐지) 이러한 현명한 쓰딸린적 경고는 오늘날 새롭고 힘있게 울리고 있는 것이다。

브란꼬브, 라이크, 뜨라이초·꼬쓰또브 및 기타의 반혁명적 간첩 그루빠에 대한 공판은 미국을 선두로 하는 제국주의적 반동 진영과 위대한 쏘련을 선두로한 사회주의와 민주주의 진영 간의 적대적 모순을 고려하고 얼마나 높은 경각성을 발휘해야 되겠는가를 증명하는 것이다。영 미 제국주의자들은 팟쇼적 찌또도배를 리용하면서 공산당 및 로동당 내에 있는 국제 프로레타리아트의 심장에 칼날을 찌르려고 시도하고 있다。그려나 부단히 장성하는 로동 계급의 혁명적 경각성은 영 미 제국주의의 그와 같은 모든 시도들이 앞으로도 계속 파탄될 것이라는 데 대한 담보로 되어있는 것이다。

이·브·쓰딸린은 맑쓰—레닌주의적 변증법적 방법의 제四 특징에서 흘러나오는 결론을 규정지으면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자본주의적 질서의 제모순을 미봉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폭로, 해서(解緖)해야 할 것이며 계급 투쟁을 소멸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끝까지 수행해야 한다。……정치에서 오유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프로레타리아트와 부르죠아지의 리해를 조화시키려는 개량주의적 정책을, 자본주의가 사회주의로「성장」한다는 타협적 정책을 실시할 것이 아니라 철저한 비타협적 계급적 프로레타리아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쏘련 당사 一九二폐지)

쏘련의 위대하고 다면적인 실천 사업에 있어서 실현된 모순에 관한 쓰딸린적 학설은, 현대의 제국주의의 비접한 앞잡이인 우익 사회주의자들을 폭로하고 이른바「민주주의적」사회주의에 대한 그들의 반동적 설교를 폭로하고 또한 로동 계급을 소극적인 무위성(無爲性)에 빠뜨리게 하고, 그의 의식 속에, 자본주의의 사회주의에로의 평화적「성장」의 가능성에 대한 반역적 사상을 불어넣으려는 그들의 시도를 폭로하기 위한 투쟁에 있어서 비상히 귀중한 무기로서 민주주의와 사회주의의 국제 진영을 무장시키고 있다。맑쓰와 엥겔쓰가 창건하고 레닌과 쓰딸린이 창조적으로 발전시킨 변증법적 방법은, 그렇듯 평화와 사회주의와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에 있어서 로동 계급과 그의 당들의, 즉 모든 민주주의 진영의 비상히 고귀한 무기로 되는 것이다。

농민 문제에 관한 레닌의 학설

박 문 규

위대한 로씨야의 로동 계급은 자기의 성실한 동맹자인 농민과 함께 짜리 전제 제도를 전복하는 영웅적 투쟁에서 승리하였으며 지주—부르죠아 주권을 전복하고 인류 력사에서 처음으로 로동자 농민의 국가 쏘베트나라를 창건하였다。그의 승리의 조직자로서는 레닌과 쓰딸린이 창조하였으며 그들로써 지도되는 볼쉐위끼당이다。

실로 볼쉐위끼당의 력사는 로동자 농민의 동맹 밑에 짜리 전제 제도를 타도한 력사이며 지주—자본가들의 주권을 타도하고 사회주의를 승리한 력사이며 공산주의를 승리하고 있는 력사이다。

로씨야 로동 계급은 자기 해방을 위한 투쟁에서 로씨야 농민 계급과 같은 성실한 동맹자를 가졌다。프로레타리아트가 모든 착취적 기반에서 자기 해방을 위한 투쟁, 부르죠아 주권을 전복하고 프로레타리아트 독재를 전취하기 위한 투쟁에서 그의 동맹자에 대한 문제로서의 농민 문제는 비상히 긴절한 문제 중의 하나로 된다。

물론 농민 문제는 프로레타리아 혁명 투쟁의 기본 문제, 즉 프로레타리아트 독재에 대한 문제, 그것을 전취하기 위한 문제에 있어서의 파생적 문제인 것이다。그러나 동맹자에 대한 문제로서의 농민 문제는 주권을 위한 프로레타리아트의 혁명 투쟁에서 가장 긴절한 문제 중 하나이며 현실적 의의를 가진 문제인 것이다。

레닌주의에 있어서 농민 문제를 설정하면서 쓰딸린은 다음과 같이 썼다。「어떤 자들은 레닌주의에 있어서 기본적인 것은 농민 문제이요, 레닌주의의 출발점이 되는 것은 농민 그들의 역할, 그들의 비중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한다。이것은 전혀 옳지 않다。레닌주의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문제는 농민 문제가 아니라 프로레타리아트 독재에 대한 문제, 그것을 전취하는 조건에 대한 문제, 그것을 공고화하는 조건에 대한 문제이다。주권을 획득하기 위한 프로레타리아트의 투쟁에 있어서의 그의 동맹자에 관한 문제로서의 농민 문제는 파생적 문제인 것이다。

그러나 이 사정은 농민 문제가 의심할 수 없이 프로레타리아 혁명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그 중대하고도

절실한 의의를 조금이라도 잃어버리게 하는 것은 아니다。(「레닌주의의 제문제」 로동당 출판사판 제一분책 六六—六七페지)

그러므로 프로레타리아트의 궁극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모든 착취 기구를 분쇄하고 착취받는 자들의 궁극적 해방을 위하여 성실히 투쟁하는 당과 혁명가들은 자기 동맹자에 대한 문제로서의 농민 문제를 관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동맹자에 관한 문제로서의 농민 문제에 대한 무관심은 주권을 위한 프로레타리아의 투쟁을 거부하는 것이며 맑쓰주의에서의 변절인 것이다。

불쉐위즘의 창시자이며 로씨야에서 프로레타리아 혁명의 승리의 조직자이며 고무자인 레닌과 쓰딸린은 농민 문제에 대한 과학적 리론의 확고한 수립과 실천에서 단련된 전술로써 맑쓰주의의 보물고를 풍부히 하였다。

레닌과 쓰딸린의 농민 문제에 관한 리론과 전술은 바야흐로 사회주의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인민 민주주의 나라들에서의 명확한 지침이며 등대로 되고 있다。

× × ×

과학적 사회주의 창시자 칼·맑쓰는 一八五〇년 자기의 저서 「불란서에서의 계급 투쟁」에서 농민 문제에 대한 고전적인 론증을 내렸다。 맑쓰는 다음과 같이 썼다。 「농민에 대한 착취는 역시 자본이다。 개개의 자본가들은 개개의 농민들을 저당과 고리 대금으로 착취한다。 자본 계급은 국가적 세납으로 농민을 직접 착취한다。 ……다만 자본의 붕괴만이 농민을 구원할 수 있으며 반(反) 자본주의적 로동 정부만이 농민의 경제적 빈궁과 그의 사회적 퇴화를 숙청할 수 있다。 립헌 공화 정치 그것은 농민의 착취자들의 독재이며 사회주의적、붉은 공화제는 농민의 동맹자의 독재이다」라고 하였다。 (맑쓰—엥겔쓰 선집 제一권 一八四 페지)

맑쓰는 프로레타리아트의 독재를 로동자와 농민의 독재의 체현으로 보았다。 그는 프로레타리아트 독재만이 농민을 착취의 기반에서와 사회적 퇴화에서 해방할 수 있는 유일하게 가능한 조건으로 된다는 것을 론증하였다。

맑쓰는 一八六九년에 토지 국유화에 대한 강령을 썼다。 당시 부루돈파와 바꾸닌파는 소농 경리의 우월성을 고수하였지만 맑쓰는 그들을 반대하여 토지 국유화와 토지의 공동 경작에 대한 강령을 제출하였다。 맑쓰는 이미 벌써 토지 국유화와 공동 경작에 기초한 사회주의적 농업의 창설을 주장하였던 것이다。

로동 계급의 동맹자로서의 농민에 대한 새로운 사회주의적 농촌 경리의 창설에 대한 맑쓰의 위대한 사상을 불쉐위즘의 창시자이며、위대한 十월 혁명의 조직자이며 령도자인 레닌과 쓰딸린은 새로운 력사적 조건에서 창조적으로 발전시켰으며 맑쓰주의의 보물고를 새로운 리론으로써 풍부히 하였다。

레닌과 쓰딸린에 의하여 창조되었으며 지도되는 불쉐위끼당처럼 농민 문제에 대한 철두철미한 과학적 리론의 구명과 자기 실천에서 명확한 전술을 적용한 그러한 당은 없다。

주권을 위한 프로레타리아트의 혁명 투쟁에 있어서 농민 운동과의 필연적 련결에 대한 맑쓰의 영명한 사상은 맑쓰와 엥겔쓰의 서거 후 제二인터나쇼날의 기회주의적 리론가들에 의하여 망각되었고 외곡되었다。

그러나 오로지 레닌과 쓰딸린에 의해서 맑쓰의 이 원칙은 부활되었을 뿐만 아니라 일층 더 발전되었으며 사회주의 혁명에서 필수적 조건、즉 프로레타리아 혁명의 승리의 조건인 프로레타리아트와、도시 및 농촌의 반(半)프로레타리아트와의 동맹이라는 새로운 요소를 인입해서 사회주의 혁명의 정연한 리론을 만들어 냈다。

레닌은 벌써 一八九四년 「「인민의 벗」이란 무엇이며 그들은 사회 민주주의를 반대하여 어떻게 싸우는가?」라는 자기의 저서에서 처음으로 짜리 전제 지주—부르죠아를 타도하는 투쟁에서 중요한 수단으로서의 로동자와 농민의 혁명적 동맹의 사상을 제기하였다。

레닌은 이 저서에서 로씨야 로동 계급은 농민과 동맹해서 짜리 전제 제도를 타도하는 것이며 그 다음에 로씨야의 프로레타리아트는 근로자 및 피착취 대중과 동맹해서 빛나는 공산주의 혁명을 향해서 행진한다고 교시하였다。

레닌은 一九〇三년 자기의 저서 「빈농에게 고함」에서 농촌에서의 지주、부농、중농、빈농 간의 계급적 리해 관계를 분석하면서 로동 계급과 농민 계급은 자기 해방을 위한 투쟁에서 어떻게 결합할 것인가를 명확히 지적하였다。 레닌은 토지의 주인으로서의 지주의 빈농 중농에 대한 착취를 밝혔으며 부농은 지주의 편이며 빈농의 동맹자가 될 수 없다는 것과、중농은 지주—부농과 빈농 사이에 있으며、지주—부르죠아들은 중농을 자기 편에 이끌어 넣으려 하며、부르죠아는 로동자와의 동맹으로부터 중농과 소농 반프로레타리아까지도 떼어버리려고 노력하며 부르죠아와 프로레타리아와의 편으로부터 지주—부르죠아의 편으로 그들을 인입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론증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 민주주의자는 빈농의 자각성을 촉진시키며 도시 로동자와 빈농 간의 특수한 동맹을 공고히 할 것을 강조하였다。 레닌은 다음과 같이 썼다。

「……우리는 오직 최초의 첫걸음을 그들과 같이 나갈 수 있다。 그 다음번에는 서로 다른 길로 나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최초의 첫걸음을 그 후의 둘째 걸음과 즉 뒤에 받는 우리의 중요한 걸음과 정확히 구별해야 한다。 농촌에서 최초의 제일보는 농민의 완전한 해방

이며 그에게 주는 완전한 권리이며……그리고 도시와 농촌이 최후로 밟는 길은 모든 토지와 모든 공장을 지주와 부르죠아에게서 빼앗아서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하는 그것이다。……빈농은 최초의 제일보를 전농민과 같이 걸어나갈 것이다。그러나 최후의 걸음은 그와 함께 나갈 수 없는 것이다。그 때에는 전부농은 빈농을 반대하여 일어날 것이다。그 때에는 빈농과 도시 로동자와의 공고한 동맹이 필요하다」(레닌「빈농에게 고함」九九——一〇〇페지)

레닌은 빈농이 지주—부르죠아의 모든 착취와 예속에서 영영 해방되는 길은 도시 프로레타리아트와의 동맹으로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가르쳤다。

짜리 전제 제도 하에서 농민 대중은 그의 착취와 예속을 반대하여 계속 투쟁하여 왔다。그러나 그들은 계속 진압되었으며 그들의 봉기는 계속 패배되었다。그들은 지주들의 곡물 창고를 점령하고·토지를 빼앗을 것을 기도하고 지주의 집에 불을 지르기도 하였다。그런 때마다 짜리 정부는 군대 경찰을 동원하여 그를 탄압하였다。짜리 정부는 그들을 포도(暴徒)라 칭하였으며 략탈자(掠奪者)라고 불렀다(농민 자신들이 씨를 뿌리고 거두어서 지주에게 략탈당했던 곡물을 도로 빼앗았다 하여)。

농민들의 이 정정 당당한 투쟁이 왜 실패를 당하였는가에 대하여 레닌은 다음과 같이 썼다。

「……농민 운동이 진압된 것은 그것이 악께한 무의식적 대중의 봉기이며 확실한 정치적 요구를 가지지 못하였던 까닭이다。……농민 운동이 진압된 것은 그것이 준비가 불충분하였기 때문이다。……농민 운동이 진압된 것은 농촌 프로레타리아트가 도시 프로레타리아트와의 동맹이 없었던 때문이다」

모든 중세기적 억압과 농노적 착취에서 벗어나기 위한 농민의 투쟁은 프로레타리아와의 동맹의 조건 하에서만 승리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레닌은 가르쳤다。

레닌은 농촌에서 농민들의 해방을 위한 첫걸음을 전농민과 같이 나갈 수 있음을 지적했다。이 첫걸음은 농촌에서 농민들이 모든 중세기적 농노적 기반과 유습에서의 완전한 해방, 농민들의 완전한 평등권의 전취—이것은 전농민에게 필요한 것이며 절실한 욕망이기 때문이다。이것은 실로 부농까지 포함한 전농민에게 절실한 리해 관계가 있었던 것이다。

여기로부터 부르죠아 민주주의 혁명 시기에 프로레타리아트는 자기의 헤게모니야 밑에 전농민과 동맹하여 나갈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전농민들의 일반적 요구가 실현된 후에는 부농은 빈농과의 동반자로부터 탈락하여 빈농을 반대하여 지주의 편에 서게 될 것이라고 레닌은 지적했다。이 때에 빈농의 리해 관계를 충족시켜 주며 그의 절실한 동맹자로 될 수 있는 유일한 동맹자는 도시 프로레

타리아라는 레닌의 결론이 나오는 것이다。모든 자본주의적 착취 제도를 분쇄하기 위하여 투쟁하며 또 그의 자체 상 처지로 보아 철저한 민주주의의·혁명 투사인 프로레타리아트만이 빈농을 빈궁과 암흑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이 레닌의 론증은 부르죠아 혁명 후에는 빈농 대중까지 포함한 농민 대중이 필연적으로 혁명에서 탈락할 것이며 그럼으로써 혁명 후에는 장기간의 휴식기 적어도 八〇년 내지 一〇〇년의 긴 시기가 닥쳐 올 것이며 이 기간 중 프로레타리아트는 새 혁명 즉 사회주의 혁명이 닥쳐 올 때까지 평화적으로 착취를 당할 것이며 부르죠아지는 합법적으로 리득을 보게 될 것이라는 서구라파 사회 민주주의자들의 기회주의적 전술적 리론을 분쇄하였다。실지에 로씨야 로동 계급은 一九一七년 빈농과 동맹하여 부르죠아 주권을 타도하고 위대한 十월 사회주의 혁명을 완수하였다。

로동자와 농민의 동맹에 관한 민주주의 혁명에서의 프로레타리아트 헤게모니야에 대한 레닌의 위대한 사상은 로씨야에서 위대한 혁명의 폭풍이 시작된 一九〇五년 그의 저명한 저서 「민주주의 혁명에서 사회 민주주의자의 두가지 전술」에서 명확히 론술되었다。

그 저서에서 레닌은 부르죠아 민주주의 혁명에서 프로레타리아 당의 기본적 전술적 원칙, 즉 프로레타리아트는 혁명의 수령이 되며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레닌은 프로레타리아트는 부르죠아 민주주의 혁명의 수령이 되며 지도자가 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지적했으며 실지로 그렇게 되기 위하여서는 농민을 자기의 동맹자로 전취하는 데 있으며 그러기 위하여는 자유—부르죠아를 고립시켜야 한다고 하였다。

一九〇五년 혁명은 그가 물론 민주주의적 변혁의 테두리에서 벗어날 수 없는 부르죠아 혁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프로레타리아트에게 리해 관계를 절실히 가지며 그러기에 프로레타리아트는 가장 적극적으로 참가하며 프로레타리아트의 궁극적 목적의 최후 완성을 위해서 가장 결정적으로 투쟁하라고 하였다。레닌은 다음과 같이 썼다。

「현시기에 있어서 완전한 정치적 자유와 민주주의 공화국 이외에 사회주의에 접근할 다른 수단은 없으며 있을 수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된다」(레닌 전집 八권 一〇四페지)

레닌의 이 명제는 혁명에의 참가를 거부하며 부르죠아 민주주의 혁명에서 자유—부르죠아의 헤게모니를 주장하며 혁명에서 프로레타리아트의 역할과 리해 관계를 무시하는 멘쉐위크들의 기도를 프로레타리아트의 리익을 배반하는 행동이라고 규정했다。

레닌은 짜리 전제 제도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농민들은 유일한 동맹자로 될 수 있다고 하였다。

레닌은 이미 一九〇五년 짜리 전제 제도를 대치한 위대한 혁명적 폭풍의 시기가 래도하기 진에 로씨야는 자본주의 발전에서 보다도 그의 불충분한 발전에서 더 많은 고통을 받고 있으며, 농민들은 중세기적 억압과 토지 부족과 기아로 말미암아 질식되고 있다고 했다。 이 때에 로씨야는 一천만 세대의 농민이 七천三백만 제샤찌나의 토지를 소유했고 二만 八천명의 지주는 六천二백만 제샤찌나의 토지를 소유했다。 봉건적 농노적 착취는 혹심하였고 신분적 억압은 그들을 속박하고 있었다。 지주의 토지 소유를 근절하는 것, 농민에게 토지를 부여하는 것, 봉건적 모든 예속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것, 바로 여기에 로씨야 부르죠아 민주주의 혁명의 중심 과업이 있었던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농민들은 짜리 전제, 제도를 타도하는 투쟁에 있어서 민주주의를 위한 가장 철저한 투사인 프로레타리아트의 성실한 동맹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다。 레닌은 다음과 같이 썼다。

「민주주의를 위하여 싸우는 가장 철저한 투사는 프로레타리아트일 것이다。 프로레타리아트는 그의 혁명적 투쟁에 농민이 가담한다는 그러한 조건에서만 민주주의를 위하여 싸우는 승리적 투사로 될 것이다」(레닌 전집 八권 六五페지)

레닌은 농민의 결합은 불가피적이라고 했다。 왜나하면 혁명은 농민들에게 그들은 자유—부르죠아에게서는 토지도, 자유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확신시켰으며 짜리는 지주 편에서 있으며 자유—부르죠아들은 짜리를 옹호한다는 것을 확신시켰으며 또 농민을 도와줄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은 곧 프로레타리아라는 것을 확신시켰기 때문이다。 레닌은 다음과 같이 썼다。

「……농민은 혁명과 공화제의 지주(支柱)가 될 것이다。 왜 그러냐 하면 완전히 승리한 혁명만이 토지 개혁의 령역에 있어서의 모든 것을 농민에게 정말 필요하며 그들이 원하며 그들이 꿈꾸고 있는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레닌 전집 八권 九四페지)

레닌은 一九〇五년 혁명 당시 농민 대중에 대한 혁명적 전술적 구호로써는「지주의 토지 몰수까지 포함한 모든 민주주의 개혁을 혁명적 방법에 의하여 실행하기 위한 혁명적 농민 위원회의 창립」이라고 했다。

「지금에 있어서 문제의 중심은 토지의 재분배의 영허리 계획이나 또는 국유화에 있는 것이 아니라 농민들이 낡은 질서의 혁명적 파괴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데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혁명적 농민 위원회의 수립을 강조한다」(레닌 저작 선집 一권 二四二페지)

레닌은 이러한 혁명적 농민 위원회에 의거함으로써만 농민 폭동은 승리할 것이며 사회 민주주의자들은 이러한 농민 폭동을 백방으로 원조할 것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레닌은 농민 폭동이 혁명적 사회 민주주의적인 것에 한하여서만 이것을 지지했던 것이다。

농민 폭동이 승리한 후 이 혁명적 농민 위원회는 림시 정부와 함께 임의대로 대토지 소유의 몰수를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몰수된 토지 문제에 관해서는 토지의 국유화를 주장하였다。 레닌은 토지의 국유화는 혁명의 승리에 의해서만 짜리제의 전복 후에 있어서만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의 토지 국유화는 프로레타리아트가 빈농과 동맹하여 가지고 사회주의 혁명으로 넘어가는 것을 용이하게 만들어 줄 것이기 때문이었다。 이 토지 국유화는 지주의 토지 전부를 농민을 위해서 무상으로 몰수하는 것을 의미하였다。

이것은 부르죠아 민주주의 혁명으로부터 사회주의 혁명에로 성장 발전하는 계속 혁명의 견지에 립각한 것이다。 쓰딸린은 一九四六년 이·브·쓰딸린 전집 一권 서문에서「부르죠아 혁명으로부터 사회주의 혁명에로의 성장 발전함에 필요한 기반을 닦아놓는다는 것, 따라서 맑쓰주의 당은 토지에 관한 국유화 강령 이외에 어떠한 토지 강령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하다」라고 하였다。

부르죠아 민주주의 혁명 시기의 동맹자에 관한 문제로서의 농민 문제에 관한 레닌의 명제는 이러하였다。 이 명제에 의하여 로씨야 로동 계급은 一九一七년 二월 짜리 전제 제도를 타도하는 위대한 혁명에서 농민을 자기의 동맹자로 하여 혁명의 령도자로 나섰던 것이다。

× × ×

부르죠아 민주주의 혁명 시기에 있어서 프로레타리아트의 유일한 동맹자로서의 농민에 대한 전략적 기본 원칙을 제시함과 동시에 레닌은 혁명의 제二 계단, 즉 사회주의 혁명에로의 과도에 있어서 동맹자에 대한 문제로서의 농민 문제에 대한 리론적, 전술적 제명제를 명시하였다。

이 시기에 프로레타리아트의 동맹자로서는 빈농이라고 레닌은 론증하였다。 일반적으로 민주주의 혁명에서의 프로레타리아트는 자기들의 궁극적 목적을 향하여 나아감에 있어 빈농과의 동맹을 한개의 불가결의 수단으로 보았다。 정치적 자유, 민주주의적 공화국의 쟁취만이 사회주의에로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까닭이다。 즉 프로레타리아에게는 짜리제로부터 공화 정치에로의 길을 통과하면서 민주주의 관계에 머물러 있기 위하여서가 아니라 혁명을 가일층 촉진시키며 혁명의 불꽃을 구라파에 파급시키며 프로레타리아트에게 자기의 정치적 경각성을 제고하고 커다란 군대로 무장되게 하며 또 조직되어서 새로운 단계 — 사회주의에로의 직접적 이행을 개시할 가능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다。

레닌은 「우리들은 바로 우리들의 력량을 자각적이며 조직된 프로레타리아트의 력량 여하에 따라서는 방금이라도 민주주의 혁명에서 이행을, 즉 사회주의 혁명에로의 이행을 시작할 것이다. 우리들은 계속 혁명을 주장한다. 우리들은 중도 반단에서 주저앉지는 않을 것이다」(레닌 전집 제九권 二一三폐지) 라고 썼다.

레닌은 부르죠아 민주주의 혁명을 전농민과 동맹하여 승리한 후 프로레타리아트는 빈농과 동맹하여 사회주의 혁명에로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프로레타리아트는 전제 정치의 반항을 타파하며 부르죠아지의 불견실성을 마비시키기 위하여 농민 대중을 자기에게 가담시키면서 민주주의적 변혁을 끝까지 수행해야 한다. 프로레타리아트는 부르죠아지의 반항을 타파하며 농민과 소부르죠아의 불견고성을 마비시키기 위하여 주민의 반프로레타리아적 분자들의 대중을 자기에게 가담시키면서 사회주의적 변혁을 완성해야 한다」(레닌 전집 제五권 一八四폐지) 라고 론증했다.

레닌은 제二 인터내쇼날의 기회주의파들에 의하여 망각되었고 외곡된 맑쓰의 이 사상을 부활시켜 그를 더욱 발전시켰으며 사회주의 혁명의 정연한 리론으로 발전시켰다. 그는 프로레타리아트—령도자—가 도시와 농촌의 반프로레타리아적 분자들과 수백만의 근로자와 피착취 대중과의 동맹에서 이 혁명을 실현하며 이 동맹은 혁명이 승리할 결정적이며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규정하였다.

레닌의 부르죠아 민주주의 혁명의 사회주의 혁명에로의 이행에 대한 리론은 뜨로쯔끼의 기회주의적이며 멘쉐위끼적인 「영구 혁명」의 반동적 본성을 폭로하였다. 「영구 혁명」리론의 기초에는 혁명 세력에 대한 불신임, 즉 로씨야 프로레타리아트의 력량과 그 능력에 대한 불신임과 농민의 혁명적 가능성에 대한 불신임이 존재하고 있다. 뜨로쯔끼는 「짜리가 없는 로동 정부」즉 다시 말하면 농민없는 혁명에 관한 사상을 내놓으면서 「프로레타리아트의 전원대와 광범한 농민 대중과의 적대적 충돌」의 불가피성을 주장하였다. 로씨야 부르죠아 민주주의 혁명의 전과정과 사회주의 十월 혁명 과정은 뜨로쯔끼의 「영구 혁명」리론의 완전한 파산과 이 리론이 레닌적 사회주의 리론과 절대로 일치될수 없다는 것을 보였으며 또 증명하였다. 一九一七년 로씨야에서의 승리적 사회주의 혁명은 프로레타리아의 해게모니에 의한 로동 계급의 빈농 대중과의 동맹에서 이루어졌으며 이것은 프로레타리아 독재의 기초로 되였던 것이다.

레닌이 이미 一九〇三년 「빈농에게 고함」이란 자기의 저서에서와 一九〇五년 「민주주의 혁명에서의 사회 민주주의자들의 두가지 전술」에서 론증한 바와 같이 一九一七년 二월 혁명 후 광범한 빈농—농촌의 반프로레타리아· 대중은 사회주의적인 도시 프로레타리

아트의 동맹자로서 그의 뒤를 따를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 시기 농민들은 소부르죠아 당인 에쎄르에게 대하여 실망하였으며 림시 정부에게는 아무런 기대를 가질 수 없었다. 또한 림시 정부와 에쎄르 멘쉐위끼들은 토지도 평화도 줄 수 없고 또 주려고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 농민 대중에게는 명백하게 알려졌기 때문이다. 농민에게는 다른 출로는 없었으며 또 있을 수도 없었다. 때문에 그들은 토지와 평화와 자유를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사회주의 프로레타리아트의 뒤를 따랐다.

로씨야에서 사회주의 혁명은 승리했으며 로동자 빈농의 동맹으로 프로레타리아 독재를 전취할 데 대한 레닌의 명제는 실천에서 명백하게 확증되었다.

× × ×

레닌은 프로레타리아 독재를 전취하는 시기까지의 동맹자로서의 농민에 대한 모든 명제들을 명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프로레타리아가 주권 전취를 달성한 후의 동맹자에 대한 문제로서의 농민 문제에 대하여서도 명확한 명제를 제시하였다.

이 시기에 있어서의 농민에 대한 기본적 전략적 원칙은 빈농에 튼튼히 의거하면서 중농과 동맹하여 사회주의 건설에 농민을 인입하는 문제이다.

레닌은 一九一八년 十一월에 다음과 같은 구호를 내걸었다. 「잠시도 부농과의 투쟁을 쉬지 말며 오로지 빈농에만 튼튼히 의거하면서 중농과의 협조를 달성할 줄 알아야 한다」(레닌· 전집 제二三권 二九四폐지)

레닌은 제八차 당 대회에서 프로레타리아트의 지도적 역할을 인정하면서 중농과의 공고한 동맹 정책으로 이행할 것을 강조했다.

이 시기 중농과의 동맹 정책은 비상히 큰 의의가 있었다. 혁명 후 농촌은 더욱더욱 중농화하여 갔으며 이 시기 중농은 부르죠아와 프로레타리아트의 중간에서 동요하고 있었다. 중농들의 경향과 행동은 공민 전쟁과 사회주의 건설의 운명에 거대한 의의를 가졌던 것이다.

八차 당 대회는 중농에 대한 당정책에서의 일전기, 즉 중농의 중립 정책, 일반적으로 중농이 부농 편에 가지 못하게 하는 정책으로부터 공고한 동맹의 정책으로 넘어갔다. 쓰딸린은 빈농에 튼튼히 의거하면서 중농과 동맹할 데 대한 레닌의 전략적 표어에 대하여 분석하면서 얀쓰끼에 대한 대답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중농은 아직 부르죠아지를 전복하는 그 때까지는 아직 쏘베트 주권이 튼튼하여지지 않은 그 때에는 혁명과 반혁명과의 사이에서 우는 소리를 하고 있었고 동요하고 있었다. 그런 까닭에 그들을 중립시키게 되였던 것이다. 중농은 부르죠아지가 「아주」 전복되였고

쏘베트 주권이 튼튼하여져 가고 부농이 타도되어 가고 붉은 군대가 국내 전쟁의 전선에서 승리하기 시작하는 그것을 확신하게 된 그 때에야 우리 편으로 돌아서기 시작하였다。바로 이러한 전환이 있은 후에야……빈농에 의거하여 중농과 튼튼한 동맹을 지으면서 사회주의 건설 사업을 위하여 앞으로 나가자는 그 구호가 가능하게 되었던 것이다」(「레닌주의의 제문제」로동당 출판사판 제一분책 三一三페지)

레닌은 이미 국제 공산당 제二차 콩그레쓰에서의 토지 문제에 관한 테제에서 중농민에 관한 관계에 있어서의 프로레타리아 당들의 정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경제적 의미로 보아「중농민」이란 것은 소유권이나 혹은 소작권에 의하여 토지의 조그마한 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로되 역시 그 토지는 자본주의 하에서 일반적 법칙에 의하여 다만 가족 및 경영에 대한 빈약한 부양료(扶養料)만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풍년에는 자본으로 변환할만한 상당한 여유를 얻을 가능성을 주는 바의 그만한 토지를 가지고 있으며 또는 자주 남의 로동을 고용하는……그러한 소규모적 토지 소유가로 생각하여야 할 것이다。혁명적 프로레타리아트는—적어도 가장 가까운 장래에나 또는 프로레타리아트 독재 기의 시초에 있어서는 이 층을 자기의 편으로 끌어 들이는 것을 자체의 임무로 세울 수 없는 것이다。프로레타리아트는 그 층을 중립시키는 임무로서、다시 말하면 부르죠아지가 프로레타리아트와 투쟁하는 데 있어서 그 층이 부르죠아지를 적극적으로 지지하지 않도록 하는 임무로서 국한되어야 할 것이다」(「레닌주의의 제문제」一분책 三一四—三一五페지)

이러한 기본적 전략적 구호 밑에 레닌은 수백만 농민을 사회주의적 건설에 이끌어 들이며 농촌 경리의 사회주의적 발전의 길에로 지향시킬 구체적 정책을 내세웠다。

레닌은 농민을 사회주의의 길로 발전시키는 유일하게 정당한 길은 협동 조합이라고 하였다。협동 조합만이 농촌 경리를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함에 있어서 농민의 기본 대중의 리익에 적절한 형태이라고 하였다。사회주의 건설 사업에 농민의 대다수를 끌어 넣는 길、농업에 처음에는 판매 부문에、그 다음에는 농산물의 생산 부문에서 협동주의(協同主義)의 원칙을 점차 부식시키는 길을 밟아 나가야 할 것이라고 레닌은 지시하였다。

「오직 토지를 공동적으로、집단적으로、협동적으로、알뗄리적으로 경작하는 우월성을 사실에 있어서 농민들에게 보이어 주게 되는 그러한 경우에라야만、오직 협동적 알뗄리적 경리의 도움으로서 농민을 도와주게 되는 경우에라야만。오직 그렇게 되는 때에라야만 자기 손에 국가 주권을 잡고 있는 로동 계급은 참으로 농민에게 자기의 정당성을 증명하여 주게 될 것이며 참으로

여러 백만의 농민 대중을 튼튼하게·또는 확실하게 자기의 편으로 끌어 들일 수 있을 것이다」(레닌 전집 二四권 五七九페지)라고 레닌은 설명하였다。

레닌은 쏘련에서 농업 발전의 전망을 다음과 같이 론술하였다。

「모든 대생산 수단에 대한 국가의 주권、프로레타리아트의 수중에 있는 국가의 주권、수백만의 소농 및 세농들과의 프로레타리아와의 동맹 그 동맹에 있어서 농민에 대한 프로레타리아트의 지도의 보장 등등—이 모든 것이 우리가 이전에 소상인적이라고 랭대하였고 그리고 신경제 정책 하의 지금에 있어서도 어떤 점에서는 랭대할 수 있는 그 협동 조합、오직 그 협동 조합 하나만을 가지고 출발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아닌가、이것이 완전한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아닌가? 이것은 아직 사회주의의 사회의 건설은 아니다。그러나 이것은 그 건설에 필요한 그리고 충분한 모든 것이다」(레닌 전집 二七권 三九二페지)、

레닌은 이렇게 협동 조합을 통하여 농민을 서서히 대규모적 생산 협동체 꼴호즈에로 나아가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을 가르쳤다。

레닌의 협동 조합 계획은 낮은 단계의 형태인 공급—판매 형태로부터 높은 계단의 형태인 생산—꼴호즈 형태에 이르는 협동 조합 전반을 포함하였다。그러므로 협동 조합은 근로 대중의 한 조직체로서 프로레타리아트 독재의 승리의 조건 하에서 광범한 대중을 사회주의 건설에로 인입시키는 위력한 무기로 되는 것이다。

볼쉐위끼 당은 레닌의 협동 조합에 대한 계획을 충실히 실천하면서 가장 곤난한 사업、농민들을 사회주의 궤도에로 농촌을 대규모적、공동 경작에 기초한 집단적 사회주의적 경리에로의 이행을 성과적으로 달성했다。

근로 대중을 사회주의 건설에로 인입시키는 위력한 무기로서의 협동 조합의 특수한 의의에 대하여 쓰딸린은「이것은 비당적 조직체인바 무엇보다도 먼저 로력자들을 소비자로서와 또는 일정한 시기를 지나서는 그들은 생산자로서(농촌 경제 협동 조합)련합시키는 그로력자들의 대중적 조직체이다。그는 프로레타리아트의 독재가 튼튼하여진 이후 광범한 건설기에 있어서 특별한 의의를 가진다。그는 프로레타리아트의 선봉대와 농민 대중과의 련락을 쉽게 하여 주며 농민 대중을 사회주의의 건설의 궤도에로 끌어 들일 가능성을 만들어 준다」(「레닌주의의 제문제」제一분책 二二六—二二七페지)라고 하시였다。

레닌의 가장 친근한 전우이며 레닌적 학설의 계승자이며 사업의 계승자인 쓰딸린은 실천 속에서 그의 리론을 풍부히 하였으며 협동 조합을 통하여 농촌 경리의 사회주의적 재건、전반적 집단화、농촌 경리의 가장 높은 형태인 꼴호즈 쏩호즈 건설의 곤난하며 비상히

거대한 사업을 완수하였다。

쓰딸린은 농촌에서의 사회주의 경제의 꼴호즈 형태에 대한 문제를 상세히 연구하고 꼴호즈 건설의 기본적 또는 중요한 형태는 농촌 경리 알쩰리이며 이 농촌 경리 알쩰리는 꼴호즈원들의 개인 리익을 그들의 사회적 리익과 부합시킬 가능성을 주는 가장 정당하고 또는 농민이 리해할 수 있는 형태이라는 것을 론증하였다。

쓰딸린의 지도 밑에 볼쉐위끼 당은 一九二七년에 집단화 실시의 길에 들어섰다。 이 시기 쏘련의 산업은 전전 수준을 초과하였으며 공업의 사회주의 부문은 거의 九〇%에 도달하였다。 그러나 농업은 전전 수준에 도달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품 곡물량에 있어서는 전전 수준의 三七%밖에 되지 못하였다。 十五차 당 대회에서 쓰딸린은 농업의 락후한 원인을 분석하면서 그로부터의 출로를 밝히었다。 「소규모인, 극 소규모인 농민 경영을 점차로, 그러나 동요없이 그리고 압박 수단에 의하지 않고 실증과 설복의 방법으로, 토지의 공동적, 협동적, 집단적 경작의 기초 위에서 농업 기계와 뜨락또르를 적용하고 농업 강화의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는 대규모 경영으로 결합하는 데 있다。 이밖에 다른 길은 없는 것이다」(쏘련 당사 五〇二폐지)

쓰딸린의 이 지시에 의하여 볼쉐위끼 당은 농촌 경리의 근본적인 사회주의적, 재건의 길, 집단화의 길에 들어섰다。 사회주의 공업의 앞으로의 발전, 쏩호즈와 꼴호즈적 및 토호와의 투쟁의 강화는 전반적 집단화에 필요한 제전제 조건들을 만들어 주었다。 농민의 기본 대중은 꼴호즈에 들어갈 필요성을 확신케 되었다。

一九二九년은 위대한 전환의 해로서 특징된다。 토호를 계급으로 보아 청산하며 전반적 집단화 꼴호즈 운동의 대중적 전개가 진행되었다。 중농민은 대중적으로 꼴호즈에 들어왔다。 꼴호즈에의 농민들의 대중적 가입은 농촌에서 토호를 반대하는 첨예화한 계급 투쟁을 전개시켰다。

쓰딸린의 지도 밑에 볼쉐위끼 당은 농촌 경리의 집단화에 대한 레닌—쓰딸린적 리론으로 무장하였으며 농민들을 꼴호즈에 인입시켰다。 이 시기 쓰딸린의 제론문들 「승리로 인한 현훈증」 「꼴호즈원 동무들에게 주는 대답」 들은 집단화의 명확한 로선을 당에 주었으며 볼쉐위끼 당을 무장시켰다。

쓰딸린의 지도 밑에 볼쉐위끼 당이 전반적 집단화의 길로 토호를 반대하는 공격으로 넘어가게 되자 온갖 계급적 원쑤들은 당을 반대하는 발악적 반항에로 나섰다。 부하린 뢰꼬브 도당의 우익 집단은 토호의 리익의 대변자로 나서면서 토호를 대치한 당의 정책을 비난하며 토호 경리의 쇠퇴는 농촌 경리의 전반적 쇠퇴라고 떠들었으며 그들은 토호 경리는 평화적으로도 사회주의로 성장한다고 떠들어댔다。 또한 「계급 투쟁 소멸론」

을 가지고 쏘련에서의 자본주의 부활을 획책하였다。

사회주의 건설에 농민의 인입을 거부하며 쏘련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을 도무지 보지 않는 좌익 투항주의자들의 발악도 당에 해독을 끼치었다。 그러나 쓰딸린의 지도 밑에 당은 우익 좌익 두 전선의 공공연한 투항주의자들을 폭로하였으며 숙청하였다。

쓰딸린의 영명한 지도 밑에 볼쉐위끼당은 집단화의 완전한 승리를 획득하였으며 농촌을 사회주의에로 돌리어 놓았으며 광명한 꼴호즈 쏩호즈의 생활에로 수백만 농민들을 일으켜 세웠다。

쓰딸린은 농촌에서의 이와 같은 위대한 전환을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 농촌 경리의 집단화는 「……심각한 혁명적 변혁, 자기의 귀결로 보아 一九一七년 十월에 있은 혁명적 변혁과 동등한 사회의 낡은 질적 상태로부터 새로운 질적 상태에로의 비약인 것이다」(쓰딸린)

이 혁명은 단번에 사회주의 건설의 삼개 기본적 문제를 해결하였나니, 즉 쏘련에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착취 계급인 토호 계급, 즉 자본주의 복구의 생채를 숙청하였으며 농민——쏘련에서 가장 많은 수를 가진 근로자——을 령세적 개인 경리의 길로부터 거대한 사회주의의 길로 이전시켰으며, 가장 광범하고 가장 필요한 분야이지만 인민 경제에서 가장 락후한 분야인 농촌 경제에 있어 튼튼한 사회주의적 토대를 창건하였다。

이것으로 쏘련 국내에서 자본주의 부활의 최후의 원천이 근절되었으며 사회주의의 인민 경제 건설에 필요한 새로운 결정적 제조건이 만들어진 것이다。 쓰딸린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다。

「쏘련에 자본주의의 부활을 몽상하는 각국 자본가가 품고 있는 최후의 희망——「사유 재산의 신성한 원칙」은 파산되었으며 미진으로 분쇄되었다。 자본가들이 자본주의를 위한 토양에다 시비(施肥)하는 재료라고 보아 오던 농민들은 대중적으로 「사유 재산」이란 찬미받던 기치를 집어던지고 집단주의의 궤도, 사회주의의 궤도로 넘어가고 있다。 자본주의의 부활에 대한 최후의 희망은 붕괴되고 있다」(「전동맹 공산당(볼쉐위끼)력사」 五三二—五三三폐지)

一九三七년에 이르러 농업의 집단화는 완수되였다。 즉 전농가의 九三%나 되는 一천八백五十만호가 꼴호즈에 가입하였으며 꼴호즈의 곡물 파종 면적은 전농민의 곡물 파종 면적의 九九%를 점하였다。 전농작물의 파종 면적은 一九一三년의 一억 五백만 헥따르에서 一九三七년에는 一억三천五백만 헥따르로 증가되었고 곡물 생산고는 四八억 뿌드에서 六八억 뿌드로 증가되었다。 꼴호즈만으로도 一九三七년에 와서는 十七억 뿌드 이상이나 국가에 주었다。 이것은 一九一三년의 지주 토호 농민의 분을 전부 합한 것보다 四억 뿌드나 더 많은 것이다。 쏘련에서 농촌 경리의 사회주의적 재건은 력사적 승리를 달성하였다。

위대한 조국 전쟁 시기에 있어서 사회주의적 농촌 경리의 무진장한 생활력과 우월성은 실험으로써 확증되었다。

지금 쏘련의 광대한 지역내의 뜨락또르 꼼바인 기타 현대 농기구로써 경작되는, 수만 수천개의 꼴호즈에서는 수천 수백만 농민들이 유족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수만 수천의 꼴호즈 쏩호즈들에서는 영화관、도서실、구락부、학교、모든 문화 기관들이 모든 꼴호즈원들에게 풍부한 문화적 요구에 충당되고 있다。

쏘련의 농민들은 모든 지주적 착취에서 영원히 해방된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농민들이다。

× × ×

레닌과 쓰딸린에 의하여 창건되었으며 령도되는、볼쉐위끼당에 지도되는 쏘련의 영웅적 로동 계급은 농민과 동맹하여 짜리 전제 제도를 타도하였으며 인류 력사에서 처음으로 자본주의의 모든 착취 기구들을 박멸하고 사회주의 혁명을 승리하였으며 쏘련에서 사회주의 건설을 완성하고 공산주의 길로 힘차게 전진하고 있으며 참말로 지난 세기 五〇년대에 맑쓰가 고전적으로 론증한바 빈궁과 령락과 사회적 퇴화에서 농민을 영원히 해방하였으며 행복한 생활에로 인도하였다。

이것은 농민 문제에 대한 레닌적 명제의 정당성을 증명하는 것이며 그의 혁혁한 승리를 확증하는 것이다。

쏘베트 군대의 무력에 의하여 해방되었으며 쏘련의 우의적 방조 밑에 사회주의 길로 힘차게 나아가는 중앙 및 동남구라파 인민 민주주의 국가들은 레닌─쓰딸린이 제시한 제명제로부터 출발하여 사회주의 건설에로 농민들을 인입시키면서 새로운 승리에로 전진하고 있다。

평화와 민주와 민족적 독립을 위하여、 로동 계급의 통일을 쟁취하자

최 경 덕

평화를 옹호하며 새 전쟁을 반대하는 전 세계적 인민 운동과 로동 계급의 통일을 위한 투쟁은 현하의 정세 하에서 최대의 중요성을 띠고 있다。

인류 력사에서 가장 참담한 사변으로 되었던 제二차 세계 대전이 쏘베트 동맹의 결정적 역할로 인하여 종결된 후 세계 인민들은 장구한 동안 새로운 전쟁의 위협에서 벗어날 것이며、강대국 정부들은 전후 평화의 수립을 위하여 이바지할 것이라고 믿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전후 시기에 있어서 미 영을 두목으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의 도발적 정책으로 말미암아 새 전쟁의 위험은 증대되고 있으며 식민지 반식민지 국가에 대한 제국주의자들의 침략 정책은 월남에서、인도네시야、마레이에서 계속되고 있다。

오늘 세계에서 인민들 간의 공고한 평화와 민주주의를 위하여 끝까지 투쟁하는 쏘련을 수위로 한 민주주의적 반제국주의 진영과 세계 제패를 망상하며、세계 인민들을 예속시키며、새 전쟁 도발을 목적으로 하는 반민주 진영과의 대립적 투쟁은 일층 로골화되고 있으며 그 투쟁은 더욱 첨예화하고 있다。

이 투쟁에 있어서 쏘련을 선두로 한 통일되고 단결된 세계 평화 애호 인민들의 민주 력량은 급속히 장성 강화되고 있으며 미국을 괴수로 한 반민주 진영은 날로 약화되어 가고 있다。

오늘 평화와 민주주의와 민족적 독립에로 지향하는 수억만 자유 애호 인민들은 장성 강화된 평화 력량을 시위하면서、새 전쟁 도발자들을 반대하는 강력한 평화 옹호 투쟁을 전개하고 있으며 그 선두에는 국제적 및 민족적 범위의 단결된 로동 계급이 튼튼히 서 있다。

「개별적 국가들에서나 세계적 범위에서나 로동 계급의 통일이 지금처럼 그렇게 결정적 의의를 가져본 일은 전체 국제 로동 운동사에 아직까지 있어 보지 못하였다」 (보고국의 결의문)

로동계급의 통일은 평화를 고수하며, 전쟁 도발자들의 범죄적 모략들과, 민주주의와 평화를 말살하려는 제국주의자들의 모략을 폭로시키면서 로동 계급의 생활 상 리익을 반대하는 독점 자본의 책동에 결정적 타격을 주고 있다。

전후 시기는 평화의 력량인 민주주의와 사회주의 국가들의 급속한 정치 경제적 장성으로 특징지어 진다。

전후 쏘베트 동맹은 「전쟁으로 인하여 피해를 당한 제지구를 부흥시키며, 공업과 농업의 전전 수준을 회복하며, 나아가서 이 수준을 다소간 상당한 정도로 능가합에 있다」라고 제시한 쓰딸린적 새 五개년 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한 결과 오늘에 와서 쏘베트 동맹의 근로자들이 쟁취한 제성과는 자본주의 제도에 비한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과 쏘베트 동맹의 무진장한 력량을 전세계에 보이고 있다。

또한 전후 시기에 있어서 인민 민주주의 국가들은 자기 발전의 금후 방향을 종결적으로 판정하였다。그들은 프로레타리아트 독재의 기능을 실시하는 국가로 강화되었으며, 그들이 사회주의로 가는 길 위에는 자유롭고 그리고 자기의 생활 수준의 제고에로 이르는 다른 길은 없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제二차 세계 대전의 승리의 가장 중요한 결과의 하나로서의 중화 인민 공화국의 수립과 또한, 구라파에서 평화를 위한 투쟁의 전환점으로 되는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의 수립은 세계 평화를 공고히 하는 사업에서 력사적 사건으로 되었다。더우기 쏘련과 중화 인민 공화국 간의 형제적 동맹에 관한 조약은 평화 공고 위업에서 강대한 력량으로 되고 있다。그렇기 때문에 몰로또브는 「쏘련 인민과 중국 인민 사이의 공고한 반제국주의 동맹이 설정된 이후로는 특히 평화 민주주의 및 사회주의의 진영은 가장 강대한 세력으로 전변되였다」라고 말하였다。

전후 시기에 로동 계급의 통일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에 있어서 이루어진 현저한 성공은 국제 직련의 형성인 것이다。력사 상 처음으로 七천 二백만의 직맹원을 포괄한 단체, 국제 프로레타리아트의 통일적 직맹 단체가 조직되었다。

국제 직련의 창건은 로동 계급을 통일시키는 사업에서의 력사적 성과이며, 이는 각국 내에서의 로동 계급의 지도적 역할을 보장하며, 인민들의 경제적 문화적 향상을 위한 사업의 성과를 달성함에 있어서 결정적 역할을 놀고 있다。

또한 인민 민주주의 국가들에서는 로동 계급의 통일을 분렬시키려는 내부적 알륵을 제거하고, 광범한 대중으로 통일적 직맹들을 창건하고, 쏘베트 직업 동맹의 모범을 받아 자기 나라의 사회주의 건설에 열성적으로 참가하고 있다。

또한 불란서에서 전국 로동 련맹이 강화되어 가고 이태리에서 유일 직업 동맹 련합이 창설된 것을 비롯하여, 각국에 있어서 프로레타리아트의 전투적 진출은 로동 계급 통일에서의 거대한 성공을 표현하고 있다。뿐만 아니라 국제 직련의 조직을 위시하여 세계 민주 청년 련맹, 국제 민주 녀성 련맹 등의 창설과 세계 평화 옹호 운동은 평화와 민주 진영의 결정적 우세를 표현하는 것이며 그 전투에 선 로동 계급이 온갖 반동 세력들을 반대하여 능히 자기들의 유일의 조직된 평화 전선을 조직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그리하여 오늘과 같이 강대한 조직적 평화 전선은 일찌기 력사에서 찾아볼 수 없으리만큼 강대한 힘으로 되고 있다。

제二차 세계 대전 후 제국주의자들은 무너져가는 자가의 운명을 계속 연장하려고 애쓰고 있으며, 그러기 위하여 「진보적 단체들과 민주주의 운동을 반대하여 야만적 술책을 취하고 있으며, 다른 나라 반동 정부들에 있는 [illegible]의 동맹자들을 모아 각종 블럭을 꾸며내고 있으며, 세계 제패에 대한 자기의 야망을 실현할 목적으로 보다 더 범죄적인 침략 행위를 준비함에 광분하고 있다」(몰로또브)

미·영 제국주의자들과 그들의 앞잡이들은 새 전쟁 준비의 음모를 세계 각국에서의 로동 운동과 민주주의 운동을 탄압하며, 전후 수년간에 완강한 투쟁으로 쟁취한 로동인민들의 권리를 말살하는 데 날뛰고 있었다。

자본주의 제국가에서의 근로 대중들의 생활 수준 향상을 위한 투쟁에 대한 독점 자본가들의 공격은 자본주의 체계의 일반적 위기의 첨예화에 비추어 더욱 격렬한 성격을 띠고 있다。

오늘 미국에서는 독점 자본가들이 무제한한 군비 확장과 계속되고 있는 근로자들에 대한 공세는 부르죠아 출판물의 인정에 의하여도 전 미국의 七분지 一에 해당하는 농민들이 굶주리고 있으며, 분명히 축소된 공식 자료에서만 보더라도 실업자 반 실업자의 총수는 一천 五백만명에 달하고 있다。

마샬안화한 자본주의 국가들에서의 경제 형편은 일층 참혹하다。「구라파 경제 협조 지구 집행 위원회」의 보고서는 마샬안화한 나라들에서 一인당 상품 소비량이 전전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수준에 머물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앞으로 서구라파 제국에서는 생산이 더욱 축소되리라는 것을 솔직히 고백하고 있다。

이 나라들에서 공업 생산은 미국 국회에 제출된 트루맨의 보고에 의한다면 一九四九년 三·四분기는 二·四분기에 비하여 노르웨이에 있어서는 一八%, 영국에 있어서는 七%, 벨기에에 있어서는 一六%가 각각 저하되었다。특히 서반아에 있어서는 야금 공업 생산고가 五○%이하로 저하되었고, 광산, 채굴과 방직 기업은 파멸에 [illegible]고 있다。

미국은 일찌기 서구라파 제국의 공업 생산을 고의적으로 감소시키면서 자기 앞에 닥쳐온 경제 공황의 중하를 이 나라들에 걸머지우고 있는 것이다。

…며 영국과 기타 자본주의 국가들에서 박두하고 있는 경제 공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그들은 「전쟁 방도로써 력사 발전 행정을 변경하며、자국의 내부적 또는 외부적 모순과 난관을 해결하려고 하며、독점 자본의 진지를 확보하며、세계의 패권을 잡으려고 애쓰고 있다」(보도국의 결의문)

새 전쟁 준비에 광분하고 있는 독점 자본가들은 자기들의 온갖 정치적 대외적 투기를 위한 행동에서 「자유」를 얻기 위하여 민주주의 단체를、특히 로동 운동의 대렬을 파괴하며 직업 동맹 단체들을 반대하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서반아、포르도카르、희랍은 물론 아세아와 라틴·아메리카 여러 나라들에서 직업 동맹들이 지하로 몰려들어갔으며 수천명의 로동 운동 지도자들이 란포하게 탄압 감금당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아직도 타프트·하틀리 법령이 철폐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제의 로동 운동 분렬 정책의 총본부인 에이·에프·엘 (미국 로동 총련맹)의 부패한 지도자들은 마샬안화한 구라파 제국가에까지 그 압박을 뒤집어 씌우려고 꾀하고 있는 것이다。

제국주의자들은 자기들의 탐욕적 기도를 위하여 또는 그 앞에 가로놓인 가장 강대한 장벽인 로동 계급의 국제적 통일을 파괴 분렬하려는 음모를 진행하여 왔다。

미국 및 영국의 직접적 지시에 의하여 행동하고 있는 분렬주의자들 —— 더킨、캐리、듀쏜 및 쿠페르스 등의 이와 같은 행동은 그것이 로동 계급을 위해서가 아니라 로동 계급의 적들을 위해서 봉사하였으며 또 봉사하고 있다는 것을 완전히 폭로한 것이다。

에이·에프·엘 지도자들에 의하여 지도되고 있는 분렬주의자들과 파괴자들은 국제 로동 운동 통일을 방해하며 동맹 파업을 파괴하기 위한 온갖 파렴치한 시도를 감행하고 있다。

그들은 불란서에서 「포로쓰·우브리엘」、이태리에서 소위 「로동 련맹」과 같은 분렬파 직맹을 조직하였을 뿐만 아니라 로동 계급에 대한 태로와 정치적 차별 대우 및 배반의 도구로서의 분렬파 국재 직업 동맹 중앙의 창설까지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이리하여 독점 자본가들과 그 앞잡이들、특히 베빈、애틀리와 같은 우익 사회당원들 및 더킨、캐리、그린과 같은 반동적 직맹 활동가들은 항상 로동 계급의 대렬을 분렬시키고 로동 계급으로부터 통일된 민주주의적 단체들을 설립하고 공고화할 데 대한 가능성을 박탈하려고 애쓰고 있다。

또한 그들은 이데올로기 투쟁을 동반하고 있다。그들은 세계 재패를 위한 투쟁을 위하여 민족적 주권 원칙을 란포하게 반대하는 소위 「세계 정부」、「전 세계 경제 동맹」등 코쓰모뽈리찌즘적 망상들을 전파하고 있다。

여기에 있어 반드시 지적하여야 할 것은 우익 사회당 두목들의 로동 계급에 대한 반역적 행동이다。우익 사회당원들은 일체 미 제국주의의 앞잡이로서、미 제국주의의 반동적 이데올로기의 옹호자로서 미제 침략의 직접적 도구로 나서면서 근로자들의 리익을 옹호하는 로동 단체들과 민주주의 단체들을 탄압하여 로동 운동 분렬을 위한 사업에 있어서 가장 추악한 역할을 실행하고 있다。그리하여 매장된 제二 인터나쇼날의 재현인 소위 국제 사회주의 꼼페렌차들의 위원회는 「로동 운동의 악독한 분렬자들과 파괴자들의 집행소로 변하였다」(보도국의 결의문)

제국주의의 반동은 자기들의 최후 파멸을 지탱하기 위한 유력한 발판으로서 식민지 및 반식민지들에 대한 억압 착취와 침략 정책을 계속 감행하고 있다。

마래이、비르마、인도、쎄이론、샴、이란、월남、인도네시야 등 동남 아세아의 식민지 반식민지 국가들에서 제국주의 강점자들은 실업과 기근、질병과 문맹、정치적 무권리 속에 이 나라 근로·대중과 인민들을 몰아넣고 있다。그렇기 때문에 불란서 공산당 총비서 모리스·토레스는 「월남에서의 전쟁은 제三차 세계 전쟁 준비에 들어가는 것이다。때문에 월남에서의 급속한 평화를 위하고 완전한 독립에 대한 월남 인민의 권리를 적극 지지하기 위한 투쟁은 제三차 대전의 도발을 반대하는 투쟁을 의미하는 것이다」(불란서 공산당 제十二차 대회에서의 보고)라고 말하였다。

로동 계급을 선두로 한 평화 옹호 투사들의 부대는 새 전쟁 방화자들을 반대하여 민주와 자유와 인민들의 민족적 독립의 교살자들을 배격하여 강력한 공세를 취하여 나섰다。

지구 상의 모든 나라들에서 평화와 인류의 행복을 위한 투쟁이 어느 때보다도 치열히 전개되고 있으며 모든 전쟁 도발자들과 그 범죄적 계획을 폭로하고 평화 전선을 더욱 공고히 하는 투쟁에 있어 새로운 성과를 거두고 있다。

지난 三월의 평화 옹호 세계 위원회 제三차 회의에서 큐리가 말한 바와 같이 「우리의 평화 운동이 오직 평화의 력량을 규합하기 시작하였을 뿐인 이 때에 전쟁 방화자들은 그들의 계획이 이미 커다란 난관에 봉착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다」

미국을 비롯하여 불란서、이태리、백이의、화란 등에서 평화와 민주주의와 근로자들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한 투쟁은 새로운 형태를 띠고 있으며 로동 계급은 이 투쟁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놀고 있다。

더우기 국제 직련 제二차 대회와 아세아 및 대양주 직업 동맹 대회는 제국주의자들의 새 전쟁 방화 음모가 일층 로골화되고 특히 아세아에 있어서 그들의 식민지 예속화 정책이 더욱 강화되고 있는 현 정세 하에서

제국주의자들의 새 전쟁 도발 음모와 침략적 기도를 여지 없이 폭로하고 전세계 로동 계급들을 완강한 평화 투쟁과 민족 해방 운동에로 호소하였다。

불란서、이태리、백이의、화란 항구들의 부두 로동자들은「마샬안」에 의하여 미국으로부터 도착한 무기의 하륙을 거부하였으며 또 불란서의 많은 기업소들에서 로동자들은 무기 생산과 결부되는 작업을 일체 거부하여 월남 인민들을 반대하는 침략을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평화와 민주주의와 민족적 독립을 위한 투쟁은 제국주의자들의 파렴치한 침략적 기도로 말미암아 아직도 노예적 억압 속에 신음하고 있는 모든 식민지 반식민지 국가들에서 더욱 치렬히 전개되고 있다。

월남 인민들은 독립과 자유를 위한 강력한 무장 투쟁에 궐기하여 이미 전 국토의 九○%를 해방하고 월남 인민 공화국을 창설하였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수백만 근로 대중과 인민들이 자기 나라 독립과 자유를 위하여 화란 제국주의자들의 무장 간섭에 항거하는 격렬한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민족 해방 투쟁은 이밖에 인도에서도、비르마에서도、마레이와 비률빈에서도、남아프리카의 식민지 예속국가들에서도 빨찌산 투쟁과 파업과 농민 봉기로 줄기차게 계속 전개되고 있다。

인민들의 평화와 민주와 민족적 독립을 반대하는 제국주의자들의 탐욕적 공세는 우리 조국의 남반부에서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즉 세계 제패를 강요하며 다른 국가와 인민들을 예속시키며 새 전쟁 도발을 자기의 기본적 목적으로 하는 미제국주의자들은 이 목적을 우리 조선에서도 실현하고자 광분하고 있는 것이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자기의 군대를 남조선에 상륙시킨 첫걸음부터 제국주의적 침략 정책을 실시하여 모쓰크바 三상 회의 결정의 실시를 거부하고 조선 문제를 비법적으로 유·엔에 상정하고 망국적 五·十 단선을 감행하고 리승만 매국 역도들의 괴뢰「정부」를 조작하였다。

그리하여 이 괴뢰「정부」와 수다한 침략적「협정」들을 체결하였다。

해방후 五년 간의 미제의 식민지 침략 정책으로 말미암아 남조선의 산업、농촌 경리 전부문에 걸친 민족 경제는 전면적으로 파탄되고 있다。

미제는 남조선 경제를 군정 초기에는 무력적 강점 방법으로 또「한미 협정」「한미 경제 원조 협전」「한미 석유 협정」등 허다한 매국 협정에 의하여 九○% 이상이나 장악하고 월가 독점 자본가들의 완전한 지배권을 설정하였다。

그 결과에 이미 一九四八년 말 현재로 남조선의 산업 운영 상태는 현존 설비의 三○%에 지나지 않았고 공장 총수는 절반으로 감소되였으며 공장 로동자 수는

四○% 이하로 축소되었다。

결과에 공업 생산액은 一九四○년에 비하여 一八·六%로 저하되고 있으며 대외무역은 수입 총액이 수출 총액의 二○배를 초과하고 있다。

이리하여 물가는 전쟁 전의 八二一──一、○○三배로 폭등하고 실업자수는 三백만을 넘어 인민들은 실로 암흑과 빈궁과 기아에 신음하고 있다。

미제의 이와 같은 야수적 침략 정책과 리승만 역도들의 망국 정책을 반대하는 남조선 로동당과 전평(全評)을 비롯한 전체 애국적 정당 사회 단체들은 그들의 가혹한 탄압과 학살 정책으로 말미암아 지하로 몰려들어 갔으며 인민들은 정치적 자유를 완전히 박탈 당하였다。

그 반면에 친일 팟쇼 단체들과 매국 노들이 미제의 비호와 조종 하에 날뛰고 있다。 그들은 남조선에 수다한 반동 테로 단체들을 조작하고 로동자들을 강제 로동에로 몰아넣기 위한 강압 도구로서「대한 로총」을 조작하여 로동 계급에 대한 억압과 분렬을 획책하고 있으며 허위와 기만에 가득찬 반동적「로동 립법」을 내들고 무제한한 착취의 방패로 삼고 있다。

자기들의 무덤이 눈앞에 더 가까이 오는 것을 보게 된 리승만 역도들은 모든 애국자들과 진정한 로동운동 지도자들과 애국적 인민들에 대한 잔인 무도한 테로와 학살을 더욱 공공연하게 계속 감행하고 있으며 조선인민의 철천의 원쑤 일제와 로골적으로 야합하면서 내전을 도발하고 있다。

우리 조국의 남반부에서 미제의 흉악한 식민지」노예화 정책과 리승만 매국 역도들의 망국적 테로 학살 정책을 조선 인민들과 로동 계급은 더는 참을 수 없는 것이다。

파업과 시위와 봉기로 로동 계급의 그칠 줄 모르는 투쟁은 十월 인민 항쟁을 계기로서 인민 무장 투쟁으로 발전되었다。 더우기 조국 통일 민주주의 전선에서 제의한 평화적 조국 통일 방책을 지지하는 남반부 로동자들의 一九四九년 七월 二十일 총파업을 신호로서 남반부 인면들의 무장 유격 투쟁은 그 때까지 보지듯하던 강대한 공격전으로 대부대 작전으로 전환되어 원쑤들을 전률케 하고 있다。

남반부에서 리승만 반동 괴뢰「정권」은 인민들과 로동 계급의 완강한 항쟁 앞에 초조 망동하고 있으며 최후 멸망의 길에서 날뛰고 있다。

× × ×

그러나 수개국 공산당 보도국 결의문 가운데 지적된 바와 같이「제국주의 반동들의 일이 희망이 없어 질수록 그들은 더욱더 광포하게 발악하며 전쟁 모험의 위험성은 더 장성된다는 것을 력사적 경험은 가르치고 있다」그들의 준비하는「새 전쟁 위협을 과소 평가한

다면 그는 평화 사업에 대하여 오유와 해독으로 될 것이다」

전쟁 방화자들의 범죄적 흉책을 파탄시키는 위력한 힘은 오직 인민들과 로동 계급의 모든 힘과 모든 수단을 평화를 위한 투쟁에로 집결시키는 굳은 결심과 무한한 경각심 그것이다。

로동자들과 근로 인민들의 력량의 분렬과 부산은 평화와 민주주의와 제 민족 독립의 적들에게 「전진」을 용허하는 것이다。

제국주의자들의 파렴치한 새 전쟁 도발 음모를 파탄시키고 평화와 민주주의를 고수하며 근로자들의 생활을 위협하는 그들의 공격을 좌절시키기 위하여서는 일치단결된 로동 계급의 력량과 이를 핵심으로한 광범한 인민 대중의 굳은 결속이 요구된다。

오늘의 국제적 환경에서 「만일 로동 계급이 자기 대렬의 통일을 보장하지 못한다면 로동 계급은 성장하여 가고 있는 새 세계 전쟁의 위협을 반대하며 근로자들의 생활수준에 대한 제국주의의 반동의 공격을 반대하는 투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무기를 상실하는」(보도국 결의문) 것이다。

「로동 계급은 그의 력량을 총집결하는 경우에만이 진보적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제국주의자들과 파시스트들의 계획을 견결하게 대립할 수 있다」(똘리아찌)

제국주의자들은 평화 진영에 대한 공세를 부단히 강화하면서 그 공격의 주력을 항상 로동 계급의 통일을 위한 투쟁 대렬에로 집중시키고 있다。

그들의 진공 목적과 구호는 다음과 같다。「첫째로 민족적 범위에 있어서나 국제적 범위에 있어서나 로동 계급의 단결을 파괴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를 지지할 것。

둘째로 식민지 국가들에서 로동자들의 계급 의식의 발전은 그들로 하여금 자본주의와 제국주의의 지배와 착취를 반대하기 때문에 식민지 국가에서는 직업 동맹 운동을 탄압할 것。

세째 자본주의 정부들을 강화하는 동시에 이에 적대되는 로동 계급의 세력을 약화시킬 것。직업 동맹 운동을 약화시키며 로동자들의 생활 수준을 낮은 수준에 두어두며 그렇게 함으로써 값싼 로동력을 확보할 것」(국제 직련 제 二차 대회에서의 펠난드•싼피의 연설 가운데서)

로동 계급의 통일에 대한 반동들의 진격은 이와 같이 집요하다。

평화와 민주와 민족적 독립을 위한 전세계 자유 애호 인민들의 투쟁에 있어서 로동 계급의 선진적 역할을 수행하며 반동의 분렬적 진공을 제지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인 로동 계급의 통일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체 근로자들 앞에 어떠한 과업이 제기되는가。

무엇보다도 전체 근로자들은 공고한 세계 평화와 민

주주의와 민족적 독립을 위한 투쟁에 있어 승리를 쟁취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로동 계급 대렬의 통일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인식하여야 하며 그 실현을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여야 한다。

영웅적 쏘련 로동 계급이 사회주의 十월 혁명에서와 혁명 후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사회주의 건설에서의 승리적 투쟁 성과는 우리들의 투지와 자신심을 무한히 고무한다。

세계 평화와 조국의 통일 독립을 위한 투쟁에 나선 우리들——조선의 근로 대중은 전세계 근로자들과 더불어 로동 계급 통일의 필요성에 대하여 더 충분히 인식하며 북반부에서의 장엄한 인민 경제 건설과 남반부에서의 인민 무장 항쟁의 실제 투쟁 성과를 통하여 그 계급적 통일을 달성할 것이며 그럼으로써 평화와 민족 독립의 력사적 위업을 반드시 성취하여야 할 것이다。

조선 로동 계급의 당면한 중심적 임무는 전체 조선 인민들의 선두에서 조선에 대한 미제의 식민지 예속화 정책과 소위 「유•엔 위원단」을 철저히 폭로 배격하고 리승만 매국 도당들을 타도 분쇄하여 조국의 통일 독립을 쟁취하는데 있다。

이 투쟁은 국제 민주 진영의 일익으로서 새 전쟁을 반대하며 평화와 민주주의와 민족적 독립을 위한 투쟁과 완전히 결부되며 이 투쟁에서의 승리는 국제적 범위에서와 국내적 범위에서의 로동 계급 통일의 튼튼한 기초 위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때문에 조선 로동 계급은 전체 조선 인민의 선봉으로서 또는 국제 직련의 당당한 일원으로서 자기의 력사적 사명을 더 일층 자각하며 영웅적 쏘련 로동 계급을 비롯한 전세계 로동 계급과의 견고한 단결의 기초 위에서 세계 평화와 안전을 옹호하며 로동 계급 통일을 위한 투쟁을 일층 강화하여야 한다。

동시에 공화국 전체 로동자들은 인민들의 선두에서 그들을 이끌어 공화국 정부와 그의 수상 김일성 장군의 주위에 더욱 튼튼히 단결하여야 하며 조국 통일 민주주의 전선에 굳게 집결하여 평화적 통일 방책을 실시하는 길에 더욱 용감히 궐기하여야 한다。

로동 계급 통일을 위한 투쟁에 있어 중요한 방법적 문제는 민족별과 당별과 신앙의 여하에 불구하고 하부로부터의 통일을 강화하는 문제이다。

이것은 평화를 옹호하며 민족적 독립과 민주주의적 권리와 그들의 경제적 리익을 위하여 전체 근로자들을 결속시키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인 것이다。

「분렬파들과 통일의 적들이 지도하는 직업 동맹들과 당들의 지도적 중앙의 반대 작용을 불구하고 로동 계급의 통일은 완전히 달성될 수 있는 것이다」(보도국의 결의문)

여기에 있어서 우리 당 중앙 위원회 정기회의에서 전술

한 김일성 동지의 연설 가운데 지적된 바와 같이 특히 남조선에서 반동적 「대한 로총」의 반동성을 전체 로동자들 앞에 부단히 폭로하며 리승만 매국 역도의 강제와 기편으로 「대한 로총」의 영향 하에 인입되어 있는 로동자들과 그밖에 전체 근로자들과의 하부 통일을 강화하는 사업은 남조선 전평 산하 로동자들 앞에 제기되는 중요한 과제이다。

로동자들의 경제적 형편을 개선하는 절실한 문제로부터 출발하여 민주주의적 제 권리를 쟁취하는 투쟁에 있어 반동 단체들을 리용하며 반동 「로동 립법」의 기만성과 노예성을 폭로하며 북반부에서 실시된 선진적 로동 법령의 정당성을 부단히 해석 선전하여 반동의 영향 하에 들어 있는 로동자들에게 계급적 각성을 제고하며 그럼으로써 「대한 로총」의 반동적 「지도자」들을 군중으로부터 리탈 고립시키며 로동자들의 하부 통일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로동 계급의 통일을 강화하는 문제는 또한 이데올로기의 투쟁과 관련된다。

제국주의자들의 반동적 이데올로기인 「민주주의적 사회주의」 「제三 세력」에 대한 부패한 리론과 부르죠아 민족주의 및 꼬쓰모뽈리찌즘을 반대하며 맑쓰—레닌주의에 기초한 고상한 애국주의 사상과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는데서 만이 로동계급 통일과 진정한 평화 옹호 투쟁에 있어 백절불굴의 투지는 앙양될 것이며 계급의 원쑤들—부렬주의자 기회주의자 암해 분자들에 대한 적개심은 불타오를 것이다。

로동 계급의 통일을 쟁취하기 위하여는 로동 운동에서 우익 사회주의 분렬자들과 파괴자들을 반대하는 결정적인 투쟁이 요구된다。

자기들이 활동하는 모든 분야에서 우익 사회주의 분렬자 및 파괴자들과의 투쟁을 견결히 전개하며 그들의 반동성을 무자비하게 폭로하며 군중들로부터 그들을 고립시켜야 할 것이다。

찌또、란꼬비츠 간첩 도배의 앞잡이들은 도처에서 로동 운동 및 민주 운동 대오에서 미제의 지시에 따라 흉악한 분과역을 수행하고 있다。 그들이 활동하는 어느 곳에서나 근로자들 앞에는 그 간책을 분쇄하기 위한 결정적 투쟁 과업이 나서는 것이다。

맑쓰—레닌주의 원칙에 튼튼히 립각하여 자기들의 유일한 직업 동맹을 조직적으로 사상적으로 공고히 하는 것은 로동 계급 통일을 위하여 평화 위업과 민족적 독립을 위한 근로자들의 투쟁에 있어 승리의 주요한 조건으로 된다。

로동 계급 통일의 위업은 평화와 민주를 고수하며 민족적 독립을 옹호하여 나가는 전체 근로자들의 중대한 혈연적 사업이다。

쓰딸린적 시대의 천재적 시인 마야꼽쓰끼

기 석 복

쏘베트 인민들과 함께 전세계 진보적 인류들은 쓰딸린적 시대의 가장 재능있는 시인 브·브·마야꼽쓰끼의 서거 二十주년을 추모하게 된다。

마야꼽쓰끼는 풍부한 혁명적 열정의 시인으로 살았다。 혁명과 혁명적 활동은 마야꼽쓰끼의 진정하고도 본성적인 성격으로 되었다。 그는 자기의 광휘로운 천재를 공산주의를 위한 위대한 전투적 과업에 복종시켰고 자기의 열렬한 애국 사상을 로동 계급과 조국의 번영에 바치었다。

마야꼽쓰끼는 새 세계 즉 사회주의적 세계의 시인이며 또 여기에 그의 거대한 력사적 의의가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마야꼽쓰끼는 쏘베트 뽀에시야의 제반 발전에 있어서의 결정적 영향을 주었다。 그렇기 때문에 위대한 쓰딸린은 마야꼽쓰끼를 「우리 쏘베트 시대의 훌륭하고 가장 재능있는 시인」이라고 명칭하였다。

마야꼽쓰끼는 몇해나 한 시기의 시인인 것이 아니라 전 력사적 시대의 시인이다。 이러한 표현으로 그의 창작의 범위를 규정하여 놓을 수 있다。 마야꼽쓰끼는 쓰딸린적 쏘베트 시대의 사상과 감정의 시인이다。 그는 위대한 사회주의적 十월 혁명과 쏘베트 국가의 창건의 시대의 사상과 감정을 자기의 뽀에시야에 표현한 재능있는 위대한 시인이다。

× × ×

울라지미르·울라지미르비츠·마야꼽쓰끼는 一八九三년 七월 七일 (신력으로는 七월 十九일) 구루지야의 꾸따이쓰에서 그리 머지 않은 바그다지 농촌에서 탄생하였다。 그의 부친 울라지미르·꼰싼찌노비츠는 바그다지야에서 산직이로 근무하였다。 시인의 부친 울라지미르·꼰싼찌노비츠는 구루지야 바그다지 농촌에서 지방 구루지야 주민들과 아주 친하게 十七년 동안이나 생활하였다。 이에 대하여 오늘 그 지방 늙은이들이 그를 회상하며、 이야기하며 후대에 전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미래의 시인 소년 볼로쟈도 구루지야인 소년들과 아주 친하였다。 그럼으로 볼로쟈는 어렸을 때부터

구루젼 말을 자유롭게 하였다。이에 대한 실례의 하나로는 울라지미르·마야꼽쓰끼가 一九〇二년에 꾸따이쓰 고급 중학교에 입학 시험을 치게 되었다。입학 시험장에서 승려 시험관은 소년 불로쟈에게 「오꼬」가 무엇인가고 물었다。불로쟈는 별로 생각지도 않고 구루진말로 해석하여 「세근」이라고 대답하였다。그러나 승려 시험관은 불쾌한 기색을 띠고 소년 불로쟈에게 「오꼬」란 말을 해석하여 주었다 (이 말은 고대 슬라반 말인데 「눈(目)」을 가리킴이다)。물론 소년 마야꼽쓰끼가 벌써 그 때에 「오꼬」가 고대 슬라뱐 말로 「눈」이라는 것을 몰라서 그렇게 대답한 것도 아니었다。벌써 소년 마야꼽쓰끼는 고대 종교적 슬라뱐 말과 승려 시험관을 증오하였기 때문에 비소하는、의미에서 그렇게 대답하였던 것이었다。이 때문에 소년 마야꼽쓰끼는 고급 중학교에 입학하지 못할 번 하였다。

마야꼽쓰끼의 가정은 근로하는 민주주의적 가정이었다。이 가정은 당시 구루지야 지방 혁명적 인테리들과 사회 민주주의적 청년 대학생들과 가깝게 되었다。一九〇五년 혁명의 상승은 소년 마야꼽쓰끼에게 새로운 세계를 연기 속에서 내다볼 수 있게 하였다。특히 이때에 소년 마야꼽쓰끼는 모쓰크바에서·류학하고 계시는 자기의 친 맏누이 유드밀라의 방조 하에서 처음으로 혁명적 서적들을 읽게 되었다。이에 대한 생생한 실증의 하나로는 그의 친척들에게 十二세 되던 소년 마야꼽쓰끼가 애독하던 사회 민주주의적 소책자들이 보존되고 있는 것이다。그 소책자들 중에는 프리드릿흐·엥겔쓰의 저작 「불란서와 독일에서의 농민 문제」 또 다른 하나는 흐·브·리프크네히트의 저작 「맑쓰에 대한 회상문」 등이 있었다。

또 구루지야 동무들이 소년 마야꼽쓰끼를 로씨야의 첫 혁명 당시에 로동자들의 시위 행렬 속에서、꾸따이쓰 거리에서 보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그뿐만 아니라 소년 마야꼽쓰끼는 혁명적 폭동자들에게 주는 구루지야 프로레타리아트 시인 에브도쓰비리의 시를 구루지야 말로 높이 소리쳐 읽으며 행진하였다고 이야기하였다。

「동무들 나아가라 앞으로 앞으로
비록 가슴에 피의 락인이 나타났다 할찌라도
당신들의 심장은 떨리지 않는다」

一九〇六년 二월 十九일에 시인의 부친 울라지미르·꼰쌴찌노비츠는 대스롭지 않은 부상으로 인하여 불의에 서거하였다。그리하여 마야꼽쓰끼의 가정은 생계를 유지할 만한 물질적 보장이 전혀 없게 되었다。그러므로 마야꼽쓰끼의 어머니는 나머지의 가정 등물을 팔아 로비하여 가지고 자기의 맏딸이 공부하는 모쓰크바로 어린애들을 다리고 이주하게 되었다。

모쓰크바에서도 마야꼽쓰끼의 가정은 극심한 생활난을 겪게 되었다。이에 대하여 마야꼽쓰끼는 자기의 자서전에 「음식은 나빴다。온급은 十루블리었다」라고 썼다。마야꼽쓰끼의 어머니는 생활에 좀 도움이 될까 하여 자기 방 한간을 대학생에게 세를 받고 주었다。또 그의 맏누이 유드밀라는 쓰뜨로간쓰크 미술 학원에서 공부하면서 여러 가지의 일들、즉 그림도 그리였고 제도 등을 하여 받는 적은 임금으로 생계를 도와주었다。소년 불로쟈는 자기의 누이 유드밀라를 도와주었다。그 후 그는 「사랑한다」라는 뽀에마에 다음과 같이 썼다。

「나는
살찐 놈들을
어렸을 때부터 습관적으로 증오했다。
항상
자기를
한 때의 점심을 위하여 팔고 있는」

마야꼽쓰끼의 가정이 모쓰크바에 이주하게 되자 소년 마야꼽쓰끼는 직접 혁명자들과 밀접한 련결을 가지게 되었다。그것은 무엇보다도 마야꼽쓰끼의 집에서 하숙하는 대학생 바쓰·간쩰라크가 혁명자이었으며 볼쉐위크였기 때문이었다。그러므로 그에게 항상 혁명적 청년들이 모이어서 열렬한 정치적 론쟁을 하고 있었다。이 론쟁이 소년 마야꼽쓰끼에게 새 길을 찾을 수 있는 그러한 광선을 주었다。그뿐만 아니라 마야꼽쓰끼는 그 때에 벌써 엥겔쓰의 저작 「반 듀링론」、맑쓰의 저작 「자본론」 및 비합법적 저서 레닌의 「두가지 전술」 등을 읽었다。

비로소 그 때에 마야꼽쓰끼는 十四세가 되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장한 체격과 쾌활한 성격은 혁명자 당원들의 마음에 들었다。그러므로 마야꼽쓰끼는 혁명자 당원들에게서 신임을 받게 되었다。그리하여 여러 가지의 적으마한 당적 위임을 실행하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이 그는 지하 선동원으로 당의 비밀 사업을 一九〇八년부터 감행하였다。그는 그 해에 로씨야 사회 민주로동당에 입당하였다。그리하여 고급 학교에서 공부를 중단하고 전적으로 혁명적 선전 사업을 로동자 대중 속에서 진행하였다。그는 자기의 자서전에 다음과 같이 썼다。「빵 굽는 사람들、다음 구두쟁이들、마지막으로는 인쇄 직공들에게로 다녔다。……「꼰쌴찐 동무」라고 불렀다」

一九〇八년 三월 二十九일에 로동자 볼쉐위크인 트리포노브의 집에서 나오다가 경찰들에게 체포되었다。체포된 원인은 로동자 트리포노브의 집에서 모쓰크바 볼쉐위끼 위원회의 지하 인쇄 공장을 발전하여낸 때문이였다。물론 마야꼽쓰끼도 이 지하 인쇄 공장과 밀접한 련계를 가지고 있었다。지하 인쇄 공장이 경찰들의

무서운 탐정으로 일하여 실패를 당하자 마야꼽쓰끼도 체포되었다。이것이 마야꼽쓰끼의 생활에 있어서 첫 결투적 세례이었다。

「나를
五학년에서 쫓아내었다。
모쓰크바 감옥에서 헤매이게 되었다」

이와 같이 마야꼽쓰끼는 자기의 시에 그 때의 일을 회상하였다。

그러나 마야꼽쓰끼는 오랫동안 감옥에 구금되어 있지 않게 되었다。그것은 마야꼽쓰끼가 十五세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혁명 사업에 참가한 것을 감출 수 있었다。

그리하여 짜리 로씨야의 경찰은 소년 마야꼽쓰끼를 출옥시키면서도 크나큰 의심을 품고 그의 뒤를 따라다니며 살필 것을 경찰대들에게 명령하였다。

그 후 얼마 안되어 마야꼽쓰끼는 재차 一九〇九년 정월에 경찰에게 다시금 체포되어 수쎕쓰크 경찰서에 구금되었다。그러나 소년 마야꼽쓰끼는 조금치도 움울한 기색을 띄지도 않고 도리어 자기를 직업적 경험있는 혁명자로 용감하게 감각하면서 구금되어 있었다。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 구금된 기회를 리용하여 자습할 결의를 가지고 있었다。물론 자습하기 위하여서는 적당한 서적들이 그에게 필요하였다。그러나 그 감옥에서는 그가 요구하는 서적들을 전혀 얻어 볼 수가 없었다。그러던 중에 그 감옥소에서 구금되었던 한 동무가 출옥하게 되었다。그 동무를 경유하여 볼로쟈・마야꼽쓰끼는 자기의 맏누이 유드밀라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썼다。

「친애하는 유드밀라여!

내가 아침 十一시 경에 집으로부터 나오던 날 나를 체포하였다。무슨 리유로써 나를 체포하는지 하느님이나 알련지! 참으로 의외에 거리에서 나를 체포하여 몸을 수색하고 경찰서에로 보냈다。

또다시 수쎕쓰크에 들어앉았다。감방에는 우리 세 사람이 있었었다(전체 정치범은 九명이다)。

먹인다。바로 말하자면 잘 먹는다。나는 지금으로부터 각과목 준비를 시작하겠다。만일 허락한다면 그림을 그리기에 힘을 쓰겠다。지금 너에게 아래와 같은 것을 부탁한다。

벼개、이불、수건、내복 있는대로、이불 이끼、벼개 이끼、치분、치솔、거울、빗、수건들、검은 적삼을 나에게 보내달라。그리고 아래와 같은 책들(나의 짐을 뭍추어 있는대로 보내고 없는 것은 세료쨔와 올랴지미르・호지 및 그 외 기타 동무들에게서 빌어서 보내주기를 바란다)、다비도브나 체자로의 기하학이나 대수학、니끼호로브의 라틴어 문법、까이제르의 독일어 문법、

독일어 사전、독일말로 번역된 입센의 저서(이 책은 나의 책장에 있다)、끄로엡샤의 물리학、사본니크의 로씨야 문학사、또한 중등 학교 졸업 시험 준비를 하기 위한 강령을 보내달라。

독서를 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책들을 보내달라。체빠노브의 심리학、민또의 론리학、현대 로씨야 문학사(저자의 이름은 누구인지 모르나 그것은 내 책장 위에 있다)、큐립의 철학 개론、변증법적 평론(똑똑치 못하다)、그리고 디치게노의「인간의 정신 로동에 대한 본성(本性)」、이 모든 책들은 네가 나의 방에서 찾을 수 있다。

다음에 맑쓰「자본론」一권과 첼빠노브의「철학 개론」、똘쓰또이의 작품과 도쓰또엡쓰끼의 작품을 울라지미르・세르게야에게 얻을 수 있겠는가 물어보아라。

이 모든 책은 네가 직접 가져오거나 혹은 어떠한 사람이든지 수쎕쓰크에 있는 나에게 가져오도록 하게끔 요청하여라。한꺼번에 가지고 오지 말고 물론 조금씩 가지고 오너라。너와 온 가족들에게 뜨거운 키쓰를 보낸다。내 대신에 어머니 올랴에게 키쓰를 하여 다오。나 때문에는 아무 걱정도 하지 말라。나는 아무 죄진 일도 없는 청백한 사람이기 때문에 새로운 사건에 나를 끄집어 넣지 못할 것이다。

동무들에게 안부를 전해 달라。그들이 나를 잊지 않도록、볼로쟈로부터。

추이、만약 얻을 수 있으면(힘써 달라) 그네지짜의「예술사」、무떼라의「十九세기의 미술사」、만약 있다면(똑똑치 못하다) 누구에게든지 있거나 없거나 간에 또 최후의 수단으로 나의 궤짝에 있는 것이라도 꼭 종이로 싸서 보내 달라」

우리는 이 편지에서 벌써 소년 때부터 마야꼽쓰끼가 과학에 대하여 심대하고 다각적인 흥미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자기 누이에게 보낸 편지에서 마야꼽쓰끼가 한개의 중학교의 졸업장을 타기 위하여 자습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도 찰할 수 있다。미래의 시인 마야꼽쓰끼는 소년 시대로부터 철학과 예술에 대한 커다란 문제들을 연구하려고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짜리 정권 당국은 능할 동안이나 감옥에 구금하고 갖은 악형으로 고문을 하며 마야꼽쓰끼가 련락하고 있는 혁명적 지하 단체들을 알려고 갖은 악형을 다 부리였다。그러나 짜리 정권 당국의 흉심[illegible]으로서는 소년 볼로쟈의 튼튼한 혁명적 절개를 저들에게 굴복시킬 수는 없었다。그리하여 결국 그들은 할 수 없이 마야꼽쓰끼를 다시금 수쎕쓰크 감옥에서 석방시켰다。그러나 자유로운 시기는 장구하지 못하였다。

一九〇九년 七월에 노빈쓰크 녀성 감옥으로부터 十三명의 녀성 혁명 죄수가 탈옥한 사건이 있었다。그들

을 붙잡으려고 모쓰크바 전체 경찰들은 총동원되였다。 이 정치범들의 탈옥을 조직한 사람은 모르차제이었다。 마야꼽쓰끼의 가정은 그들의 탈옥 준비에 있어서 그들을 적극적으로 도와 주었다。 그 때문에 마야꼽쓰끼는 세번째로 체포되였다。 짜리 정권 당국은 미래의 시인 마야꼽쓰끼를 분딜쓰크 감옥의 독신 감방에 구금하고 갖은 고문을 하였다。 그는 五개월 동안이、나 독신 감방에서 갖은 고초를 겪었다。 또 그에게 三년 간의 나림쓰크 변강의 류형을 보낸다는 위협을 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마야꼽쓰끼의 부친의 친구 중의 한사람이 국가 재정성의 관리로 근무하였다。 그는 나서서 마야꼽쓰끼를 석방할 데 대하여 격정하였다。 그 결과 마야꼽쓰끼는 이번에도 나이 어리다는 구실 하에서 「경찰들의 감시와 부형들의 책임 하」에서 十六세 되던 해、즉 一九一○년 정월 九일에 석방되였다。

一九一○년에 마야꼽쓰끼는 당 사업을 중단하고 학습에 전적으로 몰두하였다。 그 후 그는 문학적 활동을 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마야꼽쓰끼가 혁명적 투쟁과의 련결을 끊었다는 것을 전혀 의미하지 않는다。 이에 대한 생생한 실증으로는 혁명 전 마야꼽쓰끼의 시 창작에 표현된 기본적 주제들이 그에 대하여 잘 증명하여 준다。 그 주제들은 착취자들에게 대한 증오심、그들의 패권의 전복에 대한 동경、즉 혁명의 사상이 그것이다。

一九一一년에 마야꼽쓰끼는 모쓰크바 미술 설계 학원에 입학하였다。 그는 이 학원에서 로씨야 푸뜨리즘(라틴말로 미래)의 창시자의 한사람인 다비드 부륙크와 친하게 되었다。 그 후 一九一三년 초에 푸뜨리쓰트들의 선집에 처음으로 마야꼽쓰끼의 시가 발표되였다。

一九一三년부터 一四년 량년 간에 발표된 시들은 대부분으로 도시를 노래하였다。 그것은 그의 시 제목들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항구」 「거리로부터 거리로」 「간판에」 「극장들」 「또한번 뻬쩨르부르그」 「뻬쩨르부르그에 대하여」 「밤」 등이다。

마야꼽쓰끼는 시적 작품들을 창작하기 위하여 독특한 시적 주제와 형상들을 얻어보지 않았다。 그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현 재료로써 예술을 창조하여야 되며 받드시 창조하여야 된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그 때로부터 벌써 시문학에 있어서 새로운 형식들을 창조하여 내었다。 그것은 서정시에서의 인물들과 사변들을 광범히 전개하여 묘사할 수 있는 그러한 형식을 창조한 그에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한다면 二十세기의 로씨야 뽀에시야에 그 때까지 없던 새로운 서정적 영웅들을 내세운 그것이다。

마야꼽쓰끼의 뽀에시야의 서정적 영웅들의 정신적 세계는 시대의 기본적 모순들을 자체에서 뿐만 아니라 그의 주위의 인간、사변들을 반영한 그 것이다。 그

와 같이 마야꼽쓰끼는 뽀에시야를 생활의 거본 문제와 련결시키는 동시에 그에 혁명적 내용을 넣어 주었다。 그는 이와 같이 뽀에시야의 범위를 비상히 확장하였다。 여기에 二十세기 초엽과 十월 혁명까지의 로씨야 뽀에시야의 력사에 있어서 마야꼽쓰끼의 력사적 의의가 있는 것이다。

마야꼽쓰끼는 혁명이 일어난 첫날 스몰리、즉 사회주의적 혁명의 참모부로 갔으며 거기에서 닥치는 대로 무슨 일이나 다 하였다。 이와 같이 마야꼽쓰끼의 이름은 사회주의적 혁명과 공산주의를 위한 쏘베트 인민의 위대하고도 영웅적인 투쟁과 혈연적 련결을 가지고 있다。 벌써 一九一七년 十월 혁명의 전야에 마야꼽쓰끼는 다음의 두줄의 시를 썼다。

「파잉앱플을 먹어라 꿩고기를 씹어라
녀의 마지막 날은 닥쳐온다 부르죠아여」

마야꼽쓰기는「이 두 줄의 시가 나의 가장 즐기는 시로 되었다」고 十월 혁명 후에 썼다。 一九一七년 十월 二十五일에 해군과 붉은 적위대들은 이 두 줄의 시를 노래하며 동궁을 향하여 돌격하였다。

마야꼽쓰끼는 一九一七년 二월 부르죠아 민주주의 혁명 당시에 군인으로 복무하게 되었다。 그가 복무하는 부대는 바로 뻬뜨로그라드 시내에 있는 륙군 자동차 학교이었다。 짜리즘을 반대한 폭동이 일어났을 때에 학교의 반동적 지도층은 자기의 진지를 버리고 도주하였다。 그러나 마야꼽쓰끼는 직접 자기가 륙군 자동차 학교를 지휘하면서 혁명의 편에서 열성적으로 싸워왔다。 그 후 그는 이 사변에 대하여 「혁명」이란 자기 시에 조국의 운명을 자기의 손으로 결정하기 위하여 손에 무기를 잡고 일어난 인민들을 축하하였다。

로씨야에 쏘베트 사회주의 공화국이 수립된 三주일 후、즉 一九一七년 十一월 三十일에 뻬뜨로그라드에서 예술의 각 분야의 활동가들의 대표자 회의가 소집되었다。 이 회의에서 교육 인민 위원회 위원장 루나차르쓰끼는 예술의 각종 대표자들이 인민 교육 위원회와 협동적으로 사업하며 쏘베트 주권을 지지할 것을 호소하였다。 그러나 이 회의에 모인 반동적 예술가들은 쏘베트 정부의 정책을 반대하여 로골적으로 나섰고 루나차르쓰끼의 호소를 거부하였다。 그러나 마야꼽쓰끼는 쏘베트 주권과 자기의 련대를 성명하면서 다른자들을 쏘베트 주권과 협력할 것을 호소하였다。「새 주권을 축하하여야 하며 그와 련결을 취하여야 한다」(마야꼽쓰끼)。

그러므로 뻬뜨로그라드의 혁명적 대중은 마야꼽쓰끼를 시인으로서만 확증한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적 혁명의 열렬한 옹변가로 알고 있었다。

마야꼽쓰끼는 자기의 자서전에 十월 혁명에 대한 자

괴의 해호는 다음과 같이 하였다。「十월、접수할 것인가 없는 것인가? 나에게는 이러한 문제조차 없었다。나의 혁명이다。 스몰리로 갔다。 일하였다。 닥치는 대로 모든 것을」

실로 마야꼽쓰끼는 프로레타리아트 혁명의 승리 후 거대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는 예술인들을 한데 뭉치는 사업에 있어서 적극적 역할을 하였다。 그의 조직적 활동에 의하여 「사회주의적 예술 총동맹」 출판사、「청년 예술인들의 예술」 출판사 등이 조직되었고 또 그는 「꼼무나의 예술」이란 신문을 직접 편집하였으며 정상적으로 로동자 군인 해군들의 앞에서 자기의 시를 낭송하였다。

마야꼽쓰끼는 위대한 사회주의적 十월 혁명 一주년을 [illegible] 기념할 목적으로 희곡 「미쓰쩨르 부프」를 창작하였다。 그는 이 희곡에 대하여 한 해 반 동안 노력하였다。 이는 쏘베트 극장에서 처음으로 상연된 로씨야 희곡이었다。 이 희곡은 우리 시대를 영웅적 서사시적 및 풍자적으로 묘사하였다。

비록 이 희곡이 환상적 형식으로 창작되었으나 자기의 내용에는 생활의 사실주의적 현실、즉 자기의 해방을 위한 쏘베트 국가의 근로자들의 투쟁이 반영되었다。 악전 고투로 승리한 후 일부의 얼띤자들은

「우리는 배가 고프다。 우리는 많이 진하였다고

그들은 말하였다。

배가 고픈가? 많이 [illegible]는가?

강철이 패전할 줄 아는가고

고용 농민은 [illegible]다。

——우리는 강철이 아니다 라고

락심한 자들 중에서 한 자가 그에게 대답하였다。

강철이 되어야 한다고

악장은 대답하였다」

희곡은 쏘베트 국가의 영예로운 승리와 로력에 대한 승리적 찬송으로써 끝을 맺는다。

「영광이 있으라!

빛나라

우리의 태양

꼼무나여!」

마야꼽쓰끼는 혁명을 묘사함에 있어서 밋세르 형상에 영웅성과 감격을 불어넣었고 부폰드의 형상을 리용하여 혁명으로 전복된 원쑤들을 폭로하며 풍자하였다。 구경기 때문에 후나쪽으로 쏘끼는 이 희곡에 대하여 「이 희곡의 내용은 현대의 제반 과대한 체험으로 되었다」라고 하였다。

이 희곡을 상연한 후 마야꼽쓰끼는 로동자 병사들의 수 많은 초대를 받게 되었다。 그는 로동자 병사들의 모임에서 자기의 혁명적 서둘을 랑송하여 쏘베트 주권을 위한 투쟁으로 그들을 호소하였다。

위대한 사회주의 十월 혁명은 마야꼽쓰끼에게 거대한 전망의 대로를 열어 주었다。 마야꼽쓰끼는 위대한 十월 혁명으로、거리의 혁명적 시인으로、인민의 시인으로 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마야꼽쓰끼는 十월 혁명 전까지、또 그 후에도 존재하려고 시도하던 소위 지배 계급의 예술을 반대하여 새 사회주의적 예술 문학 창조를 위한 투쟁에서 고리끼를 절대적으로 지지하였다。

밋세르 부프와 동시에 창작한 「왼발에 맞추며 행진하라」는 시에는 十월 혁명 직후 외국 침략가들과 그들의 간첩들을 반대한 쏘베트 인민들의 영웅적 투쟁이 잘 표현되었다。

「매수당한 도당이 포위할지라도

강철은 용솟음쳐 흐른다。

로씨야는 안딴트의 기반에 들지 않을 것이다。

왼발에 맞추라

왼발에 맞추며

왼발에 맞추라」

이와 같이 무기를 잡은 혁명적 인민들은 어느때든지 자기의 조국을 외국 침략가들의 식민지로 만들지 않을 것이다。 이미 마야꼽쓰끼의 창작에 있어서 一九一七년 사회주의 혁명 전에도 자본주의를 반대한 혁명적 뽀에마들을 창작하였다。 특히 그 중에서 一九一六년——一七년 간에 걸쳐 창작한 「사람」이란 뽀에마에는 인간에 대한 마야꼽쓰끼의 혁명적 휴마니즘이 적라라하게 표현되었다。

마야꼽쓰끼는 이 뽀에마에서 사람을 「태양의 대변자」로 노래하였다。 사람은 창조자이며 또 그는 「훌륭한 탕춘」을 소유한 자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구 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위력있는 위대한 기적들을 창조한다。 또 인간의 존재는 금융가들의 소굴의 위력으로 된다는 내용을 표현하였다。 사실 인간은 자본주의 제도를 타도하고 자본과 기생에 기초하지 않는 새로운 인간다운 사회주의적 사회를 벌써 지구의 六분지 一에서 창조한지가 오래다。

그러므로 十월 혁명 전 마야꼽쓰끼의 뽀에마 「바지 가랭이 속에 든 구름」「사람」 등의 기본 사상은 자본주의적 조건 하에서의 인간의 비참한 운명을 인식함으로써 그러한 사회들을 타도할 폭동으로 인간을 호소하였다。

자본주의는 인간의 행복의 탈취자이다。 그러므로 마야꼽쓰끼는 부르죠아 사회의 제반 제도를 반대하는 열렬한 혁명적 항의를 높이 외쳤다。 얼마 후 「바지 가랭이 속에 든 구름」이란 뽀에마의 서문에 마야꼽쓰끼는 다

움과 같이 썼다。「당신의 사랑을 타도하라。당신의 예술을 타도하라。당신의 제도를 타도하라。당신의 종교를 타도하라」

시인은 가난한 자들과 굶주린자들을 폭동에로 호소하였다。

「놓고 있는 손들을 바지 주머니에서 끄집어 내라
— 돌맹이 칼이나 폭탄을 쥐어라
또 만일 손이 없는 자거든
끌받기로라도 싸우려 나오너라!」
(「바지 가랭이 속에 든 구름」)

마야꼽쓰끼는 一九一八년 봄에 로동자들에게 보낸 공개 서한에「파괴된 도시들이 새로운 건축가들을 기다린다」고 썼다。마야꼽쓰끼는 시인으로、예술가로 혁명이 내세운 고귀한 과업을 실천하려고 노력하였다。그리하여 一九一八년 가을에 교육 문화 인민 위원회에서 조직한 조각 예술부 꼴레기야에 참가하였다。이 꼴레기야는 혁명적이며 또 쏘베트 주권과 가깝게 서고 있는 예술의 활동가들을 단결시켰다。그는 새로운 혁명적 예술의 수립을 위한 투쟁을 자기의 과업으로 내세웠다。그뿐만 아니라 과거 생활의 제도를 보존하며 예술의 「초 계급성」을 지지하려는 낡은 예술의 수호자들의 기도를 반대하며 혁명과 협동할 것을 자기의 과업으로 내세웠다。

마야꼽쓰끼는 이 반동파와의 투쟁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가하였다。그는 꼴레기야의 매 회의마다 참가하여 혁명적 예술의 원칙을 선전 지지하며 새 사회주의적 제도의 공고를 위하여 예술가 작가 시인들이 자기의 재능으로써 봉사할 것을 주장하였다。

一九一八년 十二월 二十四일에 예술 궁전에서 「사원이냐 궁전이냐」라는 제목을 가진 토론 대회가 있었다。이 토론 대회에서 마야꼽쓰끼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우리에게는 쓸데없는 작품들이 매장되어있는 그런 예술의 사원(寺院)이 요구되지 않는다。도리어 인간 정신의 생생한 공장이 요구된다。예술은 반드시 매장소인 사원—박물관에 집중될 것이 아니라 어데를 물론하고 즉 거리、전차、공장、제조소 및 로동자들의 주택에 집중되어야 한다」(「예술과 꼼무나」지 一九一八년 十二월 七일 一호)

마야꼽쓰끼는 새 예술、사회주의적 예술을 위한 투쟁을 자기의 과업으로 인식하였다。그러므로 그는 우선적으로 전 인민적 예술을 창건하려고 상상하였다。그리하여 一九一七년 三월에「후트리쯔트 신문」에 마야꼽쓰끼의 서명으로「예술의 민주주의화에 대한 법령」제一호에「모든 예술은 모든 인민에게」라고 발표되었다。

一九一八년 十二월 二十二일에 페트로그라드 로동 궁전에서「프로레타리아트와 예술」이란 제목으로 예술에 대한 제二차 토론 대회가 소집되었었다。

마야꼽쓰끼는 이 토론 대회에서 반동 예술가、즉 그들은「예술의 초 계급성」「예술의 과업은 감정의 미를 환기하는 것이다」「예술가는 반드시 휴식을 위한 물체를 창조할 것이다」「예술은 향락의 공원이다」라고 떠들어대는 반동적 리론들을 반대하여 다음과 같이 성명하였다。

「프로레타리아트 예술의 창건에 대한 보고자의 호소를 우리는 축하한다。……혁명은 전체 노씨야를 두개의 진영으로 나누어 놓으면서 좌익 예술과 우익 예술간의 경계를 세워 놓았다。좌익、즉 우리는 새 예술의 발견자이다。우익、즉 그들은 예술을 각종 획득의 방법으로 보고 있다。로동자들은 이것을 훌륭히 인식하며 우리의 출연을 기쁘게 맞이한다。초 계급적 예술은 없다。프로레타리아트만이 새 것을 창조한다」(「꼼무나의 예술」지 一九一八년 十二월 二十九일 제四호)

「나무잎에 몸을 감춘 신비주의자들
이마에는 주름살이 잡히고
운률이라는 거미줄에 얽힌
미래파주의자들
상징주의자들 아크메이스트들이여
나는 당신들에게 말한다。
사사(些事)를 내버리고서
로쯔따(따쯔통신사의 전신)에서 일하는 내가
천재적인가 혹은 그렇지 않는가를
나는 당신들에게 말한다。
총대로 당신들을 쫓아내기 전에
부패한 것들을 빨리 버리시오!」
(「예술 군대 제二호 명령」一九二一년)

마야꼽쓰끼는 또「왼발에 맞추며 행진하라」는 시에 혁명을 일으켜 해방된 인간을 열렬한 환호로 축복하는 감정을 혁명의 찬미로 표현하였다。그뿐만 아니라 혁명으로부터 오른쪽으로 기울어지는 그들을 경고하였다。

「가슴을 앞으로 내밀어라!
깃발로 하늘을 덮어라!
거기에서 누가 오른발로 행진하는가
왼발에 맞추라
왼발에 맞추라
왼발에 맞추라」

마야꼽쓰끼는 순수 예술을 부르짖는 반동적 보수주

의적 예술가들을 반대하여 그와 같은 치명적 타격을 주었다。그러나 이 반동적 예술 진영에 속한 자들은 마야꼽쓰끼가 전적으로 과거의 예술을 부정한다고 비난하면서 그를 미개한 자라고 외치었다。

마야꼽쓰끼는 어느 때든지 고전 작가들을 반대하지 않았고 또 반대할 것을 호소하지도 않았다。 얼마 후 시인 자신은 결정적으로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반동 작가들이 떠들어대는 「그러한 몽때 무지한 일을 나는 어느 때든지 하지 않았다」。 물론 마야꼽쓰끼는 뿌쉬낀을 고상히 평가하였으며 그의 작품을 애독하였다。 그러나 반동 예술가들은 마야꼽쓰끼의 초기의 뽀에시야에서 「왜 뿌쉬낀을 돌격하지 않았는가?」란 구절을 끄집어 가지고 그를 중상하려고 하였다。

마야꼽쓰끼는 소위 고전 작가들의 앞에서 맹목적으로 그들을 모방하고 있는 노예적 작가들을 반대하여 그렇게 외치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생생한 그러한 창조를 항상 외치었고 고전 작가들의 고상한 애국적 전통을 열렬히 찬양하였다。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
그러나 생생한 것을
송장이 아닌 것을……」

실로 마야꼽쓰끼는 진정한 인민의 고전 작가들을 반대하여 투쟁하지 않았다。 고전 작가의 배후에 숨기어 혁명적 현실로부터 물러가는 자들과 고상한 고선 예술의 옹호를 외치면서 혁명의 청소한 예술을 반대하여 나서는 자들을 반대하여 싸웠다。

「서정시는
우리들에 의하여
총검으로
공격 당한게 한 두번이 아니다。
정확하고도
뚜렷한
말을 찾아 보자
그러나 뽀에지는 ——
아주 망칙스런 작란인데
엄연히 존재해
발로 잇발은 차지도 못하는데」
(「기념적인 것」一九二四년)

사회주의적 예술 창전에 대한 마야꼽쓰끼의 혁명적 사상성은 특히 오늘에 있어서 미 제국주의자들이 부르짖는 예술의 비계급성과 그들의 퇴폐한 예술과 또 예술계에서 예술 작품들의 「예술성을 위하여」란 간판 아래에서 예술 작품들의 애국주의와 프로레타리아트의 계급성을 마비시키며 예술의 비사상성을 주장하는 꼬쓰

모뽈리트를 반대하는 투쟁에서의 새로운 혁명적 의의를 가지고 있다。

一九一八년 十二월 二十九일에 나쌀리 회관에서 예술에 대한 토론 대회가 또 있었다。

이 토론 대회는 인민 경제 위원회 문화 선전부의 일군들이 조직하였다。 그런데 붉은 군대를 위한 재정을 모집하기 위하여 이 토론 대회는 입장권을 팔게 되었다。 토론 대회의 개최를 널리 광고하면서 그에 예술의 저명한 활동가들이 참가한다는 것을 약속하였다。 그러나 토론 대회가 개최될 시간이 다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술의 저명한 활동가들은 회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하여 입장권을 사고 들어온 청강자들은 예술의 저명한 활동가들을 회장에서 찾으면서 입장 료금을 도로 내 줄 것을 강요하였다。 그러므로 토론 대회를 조직한 자들은 어떻게 할 바를 전혀 알지 못하였다。 마야꼽쓰끼는 그들을 그러한 난관에서 구제하여 내었다。

시인 마야꼽쓰끼는 연단에 나타나면서 입장 료금을 도로 내달라는자들에게 자기의 자리에 진정하여 달라고 하면서 낡은 예술의 저명한 활동가들이 없다는 것이 입장 료금을 도로 내달라는 조건으로 되지 않으며 예술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말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른 한편으로 입창 료금에 소모된 금액은 붉은 군인들에게 주는 선물이며 세계의 위업에 대한 애국적 표현으로 된다는 내용의 연설을 하자 참가하였던 청중은 열렬한 박수로 마야꼽쓰끼를 환영하면서 그를 토론회의 의장으로 선거하였다。

그렇다고 하여 마야꼽쓰끼가 리론적 토론 대회에만 참가하여 론의를 전개하였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는 혁명적 대중과 혁명을 위한 사업에서 새 예술에 대한 진정한 수단을 찾았다。

一九一九년 八월——九월 二개월 간에 마야꼽쓰끼는 「쏘베트 천자」를 써내였다。 이는 쏘베트 인민의 원쑤를 반대한 또 생활의 여러 가지 사변들에 대한 반향을 시로써 그림으로써 표현한 그리 크지 않은 책이다。 그 중에 많은 시는 공민 전쟁에 대한 것이였다。

마야꼽쓰끼는 이 책을 자기의 손으로 언해하여 전선으로 나아가는 붉은 군인들과 학생들에게 친히 나누어 주었다。

「쏘베트 천자」는 로쓰따에서 사업한 마야꼽쓰끼의 여러 창작의 총화로 되였다。 로쓰따에서 二十八개월간 사업하는 동안에 (一九一九년 十월——一九二〇년 二월 마까지) 마야꼽쓰끼는 二、〇〇三개의 포스타와 一、〇〇六개의 직관물을 만들어 내었다。 시인이며 예술가의 거대한 사업의 주제는 알추 여러 가지였다。 그것은 생활이 변천됨과 함께 「오크노」의 주제도 변하였다。

一九一九년——二〇년대의 기본 주제로는 쏘베트 국가의 근로자들의 투쟁、즉 외래 침략자들을 반대하는 공민 전쟁 전선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마야꼽쓰끼가 만든

매개 오크노에는 원쑤에 대한 증오감, 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반영되였고 조국의 방어에 모든 력량을 바칠 것을 근로자들에게 호소하였다.

「동무들!
모두다 방어로
승리자가 되기 위하여
맥진함이 없이 싸워라
맥진함이 없이 공장아 연기를 토하라」
(「오크노 로쓰따」一九二〇년 ·四六호)

「땅과 집을 옹호하려는 자거든
높이 소리치어라
전선으로 나가자고」
(「오크노 로쓰따」一九二〇년 二三三호)

마야꼽쓰끼는「오크노 로쓰따」에 필요한 자료들을 항상 볼쉐위끼 당과 쏘베트 정부의 결정에서 취급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혁명의 위대한 수령인 레닌과 쓰딸린의 연설에 대하여도 항상 연구하며 새로운 창작의 힘을 받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마야꼽쓰끼가「오크노 로쓰따」를 통하여 발표된 각종 포스타와 시들에는 볼쉐위끼적 당성이 철두철미하게 표현되었다.

공민 전쟁 당시에 있어서「오크노 로쓰따」에서의 사업으로 마야꼽쓰끼의 창작적 활동이 국한되지 않는다.

마야꼽쓰끼는 시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로쓰따에서 밤낮으로 일하면서도 다른 여러가지의 중요한 일들을 하여 놓았다. 一九二〇년 三월에 마야꼽쓰끼는 세개의 선동적인 희곡과 영화 찌나리오「전선으로」를 써내였다. 이 찌나리오에 의하여 영화를 촬영하여 각 전선으로 보내였다.

이 해에 마야꼽쓰끼는「一五〇밀리온」이라는 큰 뽀에마를 창작하여 놓았다. 시인은 이 뽀에마에 외국 무장 간섭자들의 집결된 력량을 반대한 쏘베트 인민의 영웅적 투쟁을 반영하였다.

「一五〇밀리온」뽀에마는 十월 혁명 후 마야꼽쓰끼의 창작에 있어서 거대한 작품이다. 이 뽀에마에서「노예」가 량반을 반대하는 무장적 폭동에 대한 호소와 공민 전쟁의 요란한 폭격이 이 뽀에마의 주제로 되었다.

마야꼽쓰끼의 혁명전 뽀에마에 있어서 자본주의가 사람에게서 행복을 탈취하였다고 마야꼽쓰끼는 말하였다. 「一五〇밀리온」이라는 뽀에마의 중심 주제는 천대받던 사람들과 자본주의 세계를 반대하여 사람들이 행복을 쟁취하는 것이다.

전체 뽀에마는 거대한 과장법으로 창작되었다. 자본주의 세계를 반대하여 일어난 거센 파도는 다만「一五〇밀리온」이완 뿐만 아니라 지구상의 전 동식물들로 일어났다고 마야꼽쓰끼는 과장하였다. 시인은 혁명적

로씨야의 상징으로「一五〇밀리온」이완을 내세웠다. 자본주의 사회의 상징으로는 미국 대통령 부드로·윌쏜을 내세웠다.

「一五〇 밀리온」뽀에마는 블리나 형식으로 창작되었다.

이완과 윌쏜의 두 형상은 작가의 무의미한 환상적 작란이 아니라 이 두 형상은 규정된 현실이다. 즉 두 사상과 두 체계, 다시 말하면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투쟁을 반영한 것이다.

뽀에마「一五〇밀리온」은 인민적이며, 민족적이며, 로씨야적이다. 동시에 첫 끝으로부터 마지막 끝까지 진정한 국제주의로 관통되었다. 그것은 인민의 리익이 전세계 근로자들의 리익과 유동과 탈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완의 형상에서 현대의 인민들은 각각 자기의 민족적 영웅들을 보고 있다. 그들은 부자 침략자 및 강탈자의 불공평과의 싸움에서 전설적 위업을 발휘한 그러한 자기들의 영웅들을 회상한다. 마야꼽쓰끼의 영웅은 다만 자기의 로씨야 하나만을 위하여 윌쏜을 반대하여 나아가지 않았다. 비겁한 리기주의자들은「로씨야가 망하였다! 불상한 로씨야를 과멸시켰다」고 외치였다.

이완과 함께 세계 행군으로 나아가는 인민 대중은 그에 이렇게 대답하였다.

「전 우주적인 새 로씨야를 찾겠다」

이와 같이 뽀에마는 땅 위에서 살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고통과 빈궁 및 기아를 가져오는 자본주의적 노예를 반대하는 제반 증오가 혁혁히 표현되었다.

마야꼽쓰끼의 뽀에마의 거대한 가치는 이 위대한 력사적 행정의 시초가 현재의 두개의 위대한 력량이 서로 가까왔고 결부된 것을 묘사한 그것이다. 다시 말하면 인민과 공산주의의 련결이다. 뽀에마의 주인공 이완은 공산주의를 위하여 투쟁으로 나아가는 인민들을 상징한 것이다. 뽀에마는 동시에 해방된 인간의 로동을 찬미하는 찬송가로 되었다.

「우리는 땅의 건축가요
유성의 장식화가이다
우리는 기적의 창조자이다」
(「밋제르 부프」에서)

一九二一년 초에 마야꼽쓰끼는「공민 전쟁의 마지막 페지」라는 시를 발표하였다. 이 시에「거의 빈촌으로」우랑겔로부터 페레꼽을 도로 착포 크렴을 백당들로부터 해방시킨 붉은 군대의 영생 불멸의 위업을 노래하였다.

마야꼽쓰끼는 공민 전쟁 주제 외에 전쟁으로 파괴된

인민 경제의 복구와 사회주의 건설의 주제에 전적으로 봉헌하였다。

一九二一년 二월부터 「풍자의 오크노」는 중앙 문화 선전부의 지도 하에서 출판되게 되었다。 마야꼽쓰끼는 여러가자의 포스타, 즉 농기구 수리, 파종 깜바니야, 전염병과의 투쟁, 철도에서의 연료 절약 등에 대한 작품을 창작하여 투고하였다。

마야꼽쓰끼의 시와 그림들은 당과 정부의 당면 과업들을 실천함에, 근로자들을 호소함에 막대한 역할을 하였다。 그 뿐만 아니라 쏘베트 주권의 법령을 해석하였고 쏘베트 정부와 볼쉐위끼 당의 새 결정과 시책들을 대중에게 선전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오크노」의 제목들은 항상 구호, 혹은 호소문 같은 그러한 내용을 가진 것으로 표현되었다。

마야꼽쓰끼는 새 풍습과 사업 작품을 위하여 투쟁하였다。 그는 「새 풍습」(「그 후에 회의꾸래기」라고 경칭)이란 시에 새 제도에서 생기는 관료주의자들을 풍자하였다。 이 시는 一九二二년 三월 五일에 「이즈베스챠」신문에 게재되었다。 그 이튿날 — 三월 六일에 레닌은 전로씨야 제철공들의 대회의 공산주의의 푸락치야의 협의회에서 「쏘베트 공화국의 국내 정세와 국제 정세」를 보고하면서 그 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내가 이제 우연히 「이즈베스챠」신문에서 정치적 주제로 쓴 마야꼽쓰끼의 시를 읽었다。 나는 그의 시적 재능의 숭배자에 속하지 않으며 이 부문에 있어서 자기의 무자격을 완전히 자인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나는 오랫동안 정치적 행정적 견지로 보아서 이와 같은 만족을 느끼지 못하였다。

그는 회의를 소집하고 또 회의를 진행하는 공산주의자들에 대하여 자기의 시로써 조롱하였고 그런 회의를 무자비하게 비소하였다。 시에 대하여서는 알 수 없으나 이 시가 정치적으로 가장 옳다는 것을 담보한다」

마야꼽쓰끼는 사회주의 혁명과 쏘베트 조국에 유리만 하다면 어떠한 일이든지 가리지 않고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쏘베트 상업의 발전을 위하여 광고를 시로써 썼다。

물론 이런 것이 위대한 시인으로는 유치한 일인 듯싶다。 그러나 그것은 사회적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 쏘베트 제도에서는 어떠한 로력이든지 영예로운 로력으로 되기 때문이다。 또 쏘베트 국가 내에서의 一九二二년 三월 당시에는 상업에 대한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로 되었다。 「이 시기에 있어서 상업은 당 앞에 세워진 제임무의 련환 중 기본적인 환절이었다。」(「쏘련 당사」에서)

그러므로 모쓰크바 시가와 기타 쏘베트 동맹의 도시들에서 마야꼽쓰끼가 쏘베트 상업에 관하여 작성한 각종 포스타를 볼 수 있고 읽을 수 있었다。 마야꼽쓰끼

의 예리한 시와 포스타는 큰 효과를 내었다。 그는 이를 공산주의를 위하여 사회주의적 제도와 쏘베트 상업을 위하여 정치적 선전—선동의 수단으로 리용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그는 지어 과자 봉지에 쓸 시를 지었다。 실례로 「붉은 모쓰크바」란 사탕 봉지에 크레믈리 탑을 그리고 그에 두 줄의 시를 썼다。

「들어라 땅아!
크레믈리 목소리를」

그러나 마야꼽쓰끼의 적들은 그의 조국에 대한 이러한 헌신적 노력에 대하여 비소하면서 그는 앞으로 「큰 뽀에시야」를 쓸 수 없을 것이라고 떠들었다。 적들의 그러한 단언은 깨뜰어졌다。

위대한 시인 마야꼽쓰끼는 영생 불멸의 뽀에마, 사회주의 혁명의 수령인 위대한 레닌와 형상을 그린 레닌에 대한 뽀에마를 창작하였다。

마야꼽쓰끼는 뽀에마를 창작하려고 오래 전부터 준비하고 있었다。

一九二〇년 四월에 쏘베트 동맹의 사회계는 레닌의 탄생 五十주년을 기념하였다。 위대한 시인은 이 력사적 전인민의 명절에 제하여 「울라지미르·일리츠」란 시를 지었다。 그러나 이 시가 위대한 시인의 만족을 이룰 수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레닌에게 대한 뽀에마를 쓰려고 계속 레닌의 생애와 혁명적 활동을 연구하고 있었다。 그 결과에 一九二三년에 레닌에 대한 뽀에마를 구상하여 내었다。 그러나 레닌의 생존시에 그 구상을 실천하지 못하였다。

레닌은 一九二四년 一월 二十一일에 서거하시었다。 이 서거는 위대한 시인에게 심대한 자극을 주었다。 시인은 전인류와 함께 전인류의 손실을 받았고 참을 수 없는 비애를 느꼈다。

마야꼽쓰끼는 레닌의 서거에 대한 자기의 비애를 시로 표현하였다。

레닌의 서거 얼마 후 「청년 근위대」잡지 二—三(二—三월호) 호와 「청년 쁘라우다」 三월 三十一일부에 레닌의 서거를 주제로 한 마야꼽쓰끼의 시들이 발표되었다。 물론 위대한 시인은 레닌의 서거에 대하여서만 아니라 공산주의를 위한 위대한 투쟁 속에서 계속 레닌이 살고 있다는데 대하여 말하였다。

그 후 즉시로 레닌에 대한 뽀에마 창작에 착수하였다。

마야꼽쓰끼는 레닌을 직접 한번밖에 만나지 못하였다。 그 때는 바로 十월 혁명 당시였고 쓰몰니에서 처음 만났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레닌을 깊이 알기 위하여 그의 저작들을 읽고 또 읽었으며 그를 친히 아는 사람들과 많은 담화를 하였으며 그에 대한 회상문들을 수다히 읽었다。 이러한 긴장된 노력의 결과에 一九二四년 十월에 레닌에 대한 큰 뽀에마는 완성되었다。

시인 마야꼽쓰끼는 이 뽀에마를 「울라지미르·일리

츠·레닌」이라고 명칭하였다。

마야꼽쓰끼는 뽀에마에 레닌의 생활이 자기의 해방을 위한 로동 계급의 위대한 투쟁과 혈연적 련결을 가졌다는 것을 보이는 동시에 레닌을 수령으로서만 아니라 인간으로서도 묘사하였다。

시인은 레닌의 탄생일을 세계 력사에서의 새 계단을 획기하는 날이라고 칭하였다。

「공산주의는
환상으로
유로빠에서 횡행했다
사라졌다가
또다시
먼곳에서 등대처럼 빤득였다
전세계에
궁벽한 심빌쓰크에
탄생하였다
보통적인 어린애가
레닌이」

또 시인은 수령과 당, 당과 인민의 「공고한 통일에 대한 사상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계급의 뇌수
계급의 사업
계급의 력량
계급의 영예
바로 이것이 당이다
당과 레닌은
쌍둥이—형제
누가 더
어머니—력사에게 귀중한가?
우리는 말한다
레닌이라고
그러면 그것은
당을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는 말한다
—당이라고
그러면 그것은
레닌을 의미하는 것이다」

레닌에게 대한 마야꼽쓰끼의 뽀에마는 사회주의적 집단의 위력과 혁명적 련결에 대한 위대하고도 위대한 뽀에마로도 되였다。

「당은
수백만 손들이

하나로
틀어쥔
튼튼한 주먹이다。」

마야꼽쓰끼는 이 뽀에마를 완성하고 처음으로 레닌과 쓰딸린의 전우의 한사람인 왈레리안·꾸이비세브에게 읽혔다。왈레리안·꾸이비세브는 이 뽀에마를 대단히 찬양하였다。

그후 마야꼽쓰끼는 레닌 서거 六주년 추모 기념 회장에서 이 뽀에마를 볼쉐위끼 공산당 정치 위원들과 쏘베트 인민의 선진 인사들 앞에서 읽었다。특히 마야꼽쓰끼는 혁명의 수령, 당의 수령 레닌에게 대한 커다란 자기의 뽀에마를 쓰딸린의 앞에서 직접 읽은 것을 대단히 기뻐하였다。

인민의 수령 쓰딸린과 그의 전우들과 대중은 레닌에 대한 뽀에마의 낭송이 끝난 후 모쓰크바의 대극장을 무너뜨릴듯한 요란한 박수를 위대한 시인 마야꼽쓰끼에게 보내주었다。

위대한 시인은 달성한 성과에 자만 자족하지 않았으며 창작 사업을 멈추지 않았다。그는 새 사회와 함께, 당과 함께 전진하였다。그리하여 一九二七년 즉 사회주의 十월 혁명 十주년을 계기로 하여 「좋다」라는 일대 뽀에마를 창작하였다。이 뽀에마는 이미 마야꼽쓰끼가 자기의 뽀에마 「一五○」밀리온」에 전개한 사회주의적 十월 혁명이 주제이였다。

마야꼽쓰끼는 앞으로 이 주제를 뽀에마 「좋다」에 더욱 광범하게 발전시켰다。그렇기 때문에 이 뽀에마에는 위대한 사회주의 혁명의 력사가 두드러지게 반영되였다。이 뽀에마에는 혁명의 앙양기에 동궁을 돌격하는 혁명적 군인들의 위업들이 반영되였다。특히 이 뽀에마에 볼쉐위끼 당과 그의 수령 레닌—쓰딸린의 령도가 깊은 감명으로 반영되였다。그뿐만 아니라 이 뽀에마에 위대한 시인은 쏘베트 주권이 자본주의 세력의 시대로부터 사회주의 시대로 전환하는 것을 예술적으로 묘사하였고 새 사회주의적 사회의 확립을 위한 쏘베트 인민의 헌신적 영웅적 투쟁을 묘사하였다。

위대한 시인 마야꼽쓰끼는 뽀에마 「좋다」에 사회주의적 十월 혁명의 승리는 사회주의적 조국의 탄생이라고 노래하였다。

마야꼽쓰끼가 전개한 사회주의적 조국에 대한 주제는 오늘의 쏘베트 문학의 주제를 더한층 풍부하게 만들어 주었으며 그의 기본 주제로 되고 있다。

마야꼽쓰끼는 이 뽀에마에서 조국을 배반하는 부르죠아 민족주의의 패기주의를 무자비하게 폭로하였다。

조국에 대한 주제는 뽀에마의 전폭을 통하여 전개되였다。그는 뽀에마를 행복과 창조와 청소한 나라의 영예의 승리로써 끝을 맺었다。

「생활이 좋으면
살기도 좋을 것이다。
……………
생활은 아름답고
신기하다。
우리는 로쇠함을 모르며
백년을 자라라
우리의 청춘은
해마다 해마다
자라라
청춘의 땅을
노래하여라
망치여
시여」

마야꼽쓰끼는 이 뽀에마를 모쓰크바시 十월 혁명 十주년 기념 회장에서 랑송한 후 十一월—十二월 간에 쏘베트 동맹의 여러 도시들, 즉 레닌그라드, 하리꼬브, 로쓰또브나돈, 따간로그, 노보첼까쓰크, 알르마비르, 바꾸, 트브리쓰 등 도시들에서 모두 설흔한번 랑송하였다。

마야꼽쓰끼는 一九二八년—二九년의 쓰딸린적 제一차 五개년 계획을 위한 쏘베트 인민의 로력적 영웅성을 반영한 시들을 썼다。 그 중에서 「공격 부리가다의 행진곡」「수확의 행진곡」 등은 오늘에 있어서 계속 새로운 사상—예술적 감흥을 주고 있다。

마야꼽쓰끼는 쏘베트 인민의 위대한 애국자로서 자본주의 국가들을 려행하였다。 그 결과에 一九二九년에 「쏘베트 공민증」이란 시에 쏘베트 조국의 위대성과 그의 애국주의를 전세계에 다음과 같이 외치였다。

「……………
자 읽으라
부러워하라
나는
쏘베트 동맹의
공민이다。」

조국과 그의 위력, 쏘베트 애국자들의 용감성과 영웅성에 대한 주제들은 마야꼽쓰끼의 외국에 대한 많은 시들과 수필에도 잘 반영되였다。 마야꼽쓰끼는 세계에서 첫 사회주의 국가의 시인으로 외국을 려행하면서 자기의 책임을 예리하게 감각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에 대한 시들은 애국주의의 고상한 감정과 쏘베트의 민족적 자랑, 사상성 및 당성으로 일관되였다。 이러한 시들에는 자본주의 국가들에서 그의 사회적 모순과 생활상 특수성과 지리상 조건으로 생기는 여러 가지의 현상과 정치적 사변들이 반영되였다。

위대한 시인 마야꼽쓰끼는 외국으로 전체 아홉번을 려행하였다。 그 중에서 유로빠 려행이 여덟번이고 미국 려행은 한번이였다。

시인은 미국의 화려한 대건물들을 보고 이것은 「도시의 一천만 로력의 위대한 군대」의 손으로 창건되였으나 그것은 백만 장자의 소유로 되였다고 썼다。

마야꼽쓰끼는 외국에 체류하는 기간에 사회적 및 민족적 불평등에 기초한 자본주의적 사회의 착취의 내용을 걸음마다 폭로하였다。 그는 외국에 대한 자기 시들에 부르죠아 민주주의의 반인민적 내용 「부르죠아의 자유」의 허위적 성격, 부르죠아 문화와 도덕의 부패성을 폭로하였다。

마야꼽쓰끼는 미국 출판물에 대하여 「신문들은 트래쓰트들에 의하여 만들어졌다」고 썼다。

또 미국에 있어서 사람의 역할을 그의 로력과 재능에 의하여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딸라에 의하여 규정하는 자본주의의 반인도주의적 성격을 폭로하였다。

그 뿐만 아니라 미국에 있어 민족적 차별과 종족적 학대에 대하여 위대한 휴마니쓰트는 「백과 흑」이란 시로써 미국의 월가들의 「신성한 우월족」의 팟쇼적 반인민적 성격을 폭로하였다。

「주위에는 싫기한 식물이
자라고 꽃피고 있는데
빠나나들이 지붕 모양 엉크러졌는데
흑인은 코에서 흐르는 피를
흰 적삼에 씻는다
한손으론 낮음 붙잡고
다른 손으론 떨어진 빗자루를 잡는다
어찌 흑인이 알았으랴!
이런 질문을 가지고는
모쓰크바에 물어야 된다는 것을
어데서 그가 알았으랴!」

마야꼽쓰끼는 미국에 있어서 기술의 발달과 동시에 사회 구조의 락후성을 보고 다음과 같이 썼다。

「나는 나아갔다
七천리나 앞으로
그러나
七년이나 뒤로
돌아왔다」

그뿐만 아니라 위대한 시인은 미국에서의 기술 발달은 근로 인민들을 빈궁화하며 자살로 유도한다고 자기의 시에 반영하였다。 전기와 라디오의 시대에 미국에서 「무직업자들은 허드슨 강에 머리를 숙이고 떨어졌다」(마야꼽쓰끼) 그러나 쏘베트 동맹에서의 기술 발전

과 공업화는 근로 인민들의 생활을 향상하며 사회주의 건설을 방조하고 있다는 것을 시인은 다음과 같이 노래하였다.

「우리들은—
전레에 없는 상승과
에넬기와
광명의
에디쏜이다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이것을
무엇으로도 감출 수 없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쏘베트 국가
쏘베트의 의지
쏘베트의 깃발
쏘베트의 태양이다.」

그렇기 때문에 쏘베트의 위대한 시인은 미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미소적 결론을 하였다.

「내가 미국을 닫아버리고
슨쩍 청결한 다음에
다시금
재차 열어놓으리라」

시인은 「미국 사람들이 경탄한다」란 시에 쏘베트 사람들의 고결한 애국적 절개를 다음과 같이 노래하였다.

「미국식 척도로서는
어림도 없다
그들을
딸라로도
은금 보배로도
유혹시키지 못한다.」

一九三〇년 二월 一일에 쏘베트 사회계는 마야꼽쓰끼의 창작 二十주년에 제하여 전람회를 개최하였다. 그는 이 전람회에서 五개년 계획을 주제로 한 「외치노라」는 창작의 마지막 뽀에마를 랑송하였다.

이 뽀에마는 새로운 형식으로 창작되었으며 二천년 전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기념비」의 시형식을 전혀 혁신하여 놓았고 자기의 창작 총화를 대중 앞에서 총결한 시로 되었다. 사회주의 시인은 형식으로만 아니라 전통적 자느르의 내용까지도 혁신하였다. 그러므로 시인은 자기의 자신을 「혁명에 종모되고 호소된

인분부 급수부」라고 명칭하였다.

마야꼽쓰끼는 「외치노라」의 시에 뿌쉬낀의 주제를 더 앞으로 발전시켰다. 예술은 다만 예술로써만 국한되고 있을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하고 유일한 고상한 목적인 행복과 자유의 인류 사회의 창건에 복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나의 동무 생활이여
빨리 나아가자
五개년 계획으로써
남은 날을 보내자
……………………
빛나는 앞날로 가는
중앙 검열 위원회에 가서
나는 높이 들리라
패권의 당적인 책들을
시가의 불량자와 사기자들 머리 위에
볼쉐위끼 당증 같이
나는 높이 들려라!」

이와 같이 마야꼽쓰끼는 자기의 시로써 쓰딸린적 五개년 계획의 승리를 위하여 투쟁하였으며 그는 자기의 뽀에시야의 내용을 어느 때는지 당의 로선과 결부시켰다.

볼쉐위끼 공산당은 레닌—쓰딸린의 지도 밑에서 쏘베트 인민을 쓰딸린적 五개년 계획으로 즉 공산주의 사회를 창건하는 계획으로 동원시켰다. 쏘베트 인민은 쓰딸린적 五개년 계획을 위하여, 공산주의 사회의 창건을 위하여 용감하게 래일을 향하여 앞으로 나아간다. 래일의 사회는 공산주의 사회가 될 것이다. 그것은 오늘의 인민의 모든 길이 공산주의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래일로
앞으로
다름질쳐야 할 것이다
바지에서
걸음마다
휘파람 소리 나도록!」
(「베를렌과 새산」)

비록 우리가 위대한 시인 마야꼽쓰끼의 서거 二十주년을 추모하지만 그는 영원히 우리의 대중 속에 남아 있으며 또 영원히 남아 있을 것이다.

날이 가고 세월이 갈수록 마야꼽쓰끼의 뽀에시야는 새로운 풍부한 내용을 가지고 새로운 사변들을 우리에게 예견하여 준다. 그가 말한 바와 같이 「훌륭한 책일수록 앞을 더 내다 본다」

마야꼽쓰끼는 두 세계, 두 체계, 민주와 반동 간의 투쟁에서, 지구의 六분지 一에서 자본주의 제도를 전복한 위대한 군대의 자각적 전사로 나서고 있다. 그는 이 투쟁에서 자기의 모든 재능을 다바치었다. 그는 원쑤와의 싸움에서 무자비하였고 우리에게 원쑤의 싸움에서 일분 일초의 안일을 가지고 있지 말 것을 경고하였다.

「동무들
　기억하라
　우리들 사이에
　　계급적 원쑤가 숨어 있는 것을」

이와 같은 예견은 오늘 우리의 투사들에게 혁명적 각성과 계급적 각성을 가일층 높이어 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마야꼽쓰끼는 단지 쏘베트 인민의 위대한 시인으로 될 뿐만 아니라 전인류의 훌륭하고 가장 천재적인 시인으로 되었다.

새 사회를 위하여 민주와 사회주의를 위하여 싸우는 투사들은 마야꼽쓰끼를 공장에서, 제조소에서, 가두에서, 광장에서, 전선에서 읽고 있으며 그의 뽀에시야를 새파란 창끝과 같이 하여 원쑤를 향하여 앞으로 나아간다. 그가 바라던 새 사회, 공산주의 사회, 인류의 행복과 자유의 사회가 닥쳐왔다. 인민은 민주와 자유를 위하여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위하여 투쟁하고 있다.

「…………
　나는
　일터로, 싸움터로 나가는
　우리의 행진을 기뻐한다.
　오늘엔 쓰레기 썩는 곳에서도
　아무 것도 없는 곳에서도
　　나는 본다——
　솟아 오르는 새로운 싹
　꼼무나의 화려한 진물이
　　싹트고 있음을!
…………」

(「좋다」에서)

참 고 자 료

五·一절은 전세계 근로자들의 전투적 위력을 시위하며 검열하는 단결된 날이다

五·一절은 로동 계급을 선두로 하는 전세계 근로 인민들의 단결된 전투적 위력을 시위 검열하며, 형제적 친선을 강화하는 국제적 명절이다。

전세계 근로 인민들은 평화와 전쟁, 민주와 반민주의 격렬한 투쟁 속에서 금년의 五·一절을 맞이한다。

시카고 선진 로동자들의, 영용한 투쟁의 모범을 따라 一八九○년 五월一일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六十一년 동안 계속되어 내려온 五·一절은 각국에 있어 각이한 환경과 조건 밑에서 그 형태는 다르나 세계 력사의 전진과 근로자들의 해방과 자유 및 생활 조건의 향상을 위한 일관된 투쟁과 단결의 날로써 전세계 근로 인민들은 해마다 성대히 기념하여 왔다。

※ ※ ※

오늘 국제 정세는 인류 력사가 운명지어준 자본주의의 어쩔 수 없는 고질로 말미암아 날로 격화되어 가는 심각한 정치, 경제 및 사회적 위기를 타개하며 나아가서는 그들의 무제한한 탐욕적 리윤의 추구를 위하여 새 전쟁 도발을 발광적으로 획책하고 있는 미국 지배층을 괴수로한 제국주의 진영과, 위대한 쏘련을 선두로 하는 전세계 민주주의와 사회주의 진영 간의 첨예화한 투쟁으로써 특징지어지고 있다。 이 투쟁은 미 영 제국주의 새 전쟁 방화자들의 흉책이 매걸음마다 파탄되며 그들의 력량이 날로 약화되어 가고 있는 반면에 민주주의와 사회주의 진영이 더욱 강화되어 가며 전세계 인민들의 강력한 평화 옹호 운동이 더욱 치렬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써 특징지어지고 있다。

만일 제국주의 전쟁 방화자들이 一、二년 전에는 새 전쟁 도발 준비, 정책에 들어섰다면 오늘에 와서는 각종 형태로 공공연히 침략 정책을 강행하고 있으며, 직접 새 전쟁의 준비 혹은 방화의 정책을 쓰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세계 평화 옹호 민주 진영의 투쟁도 만일 一、二년 전에 있어서는 국부적으로, 시기적으로, 소규모로 전개되었다면 오늘에 와서는 이미 세계 전령역에 걸쳐 조직적으로 계속 전개되고 있다。

현시기에 있어서 국제 정치 생활에서의 제 중인과 인민들의 강력한 평화 옹호 투쟁의 성격은 오직 지구 상 六분지一의 지역에 처음으로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한 위대한 쏘련의 존재와 그 력량의 불패성으로써 만이 설명될 수 있는 것이다。

쏘련은 그가 존재한 첫날부터 갖은 험난한 시련의 고난 속에서 이를 능히 극복 타승하고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과 자기 력량의 무진장의 위력을 보이고 있다。 제二차 세계 대전에 있어서 전쟁의 모든 중하를 거의 혼자서 걸머졌던 쏘련은 히틀러 독일과 군국주의 일본을 격파하여 위대한 쏘련의 영예를 고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세계 인류를 멸망의 위협과 암흑의 공포에서 구원하였다。

전후 쏘련은 침략자들로 말미암아 파괴되었던 많은 지방을 복구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늘에 와서는 인민 경제와 문화 각분야에서 전전 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계속적 발전을 보고 있다。 一九四九년도 산업 수준은 벌써 전전 수준을 四一% 초과하였는데 이것은 전후 五개년 계획 마지막 해에 예정된 초과량 四八%에 접근하는 것이며 작년 四·四분기에 있어 쏘련 산업은 五개년 계획의 마지막 해, 즉 금년도의 실행 수준을 초과하였다。

농촌 경리 방면에 있어서도 전전 총생산량의 수준을 어미 一九四九년도에 초과하여 곡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였으니, 즉 쏘련 인민들은 소요량의 곡물을 완전히 보장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필요한 저축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다。 쏘련에서의 각 부문 건설은 해마다 더욱 장성 확대되고 있는 바 특히 학자, 선진 로동자 및 기사들의 공동적 작업에 기초한 과학과 생산의 융고한 련계는 쏘련의 경제 건설의 앞으로의 보다 상려한 향상의 전망을 말하여 주는 것이다。

사회주의 사회에서의 불변의 법칙으로 되어 있는 인민들의 물질적 문화적 생활 수준은 최근 쏘련에 있어 더욱 현저히 제고되고 있다。 화폐 개혁, 배급제 철폐 및 생활 필수품 가격 인하로 인하여 一九四九년도의 로동자 사무원들의 수입은 一九四○년도에 비하여 二四%로 증가되고 있다。 농민들의 수입은 그 동안 三○% 이상 장성되었다。 전체적으로 쏘련의 인민 소득은 一九四九년도에 와서 一九四○년도 수입보다 三六%나 장성되었다。 금년 三월 一일부터 실시된 제三차 물가 인하에 의하여 로동자 사무원들의 실질적 임금은 다시금 현저히 장성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루블리의 구매력은 훨씬 더 향상되고 있으며 다른 국가 화폐 시가에 비하여 루블리 시가는 더욱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쏘련 인민들의 강력한 정치 사상적 통일과 평화 옹호를 위한 불굴의 의지는 지난 三월에 실시된 최고 쏘베트 선거에 있어서 더욱 명확히 표시되었다。

쏘련 인민들은 인류의 항구한 평화와 진보와 자유를 위하여 투쟁하는 공산당원과 비당원 블럭의 선진 투사

들을 지지하여 한결 같이 찬성 투표함으로써 자기들의 희망을 일치하게 밝히었다。

오늘 쏘련 인민들은 현대의 예지와 명예와 량심의 구현체인 볼쉐위끼 당과 위대한 쓰딸린 대원수의 령도하 인류의 갈구한 숙망이던 「먼 공산주의의 미래」를 현실화하는 영광된 투쟁의 길을 믿음성있게 전진하고 있다。

평화와 민주주의 및 사회주의 진영은 인민 민주주의 제국가들의 장성 강화로써 그 력량을 불패의 위력으로 더욱 확대시키고 있다。

중앙 및 동남 구라파의 인민 민주주의의 여러 나라들에서는 근로자들이 국가의 주인으로 자기 수중에 조국의 운명을 튼튼히 틀어쥐고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투쟁에 매진하고 있다。이 나라들은 반동들과의 치렬한 투쟁을 통하여 정치적으로 일층 공고화되었으며 위대한 쏘련의 원조에 의하여 경제 문화 건설은 급진적 속도로 발전되고 있으며 인민들의 물질 문화 생활 수준은 부단히 장성되고 있다。

지난 四월 四일 해방 五주년을 기념한 웽그리야는 一九四九년까지에 三개년 인민 경제 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고 一九五〇년부터 제一차 五개년 계획 실행을 위한 투쟁에 들어섰다。一九三八년도에 비하여 一九四九년도에는 중공업에 있어서 一七四%로 제고되었으며 농업에 있어 一、八〇〇개소의 집단 생산 협동 조합이 활동하고 있으며、四、四五〇대의 뜨락또르를 소유하고 있는 二七一개소의 농기계 뜨락또르 지정소가 설치되고 있다。

파란에서는 一九四九년까지에 三개년 계획을 二년 十개월 간에 완수하고 一九五〇년도부터 六개년 계획 실행에 돌진하고 있다。전전에 비하여 一九四九년도 총공업 생산은 금액에 있어 七五%가 증가되었으며 一개인당 농산눌은 전전 표준에 비하여 一二%증가되었다。

중앙 및 동남 구라파 인민 민주주의 제국가들은 위대한 쏘련과 공고한 친선 관계를 맺고 있으며、각국 상호 간에 정치、경제、문화의 호상 긴밀한 련계 밑에 반제국주의적 민주 진영의 위력 강화에 막대한 공헌을 이루고 있다。

중화 인민 공화국과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의 탄생은 세계 력사의 새로운 전환점으로서 세계 평화 옹호 전선과 민주 진영의 강화 및 확장에 거대한 기여를 하고 있다。특히 평등적 국가적 독립 및 민족적 자주권의 원칙들에 대한 존중에 기초한 쏘련과 중국 간의 우호 동맹 조약 및 협정의 체결에 의한 약 七억의 인민을 망라하는 위대한 쏘련 인민과 중국 인민들의 단결은 인류 공통적 목적을 위한 투쟁과 전세계 평화와 민주주의를 강화함에 있어서 실로 막대한 력사적 공헌인 것이다。동시에 제국주의 반동 진영에게 있어서는 심각한 타격으로 되며 제국주의 침략자들의 전쟁 도발 계

획을 좌절시키며 그들의 압박 밑에 있는 모든 인민들의 민족 해방 투쟁에 새로운 폐지를 열어 놓는 것이다。

반제국주의적 민주 진영의 강화는 각국 공산당 및 로동당의 장성 강화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반면에 자본주의 국가들은 닥쳐오는 경제 공황과 자기 진영 자체 내의 내부적 및 외부적 모순의 격화로 자본주의 체계의 숙명적 멸망의 길을 재촉하고 있다。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생산이 계속 축소되며 실업자의 홍수는 불가항력적으로 늘어가고 있다。자본주의 체계에 있어 가장 강대국인 미국의 一천 八백만을 필두로 지금 전세계 자본주의 각국의 실업자 반실업자 수는 四천 五백만을 릉가하고 있다。

미국의 산업 생산은 축소된 자료에 의하더라도 一九四九년 十월에는 一九四八년 十월에 비하여 一二%나 저하되였다。구라파를 경제적 및 정치적으로 완전히 예속시키며 새 전쟁 준비에 있어 중요한 부분으로서 미 제국주의자들이 고안해 낸 「현명한 정책」으로서의 「마샬안」의 「원조」를 받는 나라들에서 경제 정치적 위기는 더욱 혹심하다。

세계 도처에서 「유니온・잭크」의 위력을 자랑하던 영국은 이전의 세계적 우위로부터 미국의 예속적 지위에로 전락되였으며、레이버당이 정권을 장악한 이후 중요 식료품의 가격에 있어 빵 二六%、수육 四三%、사탕 二五%가 각각 등귀되였으며 아직도 전표제를 실시하고 있다。불란서에서 최근 二개년 간에 실업자 수가 三배로 증가되었으며 一九四五년부터 一九四七년까지에 로동자들의 실제 임금이 二분지 一로 저하된 반면에 전쟁 전에 비하여 물가가 二十배로 폭등되고 있다。미 제국주의자들이 떠드는 것과는 정반대로 「마샬안」은 그 본질에 있어서 「미 제국주의자들의 경제적 정치적 및 군사적 공간으로서 그것을 리용하여 미 제국주의자들이 서구라파 경제를 자기들의 패권과 통제 하에 복종시키는 것이며 그 경제를 미국 식민지 예속 경제로 전환시키려고 지향하고 있다」(쑤쓸로브)는 것이 더욱 명백하여졌다。「마샬안」은 실제에 있어 구라파와 미국의 자본주의적 경제에 박두하고 있는 공황을 촉진시키며 첨예화시킬 따름이다。

무장 경쟁과 관련하여 인민들의 부담은 과중하여지는 반면에 날로 장성되는 인푸레、생활 필수품의 가격 등귀、로동 임금의 계속적 저락 등등 모든 것은 필연코 이 나라들에 있어서의 내부 정치 정세를 일층 첨예화하게 하며 그 력량을 약화하게 하며 점차 더욱 이를 조장할 것은 명백하다。

제국주의자들은 사멸에 직면한 자기들의 운명의 출구를 새 전쟁 도발에서 구하며 하고 있으며、평화 옹호 인민들을 탄압하며、다른 나라 인민들을 노예화하며、미 영의 세계 제패를 강압적으로 설정하려는 기본 목표의 실현을 위하여 광분하고 있다。이것은 미 영 제

국주의자들의 무제한한 군사, 정치, 경제적 세력 확장 정책에서 여실히 표현된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새 전쟁에 요구되는 각종 원료 자원의 강탈과 세계 도처에 군사 기지의 창설을 위하여 발광하고 있다.

미국은 전 세계에 무수한 군사 기지를 설정하고 있으며 특히 태평양 지역에 이전 가지고 있던 기지 이외에 새로 二백개소의 해군 및 공군 기지를 전설하였다.

침략자들은 여러 나라에 있어서 그 내정에 간섭하며, 반동 괴뢰 정권을 수립하며, 그 나라들을 분할하며, 내란을 도발하는 정책을 상투적으로 감행하며, 인민 민주주의 국가에서 숙청당한 추악한 반동 잔당을 조종하여 민주주의와 평화를 압살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그들은 독일, 일본, 오지리에 대한 강화 조약 체결에 하등의 성의를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를 갖은 수단으로써 파탄시키는 한편 이 나라들에서 팟쇼 잔당들의 세력을 백방으로 부활시키고 있으며 군사 산업의 복구와 재무장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서부 독일에서 본 괴뢰 정부 수립, 불란서에 대한 자르의 양도 및 슐레스비히 일부 지역의 정말에의 양도와 일본에서의 모든 현실은 미 영 제국주의자들이 실시하고 있는 침략 정책의 실증적 표현의 하나인 것이다.

이러한 것은 그들이 이 나라들을 새 전쟁 준비를 위한 편명장화하며 그 인민들을 자기들의 침략 계획 실현을 위한 육탄으로 만들려는 데서 출발한 것이다.

미 영 제국주의자들은 쏘련과의 국제적 협조를 각방으로 파탄시키며 원자 무기 금지와 군비 축소 및 평화 조약 체결에 관한 쏘련의 정당한 제의를 거부하는 반면에 새 전쟁을 도발하며 무제한한 군비 확장과 각종 침략적 군사 블럭 조작에 미칠 듯이 날뛰고 있다. 一九四九—一九五○년도 미국 예산은 군사비가 전쟁 전의 二十배로서 전예산의 六八%를 차지하고 있으며 영국 군사 지출액 역시 一九三九년도에 비하여 三배로 격증되고 있다. 심지어 최근에는 미국 군용기가 쏘련의 국경을 란포하게 유린하는 단말마적 발악까지 감행하여 세계 인민들의 격분을 일으키고 있다.

소위 북대서양 동맹과 지금 조작을 백방으로 획책하고 있는 지중해, 근동, 극동 블럭들의 「비밀」과 「방위적」 성격은 이미 폭로된지 오래며 이러한 블럭들은 우선 민주와 평화의 강력한 령도적 력량인 쏘련과 인민 민주주의 제국가를 반대하며 식민지 및 예속 국가들에서의 민족 해방 투쟁을 진압하려는 목적에서 출발되었음이 공개적 사실로 되었다.

제국주의자들의 전쟁 준비는 소위 「후방 정비」를 반드시 부대적 조건으로 한다. 때문에 제국주의자들은 로동 운동과 민주주의 운동을 극도로 탄압하며 로동 계급의 분렬을 획책하며 급속한 군국화, 팟쇼화를 시도한다. 제국주의 각국에 있어서 반(反)로동, 반(反) 직업 동맹 법령과 공산당과 민주 인사들에 대한 탄압, 테로와 결사, 집회, 시위, 언론의 자유 말살과 우익 사회당원들의 조종들은 그 엄연한 실례로 된다.

침략자들의 전쟁 준비에 있어서 이데올로기적 공세는 또한 중요한 무기로 되어 있다. 그들은 각종 출판물, 라디오, 영화들과 기타 각종 수단을 총동원하여 인간 증오 사상과 전쟁 히스테리를 조장하며 허망한 날조로써 반쏘, 반공의 사회적 여론을 조작하기에 발악을 다하고 있다.

한편 음탕, 타락, 강간, 공포, 사기 등 독소로써 인민들의 건전한 신경을 마비시키며 코쓰모뽈리찌즘을 유일의 사상적 무기로 하여 「미국식 생활」과 「미국의 세계적 령도」를 떠들어 댐으로써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지배를 반대하는 인민들의 의기를 말살하려고 광분하고 있다.

그들은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十자군 출정」을 외치며 「긴장한 국제 정세」의 인위적 조성을 도모하고 있다.

제국주의 진영이 새 전쟁 도발을 광범히 준비하고 있으며 아주 상세한 부분에 이르기까지 완전히 작성된 「필요한」 동원 계획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그들의 추악한 발광이 신경 약한 인간들로 하여금 「전쟁 방지 불가능」과 전쟁 도발자들의 「위력」에 대한 환상을 일으키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지금에 있어 전쟁 방화자들의 길 앞에는 거대한 장벽이 가로 막혀 있으며 이는 또한 나날이 그 위력을 강화하고 있다.

오늘 국제 민주주의 전선은 전쟁 음모가들이 군사적 모험을 감행하고 있는 동안에 제국주의의 호전가들에게 막대한 타격을 주면서 자기의 력량을 굳게 결속하여 평화 옹호의 길을 자신있게 전진하고 있다.

오늘 지구 상의 수억만 보통 사람들은 제국주의와 새 전쟁을 반대하며 항구한 인류 평화를 옹호하기 위한 거센 투쟁에 궐기하였다. 이 운동은 인종별, 민족별, 신앙별 및 정견 여하를 불문하고 로동 계급, 농민, 인테리겐챠, 도시 자산층 등 각계 각층을 망라하고 있으며 지방적, 민족적 범위로 점점 더 조직적으로 확대되어 오늘에 있어서는 세계 각국의 각 도시, 기업소, 기관에 평화 옹호 위원회들이 조직되었으며 이 운동은 「평화는 기다릴 것이 아니라 쟁취하여야 한다」는 구호 밑에 일찌기 인류 력사에 있어 경험하지 못한 강대한 력량과 적극성으로써 실제적 행동 단계에 들어가고 있다.

불란서, 이태리, 백이의, 화란, 호주, 서독, 노르웨이, 아프리카, 트리에쓰트에서 다수 부두 로동자들은 군수품의 적하, 하선을 거부하고 있으며, 철도 로동자들은 무기 수송을 반대하며, 공장 로동자들은 무기의 생산을 반대하는 투쟁을 완강히 전개하고 있으며 이것은 광범한 인민의 지지와 성원을 받고 있다.

지난 三월 스톡호름에서 개최되었던 평화 옹호 위원

회 제三차 회의는 원자 무기의 무조건 금지 및 이의 집행을 위한 강력한 국제 관리와 원자 무기를 먼저 사용하는 정부를 범죄자로 인정할 것을 결정하였으며 여기에 전세계 인민들이 서명할 것을 호소하였다。이 호소문이 발표된 후에 전쟁 방화자들에 대한 준엄한 경고로 될 평화 서명 운동은 세계 각처에서 광범히 전개되고 있다。평화 옹호 세계 위원회의 호소는 다수의 평화 옹호 투사들을 새로이 평화 전선에 인입시키고 있으며、새롭고 또 새로운 력량은 이 전선의 위대한 깃발 밑에 더욱 집결되고 있다。

평화 전선은 자기 대렬 속에 수백만의 조직적 투사들을 포옹하고 있는 세계적 대중 조직인 국제 직련、국제 녀맹、세계 민청들에 튼튼히 립각하고 있다。

새 전쟁을 반대하는 평화 옹호 운동은 각국에 있어서 근로자들의 민주주의적 권리와 자유를 위한 투쟁 및 민족적 독립을 위한 투쟁과 긴밀한 련계 밑에 전개되고 있다。

불란서 로동자들은 군수품 생산을 평화적 제품 생산으로 전환하기 위하여、월남에서의 전쟁을 중지시키기 위하여、생활 조건의 개선을 위하여 파업、군중 대회、시위 등을 광범히 전개하고 있다。

이태리 로동자들은 반동들의 무력적 탄압을 박차고 용감한 투쟁을 전개하고 있으며 특히 산업 로동자와의 긴밀한 련계 밑에 농민 운동이 확대 강화되고 있는 것은 이태리에 있어서의 근로자들의 투쟁의 새로운 발전을 말하여 주는 것이다。

제국주의 진영의 두목인 미국 영국 자체 내에서도 근로자들의 투쟁은 더욱 확대 강화되고 있다。미국에 있어서 一九四九년도 파업 건수는 三、六〇六건에 달하는 바 이는 一九四八년도에 비하여 五%의 증가이며 여기에는 三三〇만명이 참가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상실된 총로동 일수는 五천 五십만일로서 一九四八년도보다 四八%가 증가되었다。평화를 요구하는 서한이 미국회에 답지되고 있으며 영국 의사당에는 「평화! 원자탄을 금지하라!」는 포스타가 나붙고 있다。미국의 많은 진보적 인사들은 쏘 미 간의 평화적 교섭과 장개석에 대한 무기 원조 중지를 요구하고 있으며 영국의 민주주의자들은 마레이에서의 전쟁 중지와 영국 군대 철거를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

식민지 및 예속 국가들에 있어서의 민족적 독립을 위한 투쟁은 평화 옹호 투쟁의 일환으로서 새로운 발전적 단계에 들어서고 있다。

월남 인민들은 인민 공화국을 수립하고 쏘련을 비롯한 제민주주의 국가들과 국교 관계를 설정하고 불란서 침략가들과 반동 괴뢰들을 타도하기 위한 투쟁에서 거대한 성과를 쟁취하고 있다。

필립핀、인도네시야、인도、마레이 인민들도 파업 투쟁과 무장적 투쟁으로 영웅성을 발휘하고 있다。

제국주의 침략자들은 전쟁으로 인민들을 위협한다。그러나 병사없는 전쟁은 할 수 없는 것이다。그들은 많은 인민들을 침략 군대에 끌어들이고 있으나 그것은 그들에게 있어 극히 믿기 어려운 존재인 것이다。

인민은 전쟁을 원치 않는다。전쟁을 방지할 위력한 힘은 전세계에 충만되고 있다。세계 인구의 三분지 一에 해당하는 八억만 인민들은 이미 제국주의 철쇄에서 해방되었으며 전세계 인구의 거의 절반이 평화 옹호 전선에 튼튼히 결속되어 있다。

인민들은 력사의 창조자이다。평화 옹호 자들의 인민적 운동은 새로운 침략적 도발을 방지하며 어떠한 침략자라도 감히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인민들의 력량을 침략적 제국주의 력량에 향하여 동원시킬 자기의 력사적 과업을 들고 나섰다。제국주의자들이 만일 전쟁을 도발한다면 인민들은 제국주의와 전쟁을 영원히 소멸하기 위하여 자체 내에서 충분한 력량을 발휘할 것이다。

이 력량의 담보자로서는 세계 평화와 민주주의와 사회주의의 기수이며 조국인 강력한 쏘련이 견결히 서 있다。

쏘련이 원자탄의 비밀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전쟁 도발자들에게 치명적 타격인 동시에 원자력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화를 견지하는 쏘련의 일관된 대외 정책은 전세계 인민들로 하여금 쏘련에 대한 지지와 신망을 더욱 두텁게 한다。

광범한 인민들은 전쟁을 반대하며 평화를 옹호하는 투쟁은 전세계 인민들의 숭고한 력사적 위업임을 인식하고 있으며 그들은 승리한 사회주의 국가인 쏘련과 사회주의에로 전진하고 있는 인민 민주주의 국가들에서 위대한 모범을 배움으로써 자본주의의 억압과 착취로부터 구원될 수 있으며 인민들의 자유와 행복을 위한 유일하고 정당한 길을 힘차게 전진하고 있다。

새로운 발전적 계단에로 발전하고 있는 평화 옹호 운동은 「아니다! 전쟁은 평화를 이기지 못한다」는 것을 반드시 다시 한번 인류 력사 위에 기록하고야 말 것이다。

* * *

조선 인민들은 머지 않아 해방 五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통일되지 못한 조건 하에서 남북이 각각 판이한 정치 경제적 총화로써 금년의 五·一절을 맞이하게 되었다。

오늘 우리 조국에 조성된 국내 정세는 현시 국제 정세의 반영으로서 민주와 반민주의 대립된 두 로선과 그의 첨예화한 투쟁으로 특징지어지고 있다。

공화국 북반부에 있어 인민 정권은 인민 민주 제도에 립각하여 더욱 강화 발전되었으며 인민 민주주의적 질서는 확립되었다。인민들의 정치적 통일은 일층 강화되었으며 산업、농촌 경리 및 문화 각부분에 걸쳐 실로 거족적 발전을 이루었다。

공화국 북반부 인민들은 二차의 인민 경제 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한 토대 위에 一九四九—一九五〇년도 二개년 인민 경제 계획 실행에 있어서 첫해 계획을 승리적으로 수행하고 마지막 해 계획의 기한 전 초과 달성을 위하여 온갖 창의적 로력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다. 일제가 파괴한 공장, 기업소, 철도, 광산은 복구되었을 뿐만 아니라 허다한 산업 시설들이 새로 건설 확장되었으며 우리 산업에 있어서의 식민지 편파성이 점차 퇴치되어 가고 있다. 그러한 결과 인민 경제의 지도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산업 부문에 있어 一九四八년도 국영 산업 총생산고는 계획의 一〇二·九%로 초과 달성되었는바 이는 一九四七년도에 비하여 一三九·一%, 一九四六년에 비하여 二六三·三%의 장성이며 공업 생산은 一九四九년에 와서 一九四六년의 三·七배로 장성하였으며 그 중 기계 생산은 전전 수준을 二四六·九%로, 경공업은 一五二·七%로 각각 장성하였으며 二개년 계획 마지막 해인 一九五〇년에 가서 국영 산업 총생산고는 一九四八년의 二배로 장성할 것이며 이로써 一九四四년보다 三三·二%나 릉가할 전망을 가지고 있다.

농촌 경리 방면에 있어서는 총경작 면적이 토지 개혁 전에 비하여 一九四八년도에 와서는 一〇〇·三%로 확장되었으며, 一九五〇년도에 가서 총경작 면적은 二백 四十만정보, 즉 一九四四년에 비하여 三·四%나 릉가할 것을 예견하고 있다.

수확고에 있어서 토지 개혁 전 一년간 총생산고가 二백十六만七천一백六十三톤이던 것이 一九四九년도에는 一九四四년도에 비하여 六十二만六천四백九十一톤이나 증가되었다. 그리하여 공화국 북반부에서는 식량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다. 특히 쏘련의 원조로써 금년부터 북반부 내 중요 농촌에 농기계 임경소가 설치된 것은 우리 농업 발전에 있어서 력사적 의의를 갖는 것으로서 무한한 전망을 약속하고 있다.

문화 방면에 있어서도 공화국 북반부에서는 선진 쏘련 문화의 섭취로써 민족 문화 예술과 인민 교육 분야에서 거대한 발전을 이루었으며 특히 금년 九월부터 실시되는 전반적 초등 의무 교육제 실시는 문화 령역에서의 일대 혁명인 것이다.

인민들의 물질 문화 수준도 급진적으로 제고되고 있다. 그것은 우선 물가 지수에서 명확히 나타나고 있다. 화폐 개혁 당시 평양시의 물가 지수를 一〇〇으로 한다면 一九四九년 十월에는 五四·三으로 저하되었으며 공화국 정부의 배려에 의하여 실시된 생활 필수품 가격 인하로 인하여 최저 七·七%로부터 최고 一七·七%까지 인하되었다.

이 모든 사실들은 인민 정권 하에서만이 가능한 것으로서 공화국 북반부에서 실시된 제반 민주 개혁의 정당성과 인민 민주주의 제도의 우월성을 물질적으로 증

명하는 것이다.

공화국 북반부 전체 근로 인민들은 이미 쟁취한 민주주의적 제반 성과와 우리 공화국의 확고 부동한 군사, 정치, 경제, 문화적 기지를 일층 공고화하기 위하여 로력 전선에서 광범한 애국적 증산 운동을 치렬히 전개하여 구국 투쟁의 길을 힘차게 매진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공화국 북반부는 해방 후 五년 동안에 위대한 쏘련의 우의적 원조와 우리 민족의 수령 김일성 장군의 옳바른 지도 밑에 우리 조국의 통일 독립과 민주화를 위한 반석같은 기지로 전변되었다.

그러나 공화국 남반부는 미 제국주의자들의 침략 정책과 그 앞잡이 리승만 도당들의 매국 정책으로 말미암아 오늘에 있어 더욱 혹심한 무법 천지로 화하였으며 살륙과 아사와 예속의 처참한 생지옥으로 화하였다.

세계 제패의 야망에 광분하고 있는 미 제국주의자들의 총검의 지지 하에 리승만 매국 역도들은 조국 통일을 위한 가장 정당한 길이며 전체 인민들이 한결 같이 지지하는 조국 전선의 평화적 통일 방책을 거부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의 실현을 위하여 총궐기하여 영용히 투쟁하는 남반부 애국 인민들을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욱 혹심하게 탄압 도살하며 남조선을 미국의 식민지화하며 인민들을 다시금 망국 노예의 쇠사슬에 얽매며 동족 상쟁의 내란의 피바다에 몰어 넣으려는 발악을 다하고 있다.

리승만 역도들은 인민 위원회의 탄압 해산, 모쓰크바 三상 회의 결정의 파탄, 유·엔에서의 쏘련 제외의 거부 및 「유·엔 조선 위원단」의 비법적 조작 등 미 제국주의자들의 조선에 대한 일련의 예속화 정책에 충실히 봉사하였으며 총검에 의한 五·十 망국 단선 및 괴뢰 정권의 수립을 강행하였으며 一六一개의 애국적 정당 사회 단체들을 지하에로 구축하였다.

리승만 역도들은 민주주의적 가면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히틀러식 류혈 독재왕으로 군림하여 해방 이후 지금까지에 二十만명에 달하는 애국적 인민들을 학살하였으며 인민들의 민주주의적 권리의 최후 일점까지도 [illegible] 박탈하였다.

그것은 자기들의 죄과가 조선 인민들의 일치한 증오의 대상이 되며 따라서 자기의 추악한 운명이 최후의 간두에 점점 더 박두하고 있음을 제 스스로가 잘 알고 있는 까닭에 평화적 통일 방책을 누구보다도 무서워하기 때문이다.

평화적 조국 통일을 반대하여 나선 후 리승만 도당의 인민들과 애국적 활동가들에 대한 잔혹한 학살 탄압은 더욱 야수성을 띠게 되었다.

원쑤 리승만 역도들은 영웅적 빨찌산을 진압하며 내란 도발을 위하여 미국 상전과 지난 一월 二十六일에 「한미 상호 방위 협정」과 「군사 고문단에 대한 한미 협정」을 체결하였다. 이 새로운 망국적 「협정」에 의

하여 리승만 도당은 미 제국주의 전쟁 방화자들의 무기창고에서 녹쓸은 파잉 무기를 더 많이 공급받게 되었으며 「국방군」、「해군」、「경찰」을 미 제국주의자들의 조선 침략과 나아가서는 동방 침략을 위한 군사 기지화에 수응할 수 있는、고용병으로 제공하게 되었다。

미제는 이 두 「협정」을 표방하여 종래 어느 정도의 「배후적 활동」으로부터 조선 인민 학살과 침략적 군사 기지 설정의 길에 공개적으로 들어 서게 되었다。 이 미 월가의 무기는 작년 여름 이후만 하여도 三차에 걸쳐 합계 八천만 딸라의 차관에 의하여 공급되였다。 수원、광주、군산、대구、제주도에 군사 비행장을 완성하였으며 금년 상반기에는 二억 八천만원을 항공기 신설에 투입할 것을 예견하고 있다。

리승만 역도들은 소위 「병역법」을 조작하고 지난 三월 四일부로 「병역법 시행령」을 공포하였다。 놈들은 또한 二十만명의 청년을 一백二十개소의 소위 군사 훈련소에 강제 수용하여 인민 도살의 군사 훈련을 실시할 것을 계획하고 있는 바 이 모든 사실들은 미제가 추구하는 전쟁 목적과 예속화 음모에 복무하기 위하여 애국적 인민을 도살하고 있음을 명확히 말하여 준다。

놈들의 인민 도살과 내란 도발의 매국적 흉계는 결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만고 역적 리승만 도당은 조선 인민의 불구 대천의 원쑤인 일본 군벌들과 로골적으로 야합하며 일제에게 아부하여 조선 인민들을 원한 쌍인 三十六년 간의 망국 노예의 처지에 다시금 몰아 넣으려 하고 있다。 지난 二월 二十六일에는 로구 리승만이가 직접 외무장관 림병직과 작전 참모장 정일권 등을 대동하고 동경을 방문하여 제 힘만으로는 인민들의 유격 투쟁과 애국 운동을 진압할 수 없음을 하소하고 구원을 맥아더와 요시다에게 애걸하였던 것이다。

놈들은 남반부 농민들의 피땀어린 쌀을 강탈하여다가 원쑤 일본 군벌의 재생에 제공하고 있으며 일본과의 예속적 무역으로써 남반부를 일본 군국주의자들의 상품 판매 시장과 식량 공급 지대로 만들고 있다。

근자의 상해발 따쓰 통신은 저번 리승만이가 일본에 체재하는 동안에 리승만과 요시다 간에 일본이 남조선에 군수품을 제공할 데 대한 비밀 협정이 체결되었다는 아까하다지 보도를 전하고 있으며 계속하여 남조선을 일본 비행사들이 조종하는 비행기들로써 중국 동북과 북조선을 폭격하기 위한 기지로 전환시킬 목적으로 장개석 도당과 야합할 데 관하여 리승만과 요시다 간에 합의의 도달을 보았다는 것을 전하고 있다。

더우기 최근 보도에 의하면 인민 유격대의 공세에 당황한 리승만 도당은 괴뢰군 장교 다수를 일본에 파견하여 三개월 간 미륙군과 일제에게서 직접 전투 훈련을 받기 위하여 벌써 제一차로 二十三명을 파견하였다。 한편 요시다는 다수의 일본인 장교를 남조선에 파견하여 괴뢰 군대에 배치하게 되었는 바 이러한 흉책들은 전기 협정에 의거한 것이라고 한다。

놈들은 또한 갈바 몰라 헤매는 패망 장개석과 필립핀 인민들의 원쑤 퀴리노 등과 결탁하여 미제의 사수 하에 침략적 「태평양 동맹」의 결성에 광분하고 있다。

리승만 도당들의 매국 정책은 남조선 경제 상태의 파멸상과 외래 제국주의에 대한 예속성에서도 충분히 알 수 있다。 작년 상반기 현재 남조선에 남아 있는 기업소 수는 一九四三년의 겨우 三六%에 불과하며 농업 경지 면적은 五五%로 미곡 생산고는 흉년이 계속되던 一九四〇—一九四四년의 불과 七七%로 격감되고있다。

남반부 무역은 민간 무역만 보더라도 수출이 수입의 약 六〇%밖에 되지 않는 극심한 수입 초과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남조선 경제의 파멸적 예속 상태는 이·씨·에이의 소위 경제 원조로써 더욱 박차를 가하고있다。

남조선 경제 상태의 와해상은 작년 十二월 二十三일 현재 통화 발행고가 七백억원을 초과한 사실에서도 볼 수 있는 것이다。

남조선의 물가는 작년에 와서 전쟁 전의 八二一배 내지 一、〇〇三배로 등귀되었으며 그 중 특히 서울의 쌀값은 지난 四월 十일 현재 소두 한말에 二천 三백원으로 폭등되고 있으며 실업자는 三백만을 초과하고 있다。

인민들의 생활고는 이러한 사태에 덧붙여 리승만 도당들의 빨찌산 「토벌」과 인민 학살을 위한 비용의 강탈적 념출에 의하여 더욱 혹심하여지고 있다。 리승만 도당은 인민 유격대와 인민들의 영웅적 투쟁을 말살하기 위한 방대한 비용을 인민들로부터 비법적으로 략탈하고 있다。 놈들의 금년도 예산 중 국방비와 내무비가 전체의 五四%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방대한 예산을 조달하기 위하여 놈들은 인민 과세를 작년에 비하여 二·五배로 인상할 것을 예정하여 놓았으며 二백억원에 해당하는 소위 국채 발행을 결정하고 제一차로 一백억원을 강제 발매하고 있다。

또한 만고 역적 리승만은 미국 정부의 지시에 의하여 전인민의 피와 땀으로 된 당당한 인민의 소유인 전 일본인 소유의 공장、기업소、광산、주택、토지 기타 일제 재산을 소위 「귀속 재산 처리법」에 의하여 개인 모리배들에게 팔아 먹고 있다。

놈들은 최근 오랫 동안 옥신 각신 하던 끝에 제 상전의 명령에 의하여 五월 三十일 제二차 망국 단선을 실시할 것을 발표하고 인민들을 다시금 기만하려고 획책하고 있으며 미제의 비행기와 군함으로 위협하고 있다。

전체 조선 인민들은 미제의 침략 정책과 전쟁 도발 음모를 반대하며 천추에 용서못할 원쑤 리승만 도당을 타도하고 하루 속히 조국의 평화적 통일 위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총궐기하였으며 극심한 폭압、테로、학살을 뚫고 남반부 인민들은 영웅적 구국 투쟁을 더욱 치렬히 전개하고 있다。

남반부에서 조국의 우수한 아들 딸들은 속속 인민

유격대에 참가하고 있으며, 농민들은 인민 유격대와의 긴밀한 련계 밑에 리승만 도당을 반대하며 토지를 위한 투쟁을 광범히 전개하고 있으며 인민들은 유격대 원호에 갖은 열성을 다하고 있다。

영웅적 인민 유격대는 리승만 역도들이 총병력 八개 사단중 五개 사단을 동원하여 륙, 해, 공군 일체 작전으로 유격대의 「진압」을 호언 장담하면 소위 「동기 도벌」을 완전히 파탄시켰을 뿐만 아니라 춘기에 들어서면서 전면적인 공세에 넘어가 혁혁한 성과들을 쟁취하고 있다。 더우기 오늘의 유격 투쟁은 각 유격 전구 간의 호상 련계 밑에 새로운 발전적 단계에 들어가고 있다。

리승만 역도들이 미 제국주의자들의 총검의 지지 밑에 군국주의 일제와 야합하여 우리 인민을 더욱 혹심하게 학살하며 조국을 내란의 참화 속에 몰아넣으며 예속화하려고 최후의 발악을 다하고 있으나 조선 인민들의 불굴의 투쟁 력량 앞에서 머지 않아 반드시 타도되고야 말 것이다。

리승만 괴뢰 정권은 지금 극도의 재정난에 봉착하였으며 자기 진영 자체 내의 내부적 모순의 격화로 말미암아 풍전 등화의 말로를, 더욱 재촉하고 있다。

조선 인민들은 도살자 리승만 도배의 저주할 이름을 뼈에 사모치는 원한으로써 기억하고 있으며 력사는 놈들에게 이미 준엄한 심판을 내리었다。

조선 인민들은 공화국 기치 하 우리 민족의 민족적 영웅 김일성 장군 주위에 철석같이 단결되어 있으며 조국을 보위하며 인민의 리익을 고수하는 공화국 인민 군대, 보안대, 경비대와 조국의 통일 독립을 위하여 영웅적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남반부 인민 유격대의 강력한 무장력을 소유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유력한 사회주의 국가 쏘련을 위시하여 위대한 인민 혁명에서 빛나는 승리를 쟁취한 신생 중화 인민 공화국과 인민 민주주의 제국가와 긴밀한 친선 관계를 공고히 하고 있으며 세계의 수억만 평화 옹호자들의 열렬한 동정과 성원과 지지를 받고 있다。

전체 조선 인민들은 그 어느 때보다 적에 대한 열화와 같은 증오심과 높은 경각성으로써 적과의 투쟁에서 빛나는 승리를 쟁취하고 있으며 위대한 쏘련을 핵심으로 한 전세계 평화 전선에 굳게 단결되어 항구한 인류의 평화를 위하여, 조국의 통일 독립과 민주화를 위하여, 투쟁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영광에 찬 五·一절을 무한한 승리의 전망 속에서 기념한다。

쓰딸린 전집 제三권에 대하여

브·에브 그라포브

발간된 쓰딸린 전집 제三권은 위대한 사회주의 十월 혁명 준비 시기에 관계되는 저작들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도합하여 수개월에 궁할 뿐인 이 시기는 전개되던 사회적 사변들의 템포와 그 풍부성으로 말하면 력사 상의 가장 뚜렷한 시기 중의 하나이다。

전세계 력사 상에 새로운 시대를 열어 놓은 사회주의 十월 혁명은 위대한 볼쉐위끼 당과 그의 천재적인 수령들——레닌과 쓰딸린의 직접적인 령도 하에 세계에서 가장 혁명적인 로씨야의 프로레타리아트에 의하여 빈농과의 동맹 하에 완수되었었다。

위대한 레닌은 일 국가에서 사회주의가 승리할 가능성에 대한 리론, 부르죠아 민주주의 혁명으로부터 사회주의 혁명에로의 이행을 위한 투쟁에 대한 천재적인 계획, 사회의 새롭고 더 높은 정치 조직 형태로서의 쏘베트에 대한 명제 및 쏘련에 있어서의 사회주의의 승리를 위한 전략과 전술로써 볼쉐위끼 당을 무장시키었다。 四월 론강, 「박두하고 있는 파국, 여하히 그와 투쟁할 것인가」「국가와 혁명」무장 폭동에 대한 론문 및 기타들은 맑쓰주의의 리론적 발전에 있어서 거대한 일보 전진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레닌과 쓰딸린의 직접적인 령도 하에 볼쉐위크들은 자본가와 지주를 반대하고 또한 그들의 국가 주권을 반대하는 투쟁에 프로레타리아트의 주권을 위한, 민주주의적 강화를 위한, 토지와 자유와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에 수백만의 근로 대중을 동원시키고 조직시키는 일체의 거대한 사업을 전개한 것이었다。

위대한 레닌의 가장 친근한 전우인 쓰딸린 동지는 레닌과 함께 쏘련에 있어서의 사회주의 혁명의 승리를 위한 투쟁에서 볼쉐위끼 당과 로동 계급을 령도하였었다。

쓰딸린 전집 제三권에 수록된 제저작들은 볼쉐위끼 당과 그의 혁명적 사상의 위대성과 힘을 천명하고 있다。 레닌과 함께 쓰딸린 동지는 영용하게 맑쓰주의 리론을 더욱 더 발전시켰으며 그것을 로씨야에 전개된 승리적인 사회주의 혁명의 새로운 경험으로써 풍부히 하였었다。

전집 제三권에 수록된 저작들은 로씨야와 서구라파의 타협주의 정당의 사상과 정책을 반대하며 로씨야에서의 제국주의 격렬 시기에 볼쉐위끼 당, 대렬 내에 있는 그들의 앞잡이를 반대하는 쓰딸린 동지의 류례 없이 첨예하며 타협 없는 투쟁의 문헌들이다。

쓰딸린 동지의 저작들은 대중을 혁명적으로 교양시킴에 있어서 이 대중들을 자본가—지주의 주권을 소탕하고 쏘련에 프로레타리아 독재를 수립함에 능숙하게 인도하는 데 있어서 거대한 역할을 놀았었다。

× × ×

짜리즘을 전복한 二월 부르죠아—민주주의 혁명이 있은 후 볼쉐위끼 당의 령도 하에 전세계 력사 상에 있어서 착취 계급을 반대하며 사회주의 혁명을 위하여 로동 계급을 선두로 한 근로자들의 가장 커다란 투쟁이 전개되었었다。

「혁명은 전진하고 있다。혁명은 페뜨로그라드에서 폭발되어 점차 광활한 로씨야의 전역을 휩싸돌며 지방들에로 옮아가고 있다。그 뿐만 아니다。혁명은 당면한 위기를 심각화하고 첨예화하면서 필연적으로 정치적 문제로부터 사회적 문제에로, 로동자 농민의 생활 건설 문제에로 넘어가고 있다」(쓰딸린 전집 제三권 조선문판 一四페지 ——이하 페지수는 조선문판 페지만을 기입하겠음——역자)라고 쓰딸린 동지는 류형지 뚜르한쓰끄로부터 금방 페뜨로그라드에 돌아와서 바로 썼던 것이다。

로씨야에서의 二월 혁명은 레닌이 제기한 부르죠아—민주주의 혁명 시기에 대한 전략의 정당성을 확증하였었다。이 혁명의 기본 동력은 로동 계급과 의복을 병사 외투로 바꿔입은 농민이었다。프로레타리아트의 혜게모니는 제二차 로씨야의 부르죠아—민주주의 혁명 승리의 조건을 지은 것이었다。二월 혁명의 맨 첫날에 벌써 프로레타리아트와 농민의 혁명적—민주주의적 독재 기관으로서의 로동자 및 병사 대의원 쏘베트가 출현하였었다。二월 혁명 승리 후에 조성된 정세의 특징적인 특점은 이중주권——두개의 주권, 두개의 독재가 서로 얽힌 것, 즉 림시 정부로서 나타난 부르죠아지의 독재와 로동자 및 병사 대의원 쏘베트로서 나타난 프로레타리아트의 독재이었다。

멘쉐위끼와 에쎄르들이 반역적 역할을 논 결과로 쏘베트는 부르죠아지에게, 즉 부르죠아 림시 정부에게 자발적으로 주권을 넘겨 주었었다。

二월 혁명 후에 당의 합법적 상태에로의 이행은 당내의 의견 불일치를 폭로시켰다。까메네브, 리꼬브, 부브노브 및 모쓰크바 당 단체 일꾼들 중의 그들의 지지자들은 림시 정부의 조건부 지지라는 반(半)멘쉐위끼적 립장을 취하였다。쓰딸린 동지는 다대수의 당원들과 함께 림시 정부 불신임 정책을 고수하였으며, 결

결하게 수세(守勢)를 반대하여 나섰으며, 평화를 위한 적극적인 투쟁에로, 제국주의 전쟁을 반대하는 투쟁에로 호소하였던 것이다。전집 제三권에 수록된 三월에 쓴 쓰딸린 동지의 론문들은 이것을 력력하게 실증하고 있다。

망명하였다가 一九一七년 四월 三일에 페뜨로그라드에 돌아온 레닌은 당과 프로레타리아트에게 부르죠아 혁명으로부터 사회주의 혁명에로의 이행에 관한 명확한 정치적 프로그람을 준 四월 론강을 발표하였다。이것은 새로운 투쟁 조건 하에서의 당의 새로운 방향 결정이었다。

「로씨야에 있어서 현재의 특징은 프로레타리아트의 계급 의식과 조직이 부족한 탓으로 부르죠아지에게 정권을 넘겨준 혁명의 제一 단계에서 정권을 프로레타리아트와 빈농층의 손에 넘겨주어야 할 제二 단계에의 이행에 있다」(레닌 전집 二〇권 八八페지)

레닌은 경제적 방면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이행 수단으로서 지주의 토지를 몰수하고 국내의 전토지를 국유화하며, 모든 은행을 한개의 국립은행으로 통합하며, 그것에 대한 로동자 대의원 쏘베트의 통제를 실시하며, 사회적 생산과 생산품의 분배에 대하여 쏘베트의 통제를 시행할 것을 지적하였었다。

정치적 방면에 있어서는 로씨야에 의회제 공화국이 아니고 로동자, 농업 로동자 및 농민들의 쏘베트 공화국을 수립할 것을 제시하였었다。

一九一七년까지에는 맑쓰주의자들은 의회제 공화국을 사회주의로 과도하는 가장 좋은 정치 형태로 보았었다는 것은 주지하는 바다。레닌은 사회주의 혁명에 있어서의 주권에 대한 문제를 창조적인 맑쓰주의에 비추어 분석함으로써 부르죠아 의회제를 쏘베트 형태의 국가 정치 기구로서 대치함이 필요하다는 데 대한 결론에 도달한 것이었다。

「의회제 공화국이 아니라——로동자 대표 쏘베트가 의회제 공화국으로 복귀하는 것은 일보 퇴각이다——밑으로부터 위에 이르기까지 전국적으로 로동자, 농업 로동자 및 농민 대표 쏘베트 공화국이다」(레닌 전집 二〇권 八八페지)라고 레닌은 그의 천재적인 四월 론강에서 썼다。

사회주의 혁명의 운명에 대하여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이 결론을 레닌은 一九〇五년의 로씨야 혁명과 특히 一九一七년 二월 혁명의 경험에 대한 심각한 연구에 기초하여 내린 것이었다。

짜리 제도와 교체하여 들어선 부르죠아 림시 정부는 「승리로서 끝마칠 때까지」 전쟁할 것을 전국(全國)에 호소하였다。부르죠아 출판물들은 「자유는 위험에 처하고 있다。전쟁 만세!」라고 떠들어대었으며 에쎄르와 멘쉐위크들은 림시 정부가 진행하는 전쟁은 마치 제국주의 전쟁인 것이 아니라 그 성격이 혁

면적 전쟁으로 바꾸어진 듯이 대중들에게 불어넣었다。
에쎄르와 멘쉐위크들의 뒤를 이어 부르죠아 정당과 소부르죠아 정당들이 불붙인 호전주의적 독소에 취하고 기만당한 식지 않은 로동자와 그리고 더욱 많은 병사 및 농민들이 소위 『혁명적 방어 전쟁』에로 이끌리어 갔다。 광범한 대중 속에 있는 이러한 기운(氣運)을 극복함이 없이는 혁명의 가일층의 발전에 대하여 생각조차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레닌은 가르치였었다。

「이 전쟁은 리보브와 그의 도당의 새로운 정부가 자본주의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새로운 정부가 있었다 하더라도 로씨야로서는 무조건적으로 략탈적이며 제국주의적 전쟁의 성격은 그대로 남아 있다。 그러므로 이 전쟁에 대한 우리 태도에 있어서는 「혁명적 방어 전쟁」에 대해서 조금도 양보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의식 있는 프로레타리아트는 오직 다음과 같은 조건 하에서만、 즉(ㄱ)프로레타리아트와 그와 동맹한 빈농의 수중에로의 주권의 이행、(ㄴ) 말로써가 아니라 사실상에 있어서의 모든 병합(倂合)의 포기、(ㄷ) 사실상으로 자본의 모든 리익과의 완전한 절연의 조건 하에 있어서만 정말로 혁명적인 방어 전쟁다운 혁명 전쟁에 대하여 동의할 수 있는 것이다。

전취물을 위하여서가 아니라 오직 할 수 없이 전쟁을 승인하고 있는 혁명적 방어파의 대중적 대표자들의 광대한 층의 의심할 바 없는 성실성에 비추어、 그들이 부르죠아지에게 기만되고 있음에 비추어 특별히 상세하게、 꾸준하게 또한 인내성 있게 그들에게 그들의 과오를 해명하여 줄이 필요하며 자본의 제국주의 전쟁과의 불가분리한 련결을 해명하여 주며 정말로 민주주의적이며 강압적이 아닌 강화로써 전쟁을 종식시킴에는 자본을 전복시킴이 없이는 안된다는 것을 보여 줄 필요가 있는 것이다」(레닌 전집 二〇권 八七—八八페지) 라고 레닌은 썼다。

레닌은 「림시 정부를 일체 지지하지 말라!」는 구호를 내세웠다。 부르죠아와 지주들의 이 정부가 그 당시 쏘베트의 신임을 받고 있었던 만큼 레닌은 그것을 무장 폭동의 방법으로써 전복시키는 것을 요구하지 않았으며 해설 사업과 인원 획득 사업으로써 쏘베트 내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쏘베트를 통하여 정부의 구성과 정책을 변경시키려고 기도하였었다。 이것은 혁명의 평화적 발전의 방침이었다。

닥쳐오는 사회주의적 혁명에 있어서의 볼쉐위끼 당의 전술과 전략을 강구하면서 레닌은 二월 혁명—농촌에서 생긴 새로운 중요한 변동에 비추어 농촌 문제의 옳은 해결의 중대한 의의에 대하여 강조하였다。

「전술에 관한 서한들」(一九一七년 四월)에서 레닌은 「새로운 현상들을、 즉 농업 로동자 및 빈농들과 농민—경영주와 간의 더욱 심각한 분별의 현상을 고려에

넣고」 사회주의 혁명에로 이행함에 있어서의 볼쉐위크들의 농업 강령을 작성할 것을 요구하였다 (레닌 전집 二〇권 一〇三페지)。 四월 론강에서 레닌은 토지의 국유화와 모든 지주 토지의 완전한 몰수를 수행하며 중심(重心)을 농업 로동자 대의원 쏘베트에 옮겨 놓을 것을 요구하였었다。

이러한 것이 레닌의 四월 론강에서 서술한 강령의 기본적 요지들이다。

쏘딸린 동지는 사회주의 혁명에 대한、 로씨야에 로동자 병사 및 농민 대의원 쏘베트 공화국을 창건할 데 대한 레닌의 로선의 견결한 지지자로서 출연하였다。 전집 제三권의 저작들은 볼쉐위끼 당의 레닌적 방향 채택을 위한、 그리고 레닌의 목표의 실제적 수행을 위한 쏘딸린 동지의 철저하며 견결한 투쟁의 문헌들인 것이다。

쏘딸린 동지는 레닌과 함께 로씨야를 쏘베트 공화국으로 이행시킬 필요성을 견결히 주장하였다。 쏘베트 주권을 위한 투쟁—이것이 쏘딸린 전집 제三권에 수록된 저작들 속에 있는 지고(至高)의 리념인 것이다。

제三권 벽두에는 一九一七년 三월 十四일에 「쁘라우다」에 발표된 『로동자 병사 대의원 쏘베트에 관하여』라는 쏘딸린 동지의 론문이 실려 있다。

당에 혁명의 가일층의 발전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면서 쏘딸린 동지는 로씨야의 선진적 로동자들에게 도처에서 로동자 병사 쏘베트로 통일할 것을 호소하였다。 왜냐 하면 로씨야에 있어서의 혁명의 완전한 승리의 담보의 하나가 쏘베트 속에 있기 대문이라고 그는 지적하였었다。

「이 쏘베트들을 공고히 하며、 그것을 도처에 보급시키며、 인민의 혁명적 정권 기관으로서의 로동자 및 병사 대의원 중앙 쏘베트를 수위로 하여 쏘베트들을 서로 결속하는 것—이것이 곧 혁명적 사회 민주주의자들이 사업해야 할 방향인 것이다」(二—三페지) 라고 쏘딸린 동지는 「로동자 및 병사 대의원 쏘베트에 관하여」라는 론문에서 썼다。

一九一七년 三월 十八일 쏘딸린 동지는 「쁘라우다」 신문에 「로씨야 혁명 승리의 제조건에 관하여」라는 론문을 발표하였다。 그 론문에서는 수도와 지방에서의 민주주의를 통일시킬 수 있게 충분한 권위를 가진 민주주의적 전로씨야적인 혁명적 투쟁 기관을 수립할 필요성에 관한 문제를 또 다시 세웠던 것이다。 이 기관은 필요하기 때문에 인민의 온갖 력량을 반혁명을 반대하는 투쟁에 동원시킬 수 있는 혁명적 주권 기관으로 되어야 한다。

이러한 기관으로는 쏘딸린 동지가 지적한 바와 같이 로동자 병사 농민 대의원 전로씨야 쏘베트만이 될 수 있었다。

쏘딸린 동지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지적하였다。

「우리에게 있어서 림시 정부는 바리까드 위에서가 아니라 바리까드의 근처에서 발생하였다. 그러므로 이 림시 정부는 혁명적이 아니며 그것은 다만 다리를 끌며 매달리려 하면서 혁명의 뒤를 따라가고 있을 뿐이다」(一七—一八폐지) 림시 정부는 일정한 정국(政局)에 있어서 반혁명을 위하여 조직되는「합법적」방패로 될 수 있다는 것을 쓰딸린 동지는 예견하였다. 사변의 지나온 과정은 쓰딸린의 예견을 완전히 확증하였던 것이다.

一九一七년 四월 十八일 와실리예브쓰끼 도(島)에서의 집회에서의 쓰딸린 동지의 연설은 어찌하여 로씨야 로동자들과 농민들이 림시 정부를 신임할 수 없고 또 신임하여서는 아니되는가 라는 문제에 명백한 대답을 주었던 것이다.

림시 정부를 신임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은 그가 국내 사회 생활에서의 가장 중요하며 또 근본적 문제인 전쟁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인민을 신임하지 않기 때문이다. 림시 정부는 짜리가 인민이 모르게 영 불 제국주의와 체결하였고 림시 정부가 인민의 동의 없이 계승한 조약을 기초로 하여 림시 정부가 수행하는 전쟁의 실지 제국주의적 목적을 인민에게서부터 은폐하고 있다. 림시 정부는 토지를 위한 농민 운동을「진압」하고 위협하여, 지주가 경작하지 않은 토지를 농민이 경작함을 금지하여 농민에게 실로 전쟁을 선포함으로써 지주의 리익을 보호하는 데 주력하였던 것이다. 혁명적 시기에 성립되고 활동하던 림시 정부는 혁명을 정지시키며 국내의 민주화의 사업에 있어서 쏘베트를 반대하며, 혁명을 방해 또는 뒤로 끌며, 쏘베트를 반대하는 반혁명을 선동하는 데 보조하였다. 림시 정부는 八시간 로동제와 기타 로동자 생활 개선의 조건을 실시하고 있었던 로동자들을 반대하여 투쟁하는 자본가들을 실지로 보호하는 길에 들어섰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지지해야 할 것인가? 어느 것을 우리는 자기의 정부로 생각할 것인가? 로동자 및 병사 대의원 쏘베트인가, 그렇지 않으면 림시 정부인가?

명백히 로동자 및 병사들은 오직 자기들이 선거한 로동자 및 병사 대의원 쏘베트만을 지지할 수 있는 것이다」(五二폐지)라고 쓰딸린 동지는 말하였다.

쓰딸린 동지가 지적한 바와 같이 다만 혁명적 쏘베트 주권만이 로씨야를 곤국에서부터 구원할 수 있다. 로씨야를 그 곤국에 몰아넣던 것은 전쟁 파국, 물가 폭등과 인민을 빈궁하게 함으로써 폭리를 취득하는 자본가들과 지주들이었다. 곤국에서 로씨야를 구원하기 위하여서는 지주들과 절연하고 토지를 농민들에게 분배하여야만 되었고, 자본가들과 절연하고 은행, 공장, 제조소에 대한 로동자 통제를 조직하여야만 되었고, 또 간상 모리배와 략탈병들과 절연하고 도시와 농촌 간의

류통을 민주주의적 기초 위에서 조직하여야만 되었고, 로씨야를 사방으로 구속하는 제국주의적 련결선을 절연하여야 되었고, 또 평화의 공정한 조건을 발표하여야만 되었다. 이것은 다만 쏘베트 주권만이 실행할 수 있었던 것이다.

쓰딸린 동지는 레닌과 함께 평화를 위하여, 전쟁을 반대하는 투쟁에 있어서 가장 광범한 인민 대중을 프로레타리아트 편으로 쟁취할 데 대하여 볼쉐위크들을 조직적으로 꾸준히 견결하게 교양하였다. 민주주의적 평화를 위한 투쟁은 사회주의적 혁명에 있어서의 레닌—쓰딸린적 전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의 하나이었다.

전집 제三권에 수록된 쓰딸린 동지의 론문과 연설은 제국주의적 전쟁을 계속하고 있었던 로씨야 및 서구라파 제국주의에 대한 혹심한 타격이었다.

림시 정부의 외무상이었던 밀류꼬브가 三월 二十三일 기자단과의 회견에서 자기의 제국주의적 강령을 로골적으로 진술하였고, 로씨야 인민의 지지를 요구하였을 때 쓰딸린 동지는「이것이나 저것이냐」라는 론문에서 밀류꼬브의 강령은 인민들로부터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설명하였다. 왜 그러냐 하면 그 강령은 반인민적이며,「로씨야 인민, 로씨야 로동자, 농민, 병사들은 남의 령토의 점령을 반대하는 것이며 인민들에 대한 강압을 반대하기 때문이다」(二六폐지)

四월 十八일 와실리예브쓰끼 도(島)에서의 회의에서 연설하면서 쓰딸린 동지는 전쟁에 관한 문제에 대한 림시 정부의 태도를 폭로하며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림시 정부가 전쟁의 진실한 목적을 인민으로부터 은폐하며 또 은폐함으로써 인민을 전연 신임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연하지 않는가? 로동자 농민은 가장 주요하고 기본적인 것에 있어서 자기네들을 신임하여 주지 않는 그러한 림시 정부를 어찌 신임할 수 있으랴?」(四九폐지)

레닌의 완전한 동의에 의하며 쓰딸린 동지는 로씨야 농촌에서 전개된 새로운 제과정을 수차 지적하였던 것이다.

一九一七년 四월 十四일「쁘라우다」지에 발표한「토지는 농민에게」라는 론문에서 쓰딸린 동지는 농민 계급의 점진적 분해의 사실을 고려하며, 근로 농민들에게, 전로씨야 빈농에게 자기의 사업을 자기의 수중에 획득하고 그 사업을 촉진하라는 호소를 보냈다.

「우리는 농민들이 혁명적 농민 위원회(면 군 기타)로 조직되고 그것을 통하여 지주들의 토지를 점유한 후 그 토지를 조직적 질서 밑에 임의로 경작하라고 호소하는 바이다.

우리는 이것을 시급히 헌법 제정 회의를 기다리지 말고 혁명의 수레바퀴에 몸뚱이를 끼어 넣는 반동 대

신들의 금지에 개의(介意)하지 말고 실시하라고 호소한다」(四二페지)

이 론문에서 쓰딸린 동지는 농민들이 지주의 토지를 몰수하고 자발적으로 경작하는 것이, 수천 수백만의 빈농 대중을 혁명 주위에 뭉치게 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쓰딸린 동지가 주장하기를「우리 혁명의 기본 력량은 로동자와 그리고 전쟁으로 인하여 군인 외투로 바꿔 입은 빈농민이다」(四三페지)라고 하였다。

一九一七년 四월에 발표된 이·브·쓰딸린의 저작들은 볼쉐위끼 당과·로동 계급에게 사회주의적 혁명의 준비 시기에 있어서 계급 투쟁의 전선에 수백만 대중을 동원하는 레닌적 계획을 천명하였던 것이며 적에게 대한 주력 타격의 방향을 명백히 알려 주었던 것이다。 쓰딸린 동지는 프로레타리아 혁명의 가장 위험한 적으로서 사회 혁명당원과 멘쉐위크들을 고립시키는 것이 볼쉐위크들의 전략을 실행하는 가장 필요한 조건이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던 것이다。

멘쉐위크들 사회 혁명당원들은 제二 인터내쇼낼의 정당의 대다수와 함께 자기의 반역적 전략의 기초를 세우며 로씨야에서의 사회주의적 혁명의 승리는 공상이라고, 또 로씨야는 자기의 자본주의적 발전이 미약하므로 사회주의까지 성장되지 못한다는 듯이, 로씨야는 구라파가 사회주의적 개혁을 시작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음흉한 반역자들인 뜨로쯔끼, 까메네브, 지노비에브 등의 투하한 제국주의의 주구들의 진영은 혁명적 투사들의 의식을 마비시키려 하였다。 그들은 비관주의를 전파하였고 로씨야 혁명의 내부 력량에 대한 불신임, 로씨야에서의 사회주의 승리의 가능성에 대한 불신임을 전파하고 있었다。

볼쉐위끼 당은 로씨야에서 프로레타리아트와 수천 수백만의 빈농층의 동맹으로써 자본주의를 청산하는 것을 자기 목적으로 세우며 프로레타리아트 독재를 쏘베트 형식으로 수립하는 것을 자기의 목적으로 하며

제七차(四월) 당 대표회의에서 레닌적 전략을 채택하였다。 레닌적 전략은 로씨야를 제국주의적 전쟁으로부터 구출하고, 지주의 토지를 농민들에게 분배하고, 피압박 민족들을 해방시키고, 또 일련의 과도적 대책으로써 (산업과 분배에 대한 로동자 통제 등) 로씨야를 사회주의적 사회의 개혁들에로 인도하려고 하였던 것이다。

「모든 주권은 쏘베트에로!」 이것이 볼쉐위크들이 내세운 근본적 구호이다。 당의 새로운 레닌적 로선을 주장하면서 쓰딸린 동지는 레닌의 명백한 혁명적인 호소, 즉 림시 정부와 절연하고 모든 주권은 쏘베트에로 넘기라는 호소에 반대하여 림시 정부에 대한 쏘베트의 「통제」이란 구호를 제의하였던 까메네브, 리꼬브, 부부노브 기타 투항자들에게 격렬한 반박을 주었다。

四월 당 대표 회의에서 쓰딸린 동지는 민족 문제에 관한 보고를 하였다。 쓰딸린 동지의 보고는 사회주의의

적 혁명에로의 이행에 대한 새로운 레닌적 로선의 근본적 부분으로 되고 있는 론제를 포함하고 있다。

쓰딸린 동지는 인민 대중을 충동시켰던 생활적 제문제, 즉 다민족적 우리 나라의 사회 또는 국가 제도의 근본적 개혁에 관한 제문제에 있어서 민족 문제의 위치와 의의를 정의하였다。 쓰딸린 동지는 민족 문제가 사회주의적 혁명의 전반적이며 주로 되는 문제, 즉 프로레타리아트와 빈농이 국가 주권을 쟁취하고 공고화하는 문제의 일부분이라고 보고 있다。

쓰딸린 동지는 다음과 같은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민족적 압박을 반대하여 궐기하고 있는 인민들로써 사회주의 혁명의 전위대에 대한 후방을 반드시 만들 것……」(六九페지)

쓰딸린 동지는 레닌과 함께 볼쉐위끼 당의 사회주의적 혁명의 리익을 위하여 국내의 민족 해방 운동을 끝까지 리용하는 것을 볼쉐위끼 당의 목적으로 하였다。

쓰딸린 동지는 四월 당 대표 회의에 나서서 민족적 운동은 제국주의 시기에 있어서 반동적이라 하며 그것을 사회주의적 혁명에 있어서 리용하는 데 반대하였던 반역자 빠따꼬브를 폭로하였다。

다수의 실례를 들면서 쓰딸린 동지는 력사상 일련의 반동적인 민족 운동에 있어서나 그와 함께 제국주의가 노예화시킨 인민들 속에는 진보적이며 혁명적인 운동이 있었고 또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 주었다。 왜 그러냐 하면 자본주의가 존재하는 만큼 민족적 압박도 존재할 것이며 따라서 그 압박을 반대하는 투쟁이 존재할 것이다。 쓰딸린 동지는 「사회 민주당이 사회주의 혁명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만큼 이 당은 반드시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인민들의 혁명 운동을 지지해야 할 것」(六九페지)이라고 말하였다。

四월 당 대표 회의에서의 민족 문제에 관한 보고에 있어서 쓰딸린 동지는 민족적 압박의 사회적 기초를 명백히 하였고 민족적 압박의 동인으로 되고 있는 력량을 규정하였다。

쓰딸린 동지가 말씀한 바와 같이 민족적 압박은 우선 부패하여가는 토지 소유자 귀족들에 의하여 유지되고 있다。

다 아는 바와 같이 로씨야의 짜리 제도 하에 있어서 토지 귀족이 지배하였고 그 때문에 종교적 및 민족적 탄압과 민족적 문화 시설에 대한 억압과 민족들을 서로 사수하는 것과 략탈과 학살 등은 짜리 로씨야에 있어서 일상적 현상이었다。

그러나 토지 귀족은 민족적 압박을 유지하는 유일한 력량이 아니었다。「그와 아울러 다른 세력——즉 식민지에서 습득한 민족적 예속의 방법을 자국 내에 옮겨오며 이리하여 토지 귀족의 자연한 동맹자로 되어버리는 제국주의자 그루빠들이 있는 것이다」(六三페지)라고 쓰딸린은 말하였다。

이 민족적 압박을 제거하고 국내에 있어서 실로 민주주의적 제도를 수립하기 위하여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우선 토[illegible]를 정리하는 것과 민족적 압박을 유지하는 계급적 력량을 정치 무대로부터 숙청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로씨야에서 이러한 력량을 숙청할 수 있는 것은 빈농의 지지를 받고 있는 로씨야 프로레타리아트와 같은 유력하며 철저히 혁명적인 계급이 선두에 선 혁명뿐이다.

사회주의 혁명에 있어서 민족 문제에 대한 볼쉐위끼 당의 강령을 강구한 것이 쓰딸린 동지의 가장 탁월한 공적이다.

쓰딸린 동지는 이 강령을 제七차(四월)당 대표 회의 보고에서 다음과 같은 네가지의 근본적 요구로써 공식화하였다.

「(ㄱ) 제민족에 대해서 분리권을 승인할 것.

(ㄴ) 당해 국가의 령내에 남아 있는 민족들에게 한하여는 자치주를 설정할 것.

(ㄷ) 소수 민족들에 한하여는 그들의 자유로운 발전을 보장해 주는 특별한 법령을 실시할 것.

(ㄹ) 당해 국가의 모든 민족들의, 프로레타리아에 한하여는 유일한 불가분적인 프로레타리아 집단, 유일한 정당이 있어야 할 것」(六八페지)

다 아는 바와 같이 제二 인터내쇼날의 지도자들은 피압박 민족들이 분리하고 자주적 국가로서 존재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하여서는 말하지 않았다. 바우에르, 쓰쁘린게르와 분트파들을 수위로 한 기회주의자들은 프로레타리아트를 위하여서는 유해한 구호, 즉 문화적-민족 자치권의 구호를 제의하였다. 쓰딸린 동지는 벌써 「맑쓰주의와 민족문제」라는 저작에서 거적하기를 「스쁘린게르와 바우에르의 문화적-민족 자치란 것은 교묘한 형태의 민족주의인 것이다.」(전집 二권 조선문판 四一八페지)라고 하였다.

민족 자결 원칙을 분리할 권리까지 제의하면서 볼쉐위끼 당은 제국주의자들의 가면을 벗겨버리며 일개 민족의 근로자들과 다른 민족의 근로자들과의 불신임에 대한 감정을 없이하며 따라서 인민들의 자원적 통일과 호상 신임을 위한 토대를 준비하였던 것이다.

피압박 민족들에게 분리할 권리를 주는 문제를 그 분리가 조정의 조건에 있어서 합리적인가 라는 문제와 혼동시키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쓰딸린적 문제의 취급은 탁월한 리론적 및 실천적 관계인 것이다.

이렇게 두가지 문제를 분리하여야 한다는 필요성을 확증하면서 쓰딸린 동지는 제七차(四월)당 대표 회의에서의 민족 문제에 관한 보고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다.

「자유로운 분리에 대한 제민족의 권리에 관한 문제는 제민족이 일정한 모멘트에 있어서 반드시 분리해야 한다는 문제와 혼동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프로레타리

아트의 당은 이 문제를 매개의 개별적 경우에 있어 그 환경에 따라 전연 독립적으로 해결해야만 할 것이다. 피압박 민족의 분리권과 정치적 운명의 자결권을 승인하면서 우리는 그것으로써 민족들이 현시기에 로씨야 국가로부터 반드시 분리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다. 민족의 분리권을 승인할 수는 있으나 그러나 이것은 아직 아 민족에게 그렇게 할 의무를 지우는 것은 아니다. 민족은 분리권을 가졌으되 그러나 사정에 따라서는 민족은 이 권리를 리용치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 이리하여 우리에게는 프로레타리아트의 리해 여하에 따라서, 프로레타리아 혁명의 리해 여하에 따라서 분리에 대한 찬성 혹은 반대의 선동을 할 자유가 남아 있다」(六四—六五페지)

「나는 민족들의 十분의 九는 짜리 제도가 전복된 이후 분리되기를 원치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六五페지)

력사는 쓰딸린적 예견을 완전히 확증하였던 것이다. 즉 로씨야의 전체 인민들은 거의 다 쏘베트 국가의 범위 내에 남아 있을 것을 희망하였다.

레닌과 쓰딸린은 벌써 十월 혁명의 준비기와 수행기에 있어서 인민들의 위대한 친선의 기초를 구축하였던 것이다. 인민들의 이러한 친선은 우리 년대에 와서 쏘베트 사회의 가일층 발전의 기본적 원동력의 하나로 되었던 것이다.

× × ×

四월 당 대표 회의 이후 혁명의 발전에 있어서 새로운 시기, 즉 사회주의적 혁명의 승리를 위한 투쟁에 대중을 혁명적으로 동원하는 시기(一九一七년 五월—八월)가 시작하였다.

四월 당 대표 회의의 결정을 기초로 하고 볼쉐위끼 당은 대중을 쟁취하는 데 그들을 전투적으로 교양시키며 조직함에 있어서 거대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었다.

이렇게 복잡한 혁명 시기에 있어서 제사변을 급속히 진행하면서 당으로 하여금 능숙하며 능동적인 전술을 요구하고 있었던 이 시기에 있어서 쓰딸린 동지는 대중의 투쟁을 지도함에 있어서 레닌의 친근한 전우이었다. 一九一七년 五월에 중앙 위원회 정치국이 설정되어 그의 위원으로 쓰딸린 동지가 피선되었다. 쓰딸린 동지는 당의 모든 실천적 및 리론적 사업의 중심에 서고 있었다.

쓰딸린 동지의 제론문은 대중을 볼쉐위끼 당의 구호의 주위에 혁명적으로 동원함에 있어서 에쎄르들과 멘쉐위크들의 반역적이며 반혁명적인 정책을 폭로시키는 데 있어서 특출한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

사회주의적 언사로 가장하고 있었던 그 소부르죠아 정당들의 이데올로기를 격파하여야 되었었다. 대중에 대한 그들의 영향을 끊어버려야 하였다. 소부르죠아 대

중 속에서 특히 농민들 속에서 제국주의의 이러한 사회적 지점을 정치적으로 또 조직적으로 격멸하는 것이 필요하였다。

「예진쓰트보」라는 쁠레하노브——울리야노브적「방위주의적」당파가 자기 대표자들을 림시 정부에 참가시키려 하고 볼쉐위크들과 합동하려고 제의하였을 때 쓰딸린 동지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아니다。 제군、 당신들은 얼토 당토 않은 곳에 통일을 호소하는 것이다……아니다。 제군! 어서들 지나가라」(一二페지)

쓰딸린 동지가 지적한 바와 같이 소부르죠아「사회주의적」정당의 곤난은 그 정당들의 자주적 정책을 가지지 못하였고 또 가질 수 없었던 것에 있었다。 부르죠아와 프로레타리아트의 계급으로 분할된 사회에 있어서 자주적 정책은 부르죠아적 제국주의적이나 혹은 프로레타리아적 민주주의적 및 사회주의적으로만이 될 수 있는 것 때문이다。

벌써 五월 초에 쓰딸린 동지가 지적하기를 혁명은 로동자로 하여금 산업을 통제하며 조정하는 문제와 지주들이 버리는 토지를 경작하는 문제와 도시의 식량 공급을 조직화하며 농촌은 공업 원료를 조직적으로 공급하는 것을 실천적 당면 문제로 내세웠다。 이러한 모든 문제는 혁명적 대중의 고도로 되는 열성이 없이、 로동자 대의원 쏘베트들의 새로운 생활 건설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가하는 것이 없이 전체 주권이 로동 계급 수중에 넘어가지 않고는 해결할 수 없었다。

쓰딸린 동지는「혁명의 락오자들」(一九一七년 五월) 이라는 론문에「혁명적 대중은 어떤 데서는 이미 길에 들어서고 있다」(七二페지)라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곤난한 문제는 에쎄르들과 멘쉐위크들이 쏘베트 수중에 정권을 획득하는 최고 문제를「림시 정부의「후보자들」이라는 쓸 데 없는 문제로만 슬쩍 바꿔 놓고 있다」(七二페지)

쓰딸린 동지는 그러한 정책은 에쎄르들과 멘쉐위크들을 불가피적으로 반혁명의 진영으로 인도하리라는 데 대하여 한 두번만 경고하였던 것이 아니다。

에쎄르들과 멘쉐위크들은 인민의 철천지 원쑤인 지주들과 자본가들과의 타협 정책을 주장하면서 부르죠아적 림시 정부에 들어갔던 것이다。 그 후 로써야에서의 반혁명은 혁명적 조직 단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진공하기 시작하였다。

「림시 정부는 적극적인 제국주의의 길 위에 확고하게 섰다。 아직 어제만 해도 불가능하던 것이 오늘에 와서는「사회주의자들」이 림시 정부에 들어가 있는 덕택으로 가능한 것으로 되었다。 사회주의적 언사로써 림시 정부의 제국주의적 본질을 은폐하면서 그들은 앙양하는 반혁명의 립장을 확대 강화하였다」(一〇五페지)

쓰딸린이 말씀한 바와 같이 로씨야에서 뿐만 아니라 서구라파에서도 현시대에「반혁명적 제방책은「사회주의자들」의 손으로 실행하는」것이 흔히 있는 바 사실이다。 이것은 二十세기에 있어서 부르죠아적 독재를 실현하는 근본적 방법의 하나이다。 一九一七년 五월 말에 뻬뜨로그라드구(區)두마 선거 준비의 최성기에 있어서 쓰딸린 동지는「지방 자치 기관 선거 운동」이라는 론문을 발표하였다。 그 론문에서는 쓰딸린 동지가 전쟁과 림시 정부에 대한 볼쉐위끼 당의 태도를 또 한번 공식화하였다。

「우리는 오늘의 전쟁을 반대한다。 왜냐 하면 그것은 략탈전이요、 침략전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강화를、 전반적 민주주의적 강화를 주장한다……。

우리는 현정부를 반대한다。 왜냐 하면 현정부는 공격전을 호소하여 전쟁의 시일을 연장시키며 파괴와 기아를 격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현정부를 반대한다。 왜냐 하면 현정부는 자본가들의 리익을 옹호하여 국내 경제 생활에 대한 로동자들의 혁명적 간섭의 사업을 파탄시키기 때문이다。

우리는 현정부를 반대한다。 왜냐 하면 현정부는 농민 위원회의 지주 토지 관리를 방해하여 지주의 권력으로부터 농촌을 해방시키는 사업을 파탄시키기 때문이다。

우리는 현정부를 반대한다。왜냐 하면 현정부는 처음에는 혁명적 군대를 뻬뜨로그라드로부터 떼 돌리는「일」을 하더니만 지금에 와서는 혁명적 로동자들을 떼 돌리기(뻬뜨로그라드에서 짐을 던다는 구실 하에서!) 시작하여 혁명을 무력하게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현정부를 반대한다。 왜냐 하면 현정부는 일반적으로 국가를 위기에서 구출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八五——八七페지)

쓰딸린 동지는 주권이 혁명적 로동자들과 병사들과 농민들의 수중에 넘어가는 것만이 연장된 략탈적 전쟁을 끝낼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였다。

쓰딸린 동지는「인민 자유」의 정당이라고 자칭하는 까제트당의 반혁명적 정강의 본질을 폭로하였다。 쓰딸린 동지는 짜리 제도가 전복된 후 우익 정당들은 그의 그 전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 무익하기 때문에 그러한 정당들이 분산하였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그들은 어디로 갔는가? 그들은 밀류꼬브 일파의 당인 소위「인민 자유」당의 주위에 모여 들었다。 밀류꼬브의 당은 지금 가장 우익적인 당이다。 이것은 누구나 부인하지 않는 사실이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당은 지금 반혁명 세력을 집결하는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것이다」(八四페지)

그 론문에서 쓰딸린 동지는 일련의 정당들과 당파：구성된 방위주의자들(예진쓰트보 쁠레하노브당파、로분드、멘쉐위크들과 에쎄르、뚜루도위크、인민「사회주

의자들」등)의 쁠럭의 반역적 연합을 폭로하였다。쓰딸린 동지가 지적한 바와 같이 방위자들은 전쟁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까제트들과 조금도 차이가 없었다。실로 보건대 방위파들은 까제트들과 마찬가지로 전쟁을 동의하고 있으나「그러나 침략을 위해서가 아니라(천만의 말씀!)……「병합과 배상이 없는 평화」를 위해서 라는 것이다。평화를 위한 전쟁……」방위자들은 까제트들과 마찬가지로 진공전을 동의하고 있으나 그것은「영 불 은행가들의 리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천만의 말씀!)……「우리의 청소한 자유」를 위해서 라는 것이다。」방위파들은 혁명을 동의하고 있으나「그러나 그것은 혁명이 자본가 및 지주에게 두렵지 않는 한에서, 혁명이 자본가 및 지주의 리익에 배반되지 않는 한에서 (한에서!)라는 것이다」(九一페지)

방위파들의 쁠럭의「사회주의적」가면을 벗기라고 또 방위파들의 부르죠아적 까제트적 본질을 밝은 세상에 내세워 놓으라고 볼쉐위크들에게 호소하면서 쓰딸린 동지는 방위파들이 능숙하게「그들이「자유」와「혁명」에 관한 미사 려구로써 정체를 보다 교묘하게 은폐하면 할수록 그들과의 투쟁은 보다더 견결하고 보다더 무자비해야만 할 것이다」(九三페지)

대중들에게 보냈던 볼쉐위크들의 호소와 쓰딸린 동지의 론문들은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뻬뜨로그라드에서의 지방 자치 기관 선거는 두개의 주요한 결과를 가져왔다。「뻬뜨로그라드 지방 자치기관 선거의 총화에 대하여」라는 론문에서 쓰딸린 동지는 선거에서 까제트들이 전면적 패배를 당하였던 것을 지적하였다。

「까제트의 완전한 패배이다。제아무리 돈사를 늘어놓댓자 그들은 선거 자유의 조건 하의 첫 공개적 투쟁에서 자기의 관할 하에 던 하나의 구(區)두나도 가지지 못하고 참패를 당하였다는 것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얼마 전까지도 까제트들은 뻬쩨르를 자기들의 세습 령지로 인정하고 있었던 것이다。그들은 뻬뜨로그라드는「오직 인민 자유당에만 신임을 표명하고 있다」고 그 격문에 한두번만 쓴 것이 아니며 이에 대한 근거로서는 까제트들은 항상 六월 三일 법령에 의한 국회 선거를 끄집어 내는 것이었다。까제트들이 뻬쩨르에서 지배하고 있었던 것은, 짜리와 그의 선거법의 은총을 입어서 그리했었다는 것이 지금에 와서는 여지없이 판명되었다。구 제도가 퇴장하자마자 까제트들은 순식간에 그 지반을 상실하고 말았다」(一一五—一一六페지)

다음에 쓰딸린 동지가 지적한 바와 같이 선거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명백히 하였다。「우리의 력량 즉 우리 당의 력량의 이미 다 아는 의심할 나위 없는 장성이다。뻬쩨르에 우리 당원이 二만 三천명 내지 二만 五천명이 있으며「쁘라우다」발행 부수는 九만 내지

十만이며 그중 七만부가 뻬쩨르 한 도시에 보급되고 있는데 선거에서 우리는 뻬쩨르의 우리 당원 수의 七배 이상「쁘라우다」발행 부수의 二배 이상에 해당하는 十六만 이상의 투표를 받게 되였다。그리고 그것은 비속한「비르좌까」「웨쵸르까」를 비롯하여 내각 신문인「인민의 의지」와 그리고「로동자 신문」에 이르기 까지 소위 출판물의 거의 전부가 흉악한 부르짖음 소리와 볼쉐위끼에 대한 악랄한 데마로 주민을 위혁하는 그러한 조건 하에서였다……

간단히 말하면 선거자 대중는 이미 까제트로부터 물러났으나 그러나 아직 우리 당으로 오지 않고 있다。——그들은 중도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그 대신 가장 과감한 분자, 즉 혁명적 프로레타리아트와 혁명적 병사들은 우리 당 주위에 이미 집결되었다」(一一六——一一七페지)

선거에서의 방위파들의「빛나는 승리」에 관하여서는 쓰딸린 동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그것은 순간적이며 대중적 선거자, 주로 소부르죠아 선거자들이 도중에서 멈춘 사실로 설명되는 것이다。

「현정세를 분석하지 못했으며 프로레타리아트와 자본가들 간에서 갈팡질팡하는 소부르죠아적 선거자는 까제트에 대한 신념을 내버린 이상 자연 멘쉐위크들과 사회 혁명당원들에게, 즉 혁명과 반혁명과 사이를 무능력하게 류동하고 있는, 전연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멘쉐위크들과 사회 혁명당원들에게로 기울어진 것이다。류류상종(類類相從)이다! 여기에 방위파 쁠럭의「찬란한 승리」의 전체 의의가 있는 것이다……혁명이 앞으로 더욱 발전함에 따라 쁠럭의 오합지군(烏合之軍)은 일부분은 까제트편으로 뒤로 물러가며 일부분은 우리 당 편으로 전진하여 불피코 쇠약해 질 것이라는 것은 의심할 나위도 없는 것이다。그러나 아직은……아직은 이 쁠럭의 수령들이「승리」로써 자위할 수 있는 것이다」(一一七—一一八페지)

쓰딸린 동지의 六월 론문인「어제와 오늘」「분산적 시위 운동을 반대함」과「뻬뜨로그라드의 전체 근로자, 전체 로동자 및 병사들에게 고함」이라는 호소문은 볼쉐위크들의 七월 시위 준비를 위한 것이며 제一차 전로 쏘베트 대회에서의 타협주의적 정당들의 정책을 폭로시킴을 위한 것이다。

볼쉐위크들은 시가에로 나서라고 열렬히 희망하였던 뻬뜨노그라드의 로동자들과 병사들의 평화적 시위를 六월 十일에 결정하였고 쏘베트 대회로 하여금 주권을 획득하는 것을 밑으로부터의 압력, 즉 대중 자체의 압력으로 추동시키는 목적을 세웠다。타협주의적 정당들의 두목들은 닥쳐오는 뻬뜨노그라드의 로동자들과 병사들의 시위를 알게 되고 볼쉐위끼적 계획에 관한 외침을 높이고 대회로 하여금 시위를 금지하게끔 하였고 대회의 결정을 실행하지 않은 경우는 쏘베트로부터

불쉐위크들을 구축하겠다고 위협하였다。그러나 대중들의 압력에 비추어 에쎄르들과 멘쉐위크들은 시위를 六월 十八일도 정하지 않을 수는 없었다。에쎄르들과 멘쉐위크들은 이 시위를 림시 정부를 신임한다는 구호와 그 날에 전선에서 예정되었던 공격 시작을 지지하는 구호 밑에서 실행하려고 시도하였다。

불쉐위끼 당 중앙 위원회는 레닌과 쓰딸린의 발의에 의하여 대회의 의사에 복종하려는 결정을 채택하고 六월 十일로 정한 시위를 중지하였다。그러나 림시 정부에 대한 대중들의 자연 발생적 불만은 매시로 장성하며 폭발하려 하였을 때 이러한 결정을 실천하기에 매우 곤난하였다。

「분산적 시위 운동을 반대함」이라는 론문에서 쓰딸린 동지는 六월 十八일에 개별적 시、구와 련대의 분산적 시위를 조직하려 하였던 무정부주의자들의 시도를 결정적으로 반대하였다。불쉐위크들은 대중들의 이러한 시위를 방지하는 데에 성공하였다。

六월 十七일「쁘라우다」지에서는 쓰딸린 동지가 쓴「뻬뜨로그라드 전체 근로자、전체 로동자 및 병사들에게 고함」이라는 호소문이 발표되었다。그것은「모든 주권은 쏘베트에로!」「十명의 자본가 대신을 타도하라!」「진공 정책을 반대하라!」「산업에 대한 로동자들의 권리」「빵、평화、자유를 획득하자!」라는 불쉐위크들의 구호 밑에서 六월 十八일 시위에 나가자고 호소하였다。

四十만 명의 로동자들과 병사들이 뻬뜨로그라드 시가에로 나섰고 그들의 압도적 대다수는 불쉐위끼적 구호 밑에서 시위하였던 것이다。

六월 二十일에「시위 운동에서」라는 론문으로 쓰딸린 동지는 로씨야 전체 근로자들에게 뻬뜨로그라드 六월 시위의 의의와 결과를 알리었다。그 시위는 쓰딸린 동지가 썼던 바와 같이 혁명적 병사들을 지도하였던 혁명적 로동자들의 진실로 프로레타리아적 시위였다。하나의 공장、하나의 제조소、하나의 련대라도「림시 정부를 신임한다」라는 구호를 내세우지 아니하였다。

「간단히 말하면 대다수의 시위 운동 참가자들은 정부를 신임하지 않았는데 멘쉐위크들과 에쎄르들은「대세에 반대하여」나서기를 몹씨 두려워 하였다는 이것이야 말로 시위 운동의 일반적 흐름이었다」(一二九페지)

쓰딸린 동지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특히 지적하였다。즉「부르죠아와의 타협 정책에 대한 불신임을 솔직하게 표현했으며 시위 운동은 우리 당의 혁명적 구호 밑에서 진행되었다」(一三〇페지)

뻬뜨로그라드의 七월 사변에 관한 쓰딸린 동지의 론문과 연설은 특출하게 정치적 및 리론적 흥미를 가졌다。전집 제三권에 발표된 그러한 문헌 중에서 독자들이

잘 알지 못하는 一九一七년 七월 十六——二十일의 로씨야 사회민주 노동당(불쉐위끼)뻬뜨로그라드당 단체의 긴급 련석 회의에서의 쓰딸린의 연설들이 있으며 또「무슨 일이 생겼던가?」『반혁명의 승리』와『뻬뜨로그라드의 전체 근로자 로동자 병사들에게』라는 호소문이 있다。

六월 사변에 있어서 불쉐위끼 당 중앙 위원회는 전로씨야에서 혁명적 위기가 아직 성숙되지 않고 뻬뜨로그라드 시내에서의 진출은 성공의 기회를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대중들의 무장 진출을 방지하기 위하여서 모든 대책을 취하였던 것이다。그러나 그 진출은 방지될 수 없었다。

불쉐위크들의 뻬뜨로그라드 비상 대표회의에서 쓰딸린 동지는『진출은 벌어지고야 말았다。당은 수수방관할 수 있었을까? 사태가 더욱 심상치 않은 분란에 빠질 수 있으리라는 것을 타산한 이상 우리는 수수방관할 수가 없었다。프로레타리아트 당으로서 우리는 진출에 간섭해 가지고 그 진출에 평화적 및 조직적 성격을 부여하여 무장적 정권 박탈에 이르지 않도록 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것이다』(一三九페지)

에쎄르들과 멘쉐위크들은 수도의 시가를 시위자들의 피로 적시고 반혁명과 합동하여 불쉐위끼 당을 공격하였다。

반혁명은 혁명을 반대하는 출동을 개시하였다。

그날에 쓰딸린 동지는『그리하여 생활의 밑바닥으로부터는 정직하고 고결한 모든 것을 더럽히고 있던 흙물이 일어났다。

수색과 파괴、체포와 구타、고문과 살해、신문의 폐간과 단체의 해체、로동자의 무장 해제와 련대의 해대、휜란드 국회의 해산、자유의 압박、사형법 부활、파괴자 및 특수원들의 횡행、허위와 더러운 비방——이 모든 것은 에쎄르와 멘쉐위크들의 침묵한 동의에 의한 것이니 반혁명의 첫 걸음은 과연 이러한 것이다』(一七九페지)라고 썼다。

당은 자기의 령도자 레닌을 깊은 지하에서 보호하였다。쓰딸닌 동지가 레닌의 생명을 구하는 데 특히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뻬뜨로그라드에서 수개의 비밀 근거지를 변경한 후 쓰딸린 동지는 七월 十일에 라쓰리브 정거장 근교에 브·이·레닌을 모시고 一월 말에는 레닌을 휜랜드에로의 이전을 조직하였다。

이것은 당 생활에 있어서 곤난한 날이었다。그러나 불쉐위크들은 락담하지 아니하였다。레닌과 쓰딸린이 고무한 그들은 혁명의 새로운 앙양이 닥쳐오는 것을 믿었다。

쓰딸린이 썼던 바와 같이「혁명은 죽지 않았다。혁명은 새로운 지지자들을 모으며 새로운 힘을 가다듬어 적에 향하여 돌진하기 위하여 숨어 있을 뿐이다」(一八三페지)

七월 二十四일에 쓰딸린 동지는, 쓰기를『볼쉐위즘은 숙청되고 매장되었다고들 말하고 있다。

무덤 파는 신사 제군들은 너무나 일찌기 우리를 매장하고 있다。우리는 아직도 살아 있으며 부르죠아지가 우리들의 목소리에 경아하며 전률하는 것이 한두번만이 아니다』(一八七페지)

쓰딸린 동지는 로씨야 반혁명이 고립되지 않고 랴부신스키, 꼬노왈로브, 리보브, 밀류꼬브 등의 뒤에는 영불과 미국의 자본가들이 서고 있다는 것을 로동자들과 농민들에게 회상시키었던 것이 한두번만이 아니었다。쓰딸린 동지는 로씨야 자본가들과 지주들과 림시정부의 영·불 제국주의와 가장 긴밀한 의존 관계를 보여주고 서구라파 제국주의가 로씨야를 식민지로 예속화하는 실천적 위협에 대하여 로씨야의 각성있는 로동자들과 혁명적 농민들에게 예고하였다。一九一七년 七월 二十四일『로동자와 병사』지에 발표된『삐뜨로그라드의 전체 근로자 로동자 병사들에게』라는 호소문에서 쓰딸린 동지는 그 위협의 실질성을 남김없이 반표하였다。

쓰딸린 동지는 쓰기를『그 한개의 길은 전쟁을 계속하며 앞으로 더「공격전」을 하는 것인데 그 때에는 내외채(內外債)로써 돈을 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정권을 반혁명 부르죠아지에게 넘겨주게 될 것이다。왜냐하면 그렇지 않고서는 부르죠아지는 정부에 참가치 않을 것이며, 내채(內債)는 성립될 수 없는 것이며, 영미는 크레지트를 거부할 것이기 때문이다。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국가를「구원」한다는 것은 로씨야 및「동맹국」의 제국주의적 이리떼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전비(戰費)를 로동자와 농민의 희생으로써 지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다른 한개의 길은 혁명을 일층 더 추진시킴으로써 농민에게 토지를 넘겨주며 산업에 있어서 로동자의 통제를 설정하며 붕괴되어가는 인민 경제를 자본가 및 지주들의 리익을 희생으로 하여 정돈하기 위하여 정권을 로동자 및 빈농의 손에 넘기며 민주주의적 강화 조약을 선포하며 전쟁을 중지하는 길이다。

첫째 길은 근로자에 대한 유산 계급의 정권을 강화하며 로씨야를 영 미 불의 식민지로 전화시키는 데 이르게 한다』(一七七—一七八페지)

림시 정부와 에쎄르와 멘쉐위끼의 정당은 쓰딸린 동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그 첫길 즉 반혁명적 타협의 길, 로씨야를 식민지화하는 길을 선택하였다。

쓰딸린 동지는 로씨야 반혁명 뒤에 서고 있는 미 영 제국주의자들의 음모에 가장 깊은 주의를 돌리었다。六월 사변시에 혁명이 림시적 패배를 당하였고 반혁명은 승리하였다고 떠들 때에 쓰딸린 동지는 반혁명이 승리할 수 있는 수개의 원인 중에 반혁명 음모에서 영국 제국주의자들이 직접 참가하였던 것을 지적하였다。쓰딸린 동지는 삐뜨로그라드 당 단체의 비상 대표 회의에서 연설하기를『진지한 주목을 돌릴만한 약간의 재료에 의하면 여기에 있어서는……영국 대사 뷰케넨의……술책이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一五一페지)

『미국의 수十억 차관』이라는 론문에서 쓰딸린 동지는 로씨야 혁명을 질식시키려는 기도에서 미국 제국주의자들의 적극적 참가를 로씨야의 로동자들과 인민들에게 다음과 같이 천명하였다。

『로씨야 혁명은 자기들의 전과를 고수하기 위하여 전력을 다하고 있으며 그 반면에 제국주의는 이 혁명을 말살하려고 애쓰는 이 순간에 있어서 미국 자본은 로씨야 혁명을 종국적으로 진압하며 그리하여 서방에서 확대되고 있는 혁명 운동을 파탄시키기 위하여 께렌쓰끼—밀류꼬브—쩨레쩰리 련합에다가 수十억 루블을 공급해 주고 있는 것이다』(三一一페지)

七월 사변시에 승리한 반혁명은 국내에서 성장하는 민족 해방 운동을 속박하는 일련의 대책을 취하였으며 그와 동시에 로씨야 및 영 불 제국주의자들은 볼쉐위크들이 로씨야를 분할하며 나라를 망하게 하는 듯이 로골적인 중상 잡빠니아를 개시하였다。

『반혁명과 로씨야의 제민족』이라는 론문에서 쓰딸린 동지는 이러한 중상을 폭로시키었고 가장 위대한 애국심으로 침투한 볼쉐위크들의 민족적 강령의 본질을 또다시 진술하였다。

『우리는 민족들이 한개의 국가적 통일체로 련합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우리는 대국가들이 소국가들로 분렬되는 것을 찬동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왜냐하면 소국가들이 대국가들로 련합되는 것은 사회주의를 실현하는 사업을 쉽게 하여 주는 조건의 하나임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련합이 자원적인 것으로 될 것을 절대로 주장하는 바이다。그 리유는 오직 이러한 련합만이 진정하며 확고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렇게 하기 위하여서는 우선 로씨야의 제민족이 로씨야로부터 분리까지라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결권을 그들에게 완전히 무조건적으로 인정하여 줄 필요가 있는 것이다』(二七二—二七三페지)

쓰딸린 동지가 지적한 바와 같이 이러한 정책만이 인민들의 신임과 친선을 강화할 수 있는 것이다。

그 론문에서 쓰딸린 동지는 진실한 해방에로의 로씨야 인민들의 유일한 길을 또다시 알려주었던 것이다。

즉『혁명의 승리—이것이야말로 로씨야 제민족이 민족적 압박으로부터 해방되는 유일한 길이다。

결론은 하나이다。즉 민족적 압박으로부터의 해방에 대한 문제는 정권에 관한 문제인 것이다。민족적 압박의 근원은 지주와 제국주의적 부르죠아지의 지배에 잠재하는 것이다。정권을 프로레타리아트와 혁명적 농민들의 수중에 넘겨 준다는 것은 로씨야의 민족들이 민

족적 압박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로써야 제민족은 정권을 위한 로동자들의 혁명적 투쟁을 지지하는가 —— 그 때에는 그들은 해방을 얻을 것이다。그들은 그것을 지지하지 않는가 —— 그 때에는 그들은 자기가 자기의 귀를 볼 수 없듯이 해방을 보지 못할 것이다」(二七四페지)

페뜨로그라드 볼쉐위크들의 七월 비상 회의에서 연설함에 있어서 쓰딸린 동지는 국내 주권의 七월 위기의 과정과 원인과 七월 사변 후 국내 정치적 정세에서의 중요한 정변을 깊이 분석하였다。쓰딸린 동지가 말한 바와 같이 당면의 시기에 있어서 주권의 위기가 특정으로 되고 있다。

위기는 주권을 위한 계급의 투쟁이라면 쓰딸린 동지가 말한 바와 같이 우리 맑쓰주의자들은 이때에 어떠한 계급이 주권까지 오르게 하는가? 라는 문제에 대답하여야 한다。「제사실은 주권을 향하여 로동 계급이 일어서고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부르죠아 계급은 싸움도 없이 로동 계급이 주권에 도달하는 것을 용허하지 않으리라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로써야 주민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소부르죠아는 혹은 우리와 혹은 까제트들과 단결하면서 동요하는 것이며 이리함으로써 저울판 위에 마지막 저울추를 던지는 것이다」(一五○페지)。현재는 부르죠아 전선의 혁명이 전선보다 며 잘 조직되고 있기 때문에 부르죠아가 승리하였다。「그리고 우리가 —— 쓰딸린 동지는 말하였다 —— 부르죠아지에 대하여 결정적인 전투를 개시할 수 있는 우리에게 유리한 시기가 닥쳐오리라는 것도 역시 명백한 사실이다」(一五二페지)

쓰딸린 동지는 로써야에서 프로레타리아트 독재가 수립되는 가능성에 대한 의심을 전파하였던 자들을 열렬하게 공격하였다。

「프로레타리아트가 주민의 소수인 때문에 프로레타리아트 독재가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동지들은 다수의 려량이라는 것을 기계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쏘베트들은 이 쏘베트들에 의하여 조직된 다만 二천만명을 대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조직성에 의하여 주민 전체를 이끌고 나아가고 있지 않은가, 경제적 붕괴의 혼란을 타파할 수 있는 조직된 력량 뒤에는 전체 주민이 따라갈 것이다」(一五九페지)

쓰딸린 동지는 벌써 무홈한 것으로 되지 않는 소부르죠아의 급속한 분해를 국내 정치적 정세의 중요한 요소로서 지적하였다。즉「농촌에서는 투쟁이 벌어지고 있으며 현존하는 농민 대의원 쏘베트와 병립하여 새로운 전횡적 농민 대의원 쏘베트들이 조직되면서 있다。우리는 이 상승하는 빈농층의 원조를 기대하는 바이다。그 경제적 처지로 보아 그들만이 우리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一五九페지)

레닌과 쓰딸린은 프로레타리아트와 빈농민 동맹 정

책을 결정적으로 실천하는 것만이, 볼쉐위끼 당에게 에쎄르와 멘쉐위크들의 타협주의를 극복하게 하며, 부르죠아적 주권을 전복시키게 하며, 프로레타리아트의 주권을 수립하게 하며, 따라서 토지 문제를 근로 농민 대중들의 리익을 위하여 해결하는 것을 보장하게 하는 유력한 정치적 대군을 동원하는 가능성을 줄 수 있는 것이다。

다 아는 바와 같이 농촌의 중간층은 혁명과 반혁명 사이에서 동요하였다。이러한 동요는 에쎄르적 멘쉐위끼적 쏘베트들의 반혁명적 장관과 협의하여 볼쉐위크들을 반대하였던 七월 사변 시에 있어서 특히 치렬한 성격을 가졌다。

一九一七년 七월 二十七일「로동자와 병사」지에 발표된「헌법 제정 회의 선거에 제하여」라는 론문에서 쓰딸린 동지는「농민 대의원 쏘베트들은 자연「자유주의적 지주 및 자본가」와의 타협적 경향을 가지는 중농과 부농들에 의하여 주로 조직되고 있다。그들은 농촌의 프로레타리아적 및 반 프로레타리아적 분자들을 이끌고 나아가면서 그들을 타협주의적인 근로과들의 당과 사회 혁명당의 영향 하에 복종시키고 있다。농업 자본주의의 불충분한 발전과 농촌에서의 계급 투쟁의 불충분한 발전은 이러한 종류의 타협주의적 정책에 대해서 호조건을 지어주는 것이다。

우리 당의 당면한 파업은 빈농층을 근로과들과 사회 혁명당원들의 영향 하에서 해방시키며 그들을 도시 로동자들과의 형제적인 일가족으로 결속시키는 것이다」(一九二페지)

쓰딸린 동지는 볼쉐위끼 당 단체들이 자기의 모든 자유의 힘을 농촌에서의 정치적 공작에로 넘기라고 제의하였다。「즉 각면 각군 각선거구에는 남녀 빈농들로써 우리 당 그루빠들이 조직되어야만 할 것이며 이 그루빠들은 현내 산업 중심지에 있는 우리 당 위원회들과 련결되어야 할 것이다。위원회들의 파업은 그루빠들에게 선거에 대한 필요한 자료, 서적 및 사람들을 공급하는 것이다」(一九三페지)

우리 당의 중앙 기관지이며 레닌과 쓰딸린의 지도를 받았던 기관지는 매호에서 에쎄르적 멘쉐위끼적 지지를 받고 있는 련립 림시 정부의 반농민적 정책을 폭로시키었다。

七월 사변 직후에 쓴「무슨 일이 생겼던가?」라는 론문에서 농민들에게 다음과 같은 것을 쓰딸린 동지는 설명하였다。즉「완전한 인민 정권의 실현만이 농민들에게 땅을 줄 수 있으며 국내 경제 생활을 조정할 수 있고 고롱에서 신음하고 있는 구라파 인민들에게 그렇게도 필요한 평화를 보장할 수 있는 것이다」(一六五페지)

一九一七년 七월 二十四일「노동자와 병사」지에 기재된「페뜨로그라도의 전체 근로자 로동자 병사들에게」

라는 호소문에서 쓰딸린 동지는 부르죠아의 주구 멘쉐위크들과 에쎄르들의 반역을 폭로하면서 농민들에게 다음과 같이 호소하였다。

「농민들이여! 그대들의 수령들은 그대들의 기대를 저바렸다。그들은 반혁명의 뒤를 쫓아다녔고 그대들은 땅없는 채로 남아 있다。그것은 반혁명이 지배하고 있는 한 그대들은 지주의 땅을 얻을 수 없는 때문이다。로동자——이는 그대들의 유일한 충실한 동맹자이다。오로지 그들과의 동맹 하에서만이 땅과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로동자들 주위에 결속하라!」(一八四폐지)

쓰딸린 동지는 마치 근로 농민들의 리익을 보호하는 듯이 자칭하는 에쎄르당을 폭로하였다。「사회 혁명당내에서의 분공」이라는 론문에서 쓰딸린 동지가 썼던 바와 같이 이 정당은 보통 서구라파 부르죠아 급진당과 조금도 그 본질에 있어서 차이가 없다。「말하자면 불란서에서 어떤 것이라도 좋으니 부르죠아 급진당을 례노 들어보라。이 당은「급진 사회주의자」당이니「독립 사회주의자」당이니 기타 무슨 당이니 하면서 의연히 자기를 사회주의적 당이라고 운운하여 마지 않을 것이다」선거자들이나 대중이나「하층」의 앞에서 이 당들은 항상「좌익적인」언사를 내뿌리고 있는 것이며 특히 선거 전야와 또한 특히 그들의 경쟁자인 진정한 사회주의 당이 그들을 압박하는 때에 있어서 더욱 그러한 것이다。그와 동시에 바로 그「급진 사회주의자」당 또는「독립 사회주의자」당의「상층」대신들은「장부에 앉아서」자기의 선거자들의 사회주의적 요구에 대하여는 털끝만치도 고려치 않고 안심하고서 자기의 부르죠아적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三二五——三二六폐지)

에쎄르들은 자기의 지도자인 채로노프에게「농군 대신」의 명예를 만들려고 노력하였다。그의 임명에 대하여 얼마나 많은 여러 가지 약속들을 농민들에게 주었던 것인가。실지에 있어서 그 대신은 가장 성과있게 보호하였으나 그 보호는 농민이 받은 것이 아니라 지주이였다。쓰딸린 동지가 썼던 바와 같이「토지와 농민에 대하여 소리치기는 실지로 토지를 농민에게 넘겨주기보다 쉬운 것이였다。에쎄르들은 말로만은 농민들을 대하여「뼈아프게 생각하였지만」말로부터 실행으로 넘어갈 때가 닥쳐오고 보니 그들은 헌법 제정 회의의 뒤에 숨어서 지나가는 것을 낫게 생각하는 것이였다」(四三〇폐지)

쓰딸린 동지는 다른 어떠한 당과 마찬가지로 에쎄르당의 진실한 역할을 그 당의 언사와 약속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행위로 판단하는 것을 로동자들과 근로 농민들에게 가르치였다。

七월 사변은 국내의 정치적 정세를 근본적으로도 전변시키였다。투쟁의 새로운 조건 하에 있어서 당의 전술

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였다。

사회주의 혁명에 있어서 볼쉐위끼 당의 전술을 강구하며 결정하는 데 있어서 쓰딸린의 공적은 실로 크다。맑쓰주의적 변증법적 방법을 완전히 파악하고 있는 쓰딸린 동지는 레닌과 함께 전면으로 내세웠던 투쟁과 조직의 제형식은 그야말로 당면의 시기의 조건에 무엇보다 더욱 적합하고 있으며 수백만의 대중들이 볼쉐위끼 당의 혁명적 구호의 정당성을 자기의 경험으로 느끼게 하는 가능성을 얻고 있으며 따라서 수백만의 대중들이 부르죠아적 지주적 주권을 전복시키는 필요성과 불가피성을 인식시키는 것이었다。볼쉐위끼 당 제六차 대회에서 쓰딸린 동지가 진술한 연설은 창조적 맑쓰주의의 선명한 모범이다。그 연설에서는 쓰딸린 동지가 사회주의 혁명의 승리를 위한 투쟁의 새로운 조건에 있어서 당의 제과업과 전술을 정확하게 공식화 하였다。

정치적 정세에 관한 보고에서 쓰딸린 동지가 진술한 바와 같이 페트로그라드 七월 시위가 분산된 후 국내 정세가 근본적으로도 전변하고 따라서「우리의 정책도 또한 반드시 변경되어야 하겠다」(二二八폐지)

七월 사변 전에는 二중 주권이 존재하였고 그리고「우리는 정권이 평화적으로 쏘베트에 이관될 것을 주장했으며」、「…三월、四월、五월에 있은 쏘베트들의 매개 결정은 그것을 매번 권력으로써 담보할 수 있었기 때문에 법령으로 인정되었던 것이다」(二二八폐지)

이제는 七월 사변 후 二중 주권이 종식하고 제국주의적 부르죠아와 반혁명적 장관층의 통일 주권이 수립되었다。이제는 쏘베트는 무시를 당하고 있으며 분산되지 않은 것은 쏘베트들이 반혁명적 독재의 편리한 은폐물로서 필요하기 때문이다。이제는 프로레타리아트와 빈농민에게는 주권에 도달하는 유일한 길、수립된 부르죠아 독재를 무장적으로 전복하는 길만이 열리어 있었다。

쓰딸린 동지는 六차 당 대회에서「혁명의 평화적 시기는 끝났다。격투와 폭발의 시기가 닥쳐왔다」(二二九폐지)라고 말하였다。

멘쉐위크들과 에쎄르들이 지도하는 쏘베트들이 반혁명적인 림시 정부의 앞잡이의 역할을 하고 있는 이러한 조건에서「모든 주권은 쏘베트에로!」라는 구호는 림시로 철회되었다。

쓰딸린 동지는 쏘베트의 수중에로 주권을 넘기라는 구호를 철회하는 것이「쏘베트를 타도하자!」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수차 특별히 주장하였다。쏘베트 일반에 관한 일반적 문제가 아니고 에쎄르적 멘쉐위끼적 쏘베트에 관한 문제이다。「일반적으로 쏘베트들은 대중을 조직하는 가장 적절한 형태로 되어 있다。그러나 우리는 기관의 입을 빌어 말할 것이 아니라 계급적 내용을 지적해야 하는 것이며 대중으로

하여금 역시 형식과 내용을 분별할 수 있게끔 반드시 노력해야겠다……。

형식에 관한 문제가 기본적 문제를 즉 어느 계급의 수중에 정권이 이판되느나 하는 문제를 차단하지 말도록 해야 한다」(二三四——二三五페지)

볼쉐위끼 당의 당면한 구호로서는 쓰딸린 동지가 「제국주의적 부르죠아의 전복」의 구호를 제의하였다。이러한 구호의 실현은 다만 전로씨야 범위에서의 새로운 위력한 혁명의 왕성하는 조건에 있어서 만이 가능하였다。혁명의 새로운 왕성은 쓰딸린 동지가 제六차 당 대회에서 말씀하였던 바와 같이 아직도 혁명의 근본적 문제(토지, 로동자들의 관리, 평화, 주권 등에 관한 제문제)의 하나라도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가피하였던 것이다。혁명의 새로운 단계에 있어서 혁명 운동의 근본적 동력에 대하여 쓰딸린 동지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였다。

「어떤 동지들은 우리에게 있어서 자본주의가 미약하게 발전되었기 때문에 사회주의 혁명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공상적이라고 말하고 있다。만일 전쟁이 없었고 파괴가 없었고 또한 인민 경제의 자본주의적 조직의 토대들이 뒤흔들리지 않았다면 그들은 옳았을 수도 있는 것이다。경제 부면을 간섭하는 데 관한 문제는 전쟁의 조건 하에서는 모든 국가에서 불가피적인 문제로서 나서는 것이다。독일에 있어서도 이 문제가 역시 생활 자체에 의하여 제기되었으며 대중의 직접적이며 능동적인 참가 없이 해결되고 있는 것이다。그러나 우리 로씨야에 있어서는 문제가 다르다。우리에게 있어서는 파괴가 보다더 거대한 범위를 차지하게 되었다。다른 한편 우리에게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자유는 전쟁 조건 하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다음으로 또 로동자들의 거대한 조직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즉 우리에게 있어서는 례를 들면 뻬제르만 해도 六六%라는 조직된 금속 로동자들이 있었다。끝으로 로동자 병사 대의원 쏘베트 같은 광범한 조직체는 프로레타리아트에게 있어서 그 어디에도 있어 보지 못했으며 또한 없는 것이다。자유와 조직성의 최대 한도를 리용하는 로동자들이 정치적 자살을 감행하지 않고는 국내의 경제 생활을 사회주의적 변혁의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간섭하기를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은 잘 알 수 있는 일이다。로씨야는 구라파가 사회주의적 변혁을 「시작」할 때 까지 그것을 「기다려야」한다고 요구하는 것은 당치 않은 페단티즘(衒學)으로 되고 말 것이다。가능성을 더 많이 가진 나라가 「시작」하는 것이다……」(二二四——二二五페지)

쓰딸린 동지는 「정치 정세에 관하여」라는 대회의 결정서 제九항을 수정하려는 프로쯔끼스트인 쁘레오브라젠쓰끼의 제의, 즉 「그 주권을 평화의 방향으로 또한 서방에 프로레타리아 혁명이 존재하는 조건 하에서는

사회주의의 방향으로 인도하기 위하여」(二四一페지)라는 수정안을 적극 반대하였다。

그 대회에서 쓰딸린 동지가 선포하기를 「나는 그러한 수정을 반대하는 바이다。즉 로씨야가 사회주의에로 향하는 길을 개척하는 나라로 될 수 었다는 가능성이 없는 것이 아니다。지금까지 어느 한나라도 전쟁의 조건 하에서 로씨야와 같은 그러한 자유를 리용하지 못했으며 생산에 대한 로동자들의 통제를 실시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못하였던 것이다。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혁명의 토대는 프로레타리아트가 완전한 고립 상태에서 부르죠아지와 서로 대립하고 있는 서구라파에 비하여 더욱 광범한 것이다。우리에게 있어서는 빈농층이 로동자들을 지지하고 있다。끝으로 독일에 있어서는 국가 정권 기관이 우리의 부르죠아지——우리의 부르죠아지 그 자체가 구라파 자본의 납공자(納貢者)인 것이다——의 불완전한 기관보다 비상히 훌륭하게 활동하고 있는 것이다。오직 구라파만이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줄 수 있다는 그러한 낡아빠진 관념을 내버려야 하겠다。맑쓰주의는 독단적인 것과 창조적인 것이 있다。나는 그 후자의 립장에 서는 것이다」(二四二페지)

대회는 쁘레오브라젠쓰끼의 제의를 거부하고 쓰딸린 동지가 작성한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한 국가에서 사회주의의 승리의 가능성에 대한 레닌적 리론에서부터 출발한 볼쉐위크들은 제六차 대회에서 레닌의 「당면한 파국과 그것과 어떻게 투쟁하여야 하는가」라는 저명한 론문에서 강구한 경제 강령을 채택하였다。

레닌은 쓰기를

「공화국과 민주주의를 혁명적 방법으로 쟁취한 二十세기의 로씨야에서 앞으로 전진하는 것은 사회주의에로 접근하지 않고 또 사회주의에로의 한걸음 한걸음 나가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레닌 전집 二一권 一八七페지)

쓰딸린 동지는 제六차 당 대회에서의 연설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국내 경제 상태의 근본적 개혁은 다만 부르죠아 독재를 혁명적으로 숙청하고 주권이 프로레타리아트 수중에 들어간 후에만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였다。제六차 당 대회는 지주 계급의 경제적 세력을 숙청하는 것과 농촌에서의 부농의 세력을 억제하는 대책으로서 지주 토지의 몰수와 국내 전 토지의 국유화의 필요성을 결정하였다。

지주 토지의 몰수와 토지 국유화는 수천 수백만의 농민 대중들의 혁명적 진출을 앙양시켰다。이러한 구호 밑에서 강력한 농민 봉기가 전개되고 있었다。

대회는 생산에 대한 로동자들의 통제와 은행 및 중요 산업의 국유화의 의의를 강조했으며 그것은 사회주의적 계획 경제에로의 이행을 위한 토대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대책으로서 결정하였다。

볼쉐위끼 당 제六차 대회는 쓰딸린 동지의 인도 밑에서 새로운 레닌적 방침을 채택하고 무장 폭동에로, 사회주의 혁명에로, 프로레타리아트 독재의 쟁취에로 당을 돌렸다。

× × ×

대중들의 혁명적 동원 시기는 볼쉐위끼 당 제六차 대회 개막 후 계속하고 있었다。그 대회에서 쓰딸린 동지가 제출한 국내 정치적 정세의 분석은 격렬히 전개하는 사변에서 전면적으로 확증되었다。부르죠아와 그 주구들은 반혁명적인 군사적 독재를 국내에서 설립하는 맹렬한 준비를 개시하였다。혁명은 반혁명파의 격렬한 투쟁을 통하여 힘을 선었다。쓰딸린 동지는 반혁명의 가장 복잡한 음모까지 정확한 혁명의 능수자로서 우수한 기술로써 제때에 폭로하였던 것이다。사회—제국주의자 에쎄르와 멘쉐위크들에 대한 쓰딸린 동지의 타격은 점점 더 격렬하였다。

「자본가들은 무엇을 욕망하는가」「모쓰크바 협의회를 반대하여」「모쓰크바 협의회는 어디로 인도하는가?」「모쓰크바 협의회의 총화」라는 론문에서 쓰딸린 동지는 반혁명의 기동 정책인 협조 의회를 수립하려는 기도를 폭로하였다。반혁명은 소위「모쓰크바 협의회」의 소집에 관한 제의를 하면서 인민의 의사를 부르죠아 지주의 상층의 의사로 슬쩍 바꾸려고 하였다。

「상인、산업가、지주、운행가、짜리 국회 의원、이미 길들여 놓은 멘쉐위크들 및 에쎄르들을 성원으로 하여 협의회를 소집하며 그리고나서 이 협의회를「전 국민 회의」라고 선포하면서 그로부터 제국주의 및 반혁명의 정책에 대한 찬동을 받으며 전쟁의 중하를 로동자 농민의 어깨 위에 걸머지우려고 하는 바로 여기에 반혁명의「출구」가 있는 것이다」(二五三페지)

반혁명의 당면 기동 정책의 실질적 내용을 폭로하고 쓰딸린 동지는 반혁명의 음모의 위협에 대하여 로동계급의 주의를 환기시켰으며 반혁명의「대관식」을 수행하려는 음모를 분쇄할 것을 인민 대중들에게 호소하였다。왜 그러냐 하면 이러한 은폐물 밑에서 국내 군사적 독재의 형식화가 로골적으로 준비되였고 독재자의 후보자로는 돈과 원조를 약속하며 지체없이 혁명을 반대하여 나서라고 요구하는 은행가들、상인들、공장주들과 영국과 불란서의「동맹」군사단의 대표자들은 꼬르닐로브 장군의 이름을 부르게 되었다。

전선에서의 패배에 관한 론문과「도발의 시대」라는 론문에서 쓰딸린 동지는 로씨야 반혁명의 새로운 기동 정책인 도발을 폭로하였다。「도발은 반혁명의 이미 시험된 방법이다。」라고 쓰딸린 동지는 썼다。

군사적 독재를 수립하고 혁명을 결정적으로 격멸시키는 목적으로 로씨야 및 영 불 제국주의자들로 고무되는 반혁명적 장관층은 미리 작성한 계획에 의하여 전선의 이런 혹은 저런 구역에서「전패」를 조직하였다。이것은 볼쉐위크들과 혁명적 병사들에게 죄를 씌우고 그들을 반역으로 비난하고 이럼으로 볼쉐위크들과 급속히 성숙하는 사회주의 혁명의 력량을 결정적으로 격파하는 때에 국내 사회 여론을 조성하려는 목적이었다。

八월 二十五일 부르죠아 지주 로씨야와 구라파의 제국주의적「동맹」으로 고무된 꼬르닐로브는 제三 기병군단으로 혁명의 성채인 뻬뜨로그라드에로 진격하였다。꼬르닐로브의 반혁명 음모는 볼쉐위크들에게 있어서 뜻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다。레닌과 쓰딸린의 호소에 의하여 볼쉐위끼 당은 꼬르닐로브를 반대하여 인민 대중을 궐기시키고 반혁명 음모를 진압하였다。

쓰딸린 동지는 꼬르닐로브의 음모의 기원을 밝히면서 이 음모에서 영 불 제국주의자들이 참가한 것을 지적하였다。一九一七년 九월 十二일「로동자의 길」지에 발표된「외국인들과 꼬르닐로브의 음모」라는 론문에서 쓰딸린 동지는 다음과 같이 썼다。

「영국으로부터 곧 바로 모쓰크바 협의회에 왔다가 그 후 참모부를「시찰하고 간」론돈의「타임쓰」및 제국주의의 도당의 앞잡이인 알라진이 꼬르닐로브의 반혁명 음모의 중심 인물이었으며 주역이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로씨야에 있는 가장 유명한 령사관의 유명한 모 대표자가 자기의 비호자들의 금고로부터 거액의 보조금을 갈레진 및 기타의 도당들에게 주어 그들과의 련락을 공고히 하면서 이미 六월에 그들의 음모와 확정적으로 련락을 맺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타임쓰」와「탄」이 혁명적 위원회들과 쏘베트들을 욕설하며 비난하면서 꼬르닐로브 반혁명 실패에 대하여 자기의 불만을 감추지 않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三七九페지)

꼬르닐로브파에 대한 격파는 쓰딸린 동지가 지적한 바와 같이 혁명과 반혁명의 세력 배치를 판적으로 표명하며 명확히 하였고 반혁명 진영의 운명을 예고하였으며 볼쉐위끼 당은 이미 반혁명의 어떠한 음모라도 분쇄할 수 있는 혁명의 결정적 력량으로 되었다는 것을 보이어 주었다。

꼬르닐로브파의 격파로서 대중의 혁명적 동원 시기는 종식되었고 혁명은 공격 시기에 들어섰다。一九一七년 八월 말과 九월 초시는 반혁명파의 투쟁에서 부활한 쏘베트들이 후방에서 볼쉐위끼화하는 것과 병사 위원회가 전선에서 볼쉐위끼화하는 것으로 특징되고 있다。대중 속에서의 타협주의자들의 영향은 날로 없어져 갔다。

광범한 빈농민 대중들은 볼쉐위크들 주위에 점점 더 튼튼히 뭉쳤다。꼬르닐로브가 격파된 후 중농민은 볼쉐위끼 당의 편으로 결정적으로 돌아서며 빈농민과 동맹하기 시작하였다。도처에서 토지 혁명이 전개되었다。

프르닐로브파의 격파는 농민 운동의 치렬한 성장을 야기시키였다。 귀족들의 둥지를 파괴하며 방화하는 것과 지주의 토지와 농구를 강제적으로 몰수하는 것과 지주 토지를 분배하는 것은 도처에서 발생되었던 형상이었다。 림시 정부는 항쟁에 궐기한 농민들을 토벌하려고 동원하였으나 이러한 음모는 농민들을 토벌하기에 파견된 군대가 동요하였기 때문에 실패에 돌아갔다。

국내에서는 장관층의 반혁명과 림시 정부를 반대하여 전쟁 중지、지주 토지 몰수、민족적 불평등의 폐지 등의 구호 밑에서 피압박 민족들의 근로 대중의 장엄한 운동이 전개되었다。

프로레타리아트의 사회주의적 혁명과 토지를 위한 농민들의 민주주의적 투쟁과 합류하여 민족 해방 운동과 련결되었다。

볼쉐위크들은 국내 모든 주권을 쏘베트들에게 넘길 목적을 가진、림시 정부를 반대하는 폭동에로의 호소를 의미한 구호、즉「모든 주권은 쏘베트에로!」라는 구호를 또 다시 내세웠다。

레닌과 쓰딸린은 사회주의적 혁명에 향하여 당과 로동 계급을 용감하고도 자신있게 전결하고도 물샐틈 없이 지도하였던 것이다。 九월 중순에 볼쉐위끼 당 중앙 위원회는「볼쉐위크들은 주권을 장악하여야 한다」「맑쓰주의자와 폭동」이라는 레닌의 력사적 서한을 심의하였다。 중앙 위원회 회의 석상에서 반역자 까메네브는 레닌의 서한을 소각할 것을 요구하였다。 쓰딸린 동지는 까메네브를 반대하여 레닌의 서한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요한 당 단체들에 서한을 보낼 것을 제의하였고 그 제의가 실행되었다。

레닌과 함께 쓰딸린 동지는 十월 무장 폭동의 준비와 실행의 전체 사업을 직접 지도하였다。

一九一七년 十월 十일 당 중앙 위원회는 무장 폭동에 관한 레닌의 결의를 채택하고 폭동의 지도를 위하여 레닌과 쓰딸린을 선두로 한 당 중앙이 선출되었다。 그 날에 쓰딸린 동지는「반혁명은 동원되고 있다。 반격에로 준비하라」라는 론문을「로동자의 길」지에 기재하였다。 쓰딸린 동지는 반혁명을「대표하는 림시 정부가 영 불 및 미국 제국주의의 적극적 참가 밑에서 새로운 프르닐로브 음모를 준비한다고 로씨야 로동 계급에게 경고하였다。 쓰딸린 동지가 쓴 바와 같이 첫 프르닐로브적 음모가 분쇄되었으나 반혁명은 격멸되지 않았고 그가 께렌쓰끼 정부 뒤에 숨어 새로운 진지 위에서 공고히 하고 있었다。 쓰딸린 동지가 지적한 바와 같이 반혁명의 첫 진출은 로동자들과 병사들의 힘으로、후방에서는 쏘베트들의 힘으로、전선에서는 병사 위원회의 힘으로 분쇄되었던 것이다。

「쏘베트와 위원회들은 반혁명의 제二 진출이 위대한 혁명의 전체 위력으로써 일소되게끔 모든 대책을 받드시 취하여야 한다」(四七九페지)라고 쓰딸린은 말하였다。

一九一七년 十월 중순에 기재된「쏘베트 주권」이라는 저명한 론문은 쏘베트 주권의 본질에 관한 문제와 새로운 쏘베트적 국가 기구를 창조하는 필요성에 관한 문제를 취급하였던 것이다。

「정권을 쏘베트에 넘겨 준다는 것은「동 종류의」민주주의 정부를 조직하며、「사회주의적」대신들로써 새「내각」을 조직하며、전반적으로 림시 정부의 인적 구성에 대하여「중대한 변경」을 일으키게 됨을 의미한다고들 말한다。그러나 이것은 옳지 않다。 여기에서 문제는 림시 정부의 일부 성원들을 다른 인민들로써 교체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새로운 혁명적 계급들이 국내에서 생활의 주인으로 되어야 한다는 데 있다。 문제는 정권이 프로레타리아트와 혁명적 농민의 수중으로 넘어가는 데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하여는 다만 정부를 교체하는 것만으로는 아직도 대단히 부족하다。 이를 위하여는 우선 정부의 모든 부국(部局)과 기관들에서 프르닐로브 도당을 모조리 구축하며 거기에 로동 계급과 농민층의 헌신적 인물들을 배치함으로써 이를 근본적으로 청소할 필요가 있다。 오직 그때에만、오직 이러한 경우에만「중앙과 지방에서」정권이 쏘베트에로 넘어간다고 능히 말할 수 있을 것이다」(四八六—四八七페지)

「정권을 쏘베트에로——이것은 후방과 전선에서 모든 정부 기관들을 하부로부터 상부에 이르기까지 근본적으로 청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四八八페지)

「정권을 쏘베트에로——이것은 도시와 농촌에서、군대와 함대에서、「부국」과「기관」들에서、철도와 우편—전신 기관들에서「정권 대표자」들을 선거하며 경질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권을 쏘베트에로——이것은 프로레타리아트와 혁명적 농민층의 독재를 의미한다」(四八八페지)

쓰딸린 동지는 프로레타리아트와 혁명적 근로 농민들의 독재는 제국주의적 부르죠아 독재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명시하였다。

「프로레타리아트 및 혁명적 농민의 독재는 민주주의적 평화를 위하여 생산과 분배에 있어서의 로동자에 의한 통제를 위하며 농민에게 토지를 주며 인민에게 빵을 주기 위한——소수 착취자에 대한、즉 지주 및 자본가들에 대한、투기업자 및 은행가들에 대한 다수 근로자의 독재를 의미하는 것이다。

프로레타리아트 및 혁명적 농민의 독재는 음모와 리면적 공작이 없는 모든 사람의 안전에서 실현되는 공개적이며 대중적인 독재를 의미한다。 왜냐 하면 이러한 독재는 각종의「종업원 축소」의 방법으로써 실업을 첨예화시키는 공장 폐쇄자—자본가들과 또한 식료품가격을 높이며 기근 상태를 조성하는 은행가—투기업자들에 대하여는 용서가 없을 것이라는 것을 은폐할 필

요조차 없는 때문이다。

프로레타리아트 및 농민의 독재는 대중에 대한 억압이 없는 독재, 대중의 의사를 실현하는 독재, 이 대중에 대한 원쑤들의 의사를 억압하기 위한 독재를 의미하는 것이다」(四八八—四八九페지)

十월 十六일에 볼쉐위끼 당 중앙 위원회 확대 회의가 진행되었다。그 회의 석상에서 레닌과 쓰딸린은 무장 폭동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반역자 까메네브와 지노비예브의 출현을 격렬히 비판하였다。

「까메네브와 지노비예브가 제의하는 것은 객관적으로는 반혁명에게 준비되고 조직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어주는 것이다。우리는 끝없이 퇴각하기만 하면 혁명에 실패하고 말 것이다。왜 우리는 폭동일을 선택할 가능성과 또한 반 혁명으로 하여금 조직될 수 없도록 하는 제조건을 확보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인가?……

여기에는 두개의 로선이 있다。그 한개의 로선은 혁명의 승리에로 방향을 잡고 구라파에로 시선을 보내고 있으며, 두번째의 로선은 혁명을 믿지 않으며 다만 반정부 당으로 있는 것만을 타산하고 있다。뻬뜨로그라드 쏘베트는 어느듯 군대의 철거를 승인하기를 거부하면서 폭동의 도상에 서게 되었다。함대는 께렌쓰끼를 반대하여 나선 것만큼 이미 폭동을 일으키였다。따라서 우리는 반드시 확고하게 또한 철저하게 폭동의 도상에 서야 할 것이다」(五〇四—五〇五페지)

당 중앙 위원회는 무장 폭동에 관한 레닌의 력사적 결의안을 채택하고 쓰딸린 동지를 선두로한 무장 폭동을 지도하는 당 중앙 기관을 선출하였다。

당은 부르죠아적 정부를 직접 공격하고 전복시키는 데 만반의 준비 공작을 전개하였다。그와 함께 혁명의 강력하며 격렬하게 장성하는 새로운 제二차 파동으로써 반혁명과 부닥쳤다。반혁명은 자기의 력량을 분망하게 집합시키며, 출격 대오를 편성하며, 독일군에게 뻬뜨로그라드를 내어주려고 준비하며 께렌쓰끼 정부가 모쓰크바에로 피난할 데 대하여 준비하였다。까메네브와 지노비예브가 멘쉐위끼 기관지 「새로운 생활」을 통하여 로골적으로 나서고 금일에 폭동을 조직하려는 중앙 위원회의 결정을 원쑤들에게 알려준 후 혁명의 원쑤들은 즉시로 폭동을 예방하며 볼쉐위크들을 격파하기 위하여 온갖 대책을 취하기 시작하였다。전선에서부터 군대를 분망히 뻬뜨로그라드에로 이동하기 시작하였다。림시 정부는 쏘베트 제二차 대회가 개최될 전일에 스몰리를 공격하여 점령하고 볼쉐위끼 당 중앙 위원회를 격파하려고 하였다。그러나 레닌과 쓰딸린이 지도하는 사회주의적 혁명은 반혁명보다 앞서 나갔다。볼쉐위크들은 무장 폭동에 대한 준비를 완수하였으며 그리하여 十월 二十四일 폭동은 시작되었다。

十월 二十四일 「로동자의 길」지에 기재된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쓰딸린 동지의 론문은 로동자들과 병사들과 농민들과 전체 근로자들이 一九一七년 二월에 짜리를 전복시키고 주권을 자발적으로 지주와 자본가들에게 넘겨준 치명적 착오를 이제는 즉시 시정하라고 로동자들과 병사들과 농민들과 전체 근로자들에게 호소하였다。

「이 오유를 지금 곧 시정해야만 한다 ― 라고 쓰딸린은 썼다 ― 이제 앞으로 더 지체된다면 혁명의 모든 사업을 멸망에 빠지게 할 그러한 순간이 닥쳐왔다。

현존하는 지주 및 자본가들의 정부를 로동자 및 농민들의 새 정부로써 교체해야만 한다。

인민에 의하여 선거되지 않았으며 인민 앞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 현재의 자칭 정부를 인민에 의하여 승인되고 로동자 병사 및 농민의 대표자들로써 선거되고 이 대표자들 앞에서 책임을 지는 정부로 교체해야만 한다。

끼쉬낀—꼬노왈로브 정부를 로동자 병사 농민 대의원 쏘베트들의 정부로써 교체해야만 한다。

二월에 성취되지 못한 것은 지금 반드시 성취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오직 이와 같은 방법으로써만이 평화, 빵, 토지 및 자유가 전취될 것이다」(五一四페지)

레닌과 쓰딸린, 볼쉐위끼 당이 지도한 위대한 사회주의 十월 혁명은 승리하였다。一九一七년 十월 二十五일(十一월 七일)에 개최된 제二차 쏘베트 대회는 모든 주권이 쏘베트 수중에 넘어왔다는 것을 선포하고 평화와 토지에 관한 력사적 법령을 채택하였다。

× × ×

전집 제三권에 수록된 쓰딸린 동지의 론문과 연설은 볼쉐위즘의 산 력사이며 리론이다。그 론문과 연설에서는 사회주의 혁명을 위한 볼쉐위끼 당의 투쟁에 대한 력사의 가장 중요한 단계의 하나가 선명히 반영되고 있다。이 저작들은 맑쓰—레닌적 리론과 로동 계급의 혁명적 투쟁의 실천과의 끊을 수 없는 련결을 명백히 보여 주고 있으며 레닌, 쓰딸린적 제리론의 동원 조직적 위대한 역할을 명백히 보여 준다。

위대한 사회주의 十월 혁명을 실현한 세대는 레닌과 쓰딸린의 저작으로 교양되었으며 그 저작물에서 자기의 힘과 행동에 대한 자신심을 얻었고 우라 나라에서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길에 있어서 온갖 장애물을 극복하였다。쏘련 사람들의 새로운 세대도 레닌과 쓰딸린의 저작으로 공산주의에로의 길로 나가는 쏘베트 인민을 령도하는 자기의 볼쉐위끼 당과 자기 인민에 대한 무한한 충성과 고상한 사상의 정신으로 교양되고 있으며 교양될 것이다。

(「볼쉐위끼」지 一九四七년 一호에서)

쓰딸린과 사회주의 시대에 있어서의 민족어의 발전

뜨·쁘·룸쩨브

사회주의 十월 혁명은 자본주의 사회를 공산주의 사회로 개조하는 기초를 닦아 놓았다。우리 나라에서는 공산주의의 첫 단계인 사회주의가 건설되었다。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가 승리한 결과로 사회주의적 민족들이 형성되게 되었다。부르죠아적 민족이 발달한 것은 「상승하는 자본주의의 시대의 일이었으며、이 때 부르죠아가 봉건주의와 봉건적 분산성을 분쇄하고、민족을 하나로 뭉쳐 이를 굳게 고착시켰다」(이·브·쓰딸린 전집 제十一권 三三五—三三六 페지)。이러한 민족의 운명은 자본주의의 운명과 련결되어 있으며、자본주의의 몰락과 함께 이러한 민족은 그 자취를 감춰야 할 것이다。새로운 사회주의적 민족은 「낡은 부르죠아적 민족의 토대 위에、자본주의의 청산의 결과—민족을 사회주의의 정신으로 근본적으로 개조하는 방도에 의하여 발생하고 발달하였다」(동서 三三九 페지)

브·이·레닌은 민족 문제에 관한 맑쓰주의의 기본적 명제들을 발전시키면서、민족적 압박을 완전히 근절하고 부르죠아적 민족을 사회주의적 민족으로 개조하기 위하여는 계급을 근절하고 사회주의적 생산을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브·이·레닌 전집 제二十二권 三一一 페지 제四판 참조)

위대한 사회주의 十월 혁명이 승리한 결과로 세계 최초의 진정으로 민주주의적인 국가가 창건되게 되었다。그리고 우리 나라의 모든 공민에게 민주주의적 권리를 부여할 뿐만 아니라、그 권리의 현실적 실현을 보장하고 국가 기관의 일층 민주주의화와 더욱더 광범히 대중을 국가 기관에 끌어들이는 것을 보장하는 일은 오직 사회주의적 생산의 토대 위에서만 가능하였다。

「민주주의적 국가는—브·이·레닌은 말한다—무조건적으로 각종 언어의 완전한 자유를 인정하여야 하며、그 중 한 언어에 대하여 어떠한 특권이라도 허여하는 것을 거부하여야 한다。민주주의적 국가는 사회 생활의 어떠한 부면、어떠한 분야에 있어서나 단 하나의 인민이라도 이를 억압한다든가 다수결로 결정한다든가 하는 일은 허락하지 않는다」(브·이·레닌 전집 제二〇권 二〇四 페지 제四판)

오직 사회주의 十월 혁명만이 국가의 완전한 민주주의화의 과업을 해결하고 민족적 압박의 체계를 청산하여 우리 나라에서의 완전한 민족 평등을 실현하였다。

민족에 관한 레닌의 학설을 자기 저작에서 천재적으로 발전시키고 풍부히 한 것은 이·브·쓰딸린이었다。一九二九년에 집필한 「민족문제와 레닌주의」라는 론문에서 이·브·쓰딸린은 지적하기를 위대한 사회주의 十월 혁명으로 민족적 압박이 근절된 결과로 전에는 압박 받던 우리 나라의 민족들의 민족적 재생、그들의 민족 문화의 장성、우리 나라 민족들 사이의 우호적 관계의 공고화、사회주의의 건설 사업에서의 그들 사이의 협력의 회복 등이 실현되었다고 하였다。재생된 이 민족들은 이미 부르죠아에 의하여 지도되는 낡은 부르죠아적 민족이 아니라 낡은 민족의 폐허 위에 발생하고 근로 대중의 국제적 당에 의하여 지도되는 새로운 사회주의적 민족이다。

「이와 관련하여—쓰딸린 동지는 말한다—당은 우리 나라의 재생된 민족들을 도와주는 것、즉 그들의 민족 문화를 일으켜 세워 원기를 회복시키고 발전시키는 것、학교、극장 및 기타의 문화 기관을 모국어로 발전시키는 것、당、직업 동맹、협동 조합、국가 경리 기관 등의 각기관을 민족화하는 것、다시 말하면 구성에 있어서의 민족적인 것으로 만드는 것、당과 쏘베트의 민족 간부를 양성하는 것、그리고 당의 이러한 정책을 방해하려고 시도하는 온갖 요소—물론 그 수효는 적지만은—를 제거하는 것을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였다」(이·브·쓰딸린 전집 제十一권 三五三—三五四 페지)

이와 같이 사회주의의 승리는 민족어의 개화(開花)를 가져 온다。우리 나라는 조밀한 학교망(學校網)으로써 덮여 있으며 이 학교들에서 근로자들이 모국어로 학습하며、모국어를 소유한 교원들이 사업하고 있다。민족의 출판물、민족의 극장、영화 및 기타의 문화 기관들이 발전되고 있다。인민 대중의 모국어는 형식으로는 민족적이며 내용으로는 사회주의적인 문화의 도구로서 발달되고 완성되고 있다。

「……수백만의 인민 대중은—쓰딸린 동지는 말한다—문화 정치 경제의 발전의 사업에 있어서 오직 모국어、민족어에 의하여서만 성공할 수 있다」(동서 三五五 페지)

이리하여 사회주의의 시대는 인민 대중의 모국어의 개화와 이 모국어의 사회주의의 정신으로의 개조를 가져 온다。

사회주외의 승리는 광범한 인민 대중 사이에서의 사회주외적 문화 혁명을 의미한다。

사회주의 十월 혁명으로서 해방된 모든 인민들은 그 발전의 수준이 동일하지는 않았다. 례를 들면, 우크라이나, 백로씨야, 아르메니야, 그루지야 인민들은 오랜 력사를 가진 고유의 문화와 풍부한 문학을 가지고 있었으나, 까자흐, 끼르기즈, 네네츠, 에웬끼와 같은 인민들은 세계 문화의 보물고(寶物庫)에 귀중한 기여로 되는 고유의 민족적 전통과 고유의 구두(口頭)서사시, 서정시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문자는 전혀 가지지 못하고 있었다. 오직 사회주의 十월 혁명이 승리한 이후에야 이들 인민은 그들의 정장과 개화를 위한 무제한한 가능성을 얻게 되었다.

사회주의 공화국 중의 어느 한 나라를 들터라도 쏘베트 정권의 시기에 민족어와 민족 문화가 비약적으로 발흥한 증거로 된다. 례를 들면, 백로씨야는 과거의 락후되었던 나라로부터 선진적 공화국으로 전변하여 그 곳 주민의 지식 수준은 자본주의 국가의 그 것보다도 높게 되었다.

백로씨야의 진보적 인테리겐챠의 숙망은 실현되었다. 백로씨야 력사에서 처음으로 자기의 국가를 가지게 된 백로씨야 인민은, 그와 동시에 이 나라의 문화 및 정치 생활의 도구로 자기의 모국어를 공고화시키는 권리도 얻게 되었다. 수많은 우수한 맑쓰주의적 고전적 저술, 로씨야와 백로씨야 문학의 고전적 작품, 과학 및 과학 보급 서적, 그리고 신문들이 백로씨야어로 발간되게 되었다.

이로 말미암아 백로씨야어는, 특히 과학적 술어의 분야에서 풍부화되고 강력하게 발전되었다. 백로씨야 문어(文語)는 그가 장성하고 발전함에 있어 위대하고 강력한 로씨야어의 원조를 받았다.

사회주의 十월 혁명 이후에 백로씨야 문어의 진보가 얼마나 힘찬 것이었던가에 관하여는 백로씨야 인민이 위대한 쓰딸린에게 보낸 편지가 증명하여 준다.

쓰딸린에게 보내는 편지에 백로씨야 인민은 다음과 같이 썼다.

백로씨야 말은 학대를 받아
인민은 불행과 고난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날은 이 말로써
우리들과 함께
맑쓰와 엥겔쓰, 레닌과 그리고
령도자 당신이
이야기하여 주십니다.
우리들은 이 말을 열성과 진심으로
가꾸어 왔으며
이 말을 위하여 나치스 도배와
싸움도 하였습니다.
이재는 뿌쉬낀과 하이네를

루스따웰리와 고리끼를
발자끄와 똘스또이도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백로씨야 쏘베트 사회주의 공화국에 있어서의 인민 교육의 비약적 장성 및 문화의 개화와 관련하여, 백로씨야어는 과학과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술어로서——백로씨야 인민을 위대한 쏘베트 사회주의 공화국 동맹내의 다른 인민들과 합동시키는 새로운 어휘들로써 풍부하게 되었다. 오직 사회주의 十월 혁명 이후에 있어서만, 현대 과학의 요구에 합치되는 과학 및 기술상의 술어의 세분된 체계가 백로씨야에 창조되었다. 새로운 과학적 술어를 창조하는 사업에 있어 백로씨야어는 위대한 로씨야 인민의 풍부한 술어를 광범히 리용하였다. 백로씨야어의 어휘의 풍부화는 위대한 로씨야의 보물고로부터의 차용(借用)에 의하여서뿐만 아니라, 본래부터 백로씨야어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써 새로운 어휘를 만드는 방법에 의하여서도 이루어졌다. 우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의 승리는 새로운 사회주의적 로동 형식과 사회적 관계와 새로운 형태를 창조하였다. 생산과 생활에서 새로운 물건들이 나타나며, 이를 가리키기 위하여 새로운 명칭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과학적 술어의 체계는 새로운 백로씨야어의 술어로써 풍부하게 되었다.

자본주의적 발전 단계를 거치지 아니한 우리 나라의 수 많은 인민들 가운데에서는 그들의 모국어가 다소라도 문화적으로 세련된 인민 서사시를 가지지 못하고 있었을뿐만 아니라, 그 중 다수의 인민은 문자조차도 가지지 못하고 있었다.

쏘베트 정권은 일찌기 문자를 가지지 못하였던 언어들을 위하여 자모(字母)를 새로 만들어 주는 거대한 사업을 수행하였다. 례를 들면, 아와르어, 아바진어, 뚜윈어, 네네츠어, 츄꼬뜨어 등과 같은 六十七개의 민족적 자모가 작성되었다. 이 중 다수의 자모는, 처음에는 라틴 문자를 토대로 하여 제정되었었으나, 후에 로씨야 문자를 기초로 하여 다시 제정되어, 이것이 민족들의 문자를 고정시키는 행정을 훨씬 쉽게 만들고 또한 촉진시켰다.

쏘베트 정권이 수립된 이후, 전에는 문자 없던 언어들의 과학적 연구에 관한 거대한 사업이 수행되었으며, 이 사업은 쏘베트 언어학의 창시자 엔·야·마르의 지도 밑에서 진행되었다.

각종의 인민들을 대표하는 수 많은 언어학 간부가 양성되었다.

쏘베트 언어학은 연구 사업의 규모의 점에서나 또는 방법론적 기초의 점에서나, 세계에서 가장 선진적인 언어학으로 되었다.

여러 민족어와 쏘베트 언어학이 그가 발전함에 있어 거대한 성공을 거둔 것은 위대한 공산당과 인민들의 령

도자 쓰딸린 동지의 지도에 의하여서였다。

민족과 민족어에 관한 레닌의 학설을 발전시키고 풍부화시키면서 쓰딸린 동지는 사회주의 시대에 있어서의 모국어, 다시 말하면 민족어의 발전 및 개화의 기본 법칙은 그들의 사회주의적 개조에 있다고 지적하였다。

봉건주의에 대한 자본주의의 승리의 시대가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의 승리와 유일의 민족적 시장, 경제적 및 문화적 중심의 발생과 관련하여 인민으로 하여금 통일적인 민족으로 경제적으로 고착시키는 결과를 가져 온다면, 그리고 또한 자본주의와 긴밀히 련결된 이 민족이 부르죠아와 그의 민족주의적 당에 의하여 지도되는 까닭에 부르죠아적 민족이라 한다면, 자본주의에 대한 사회주의의 승리의 시대는 부르죠아적 민족을 사회주의적 민족으로 개조시키는 결과를 가져 온다。

「로동 계급과 그의 국제주의적 당은——쓰딸린 동지는 말한다——이 새로운 민족을 공고히 하고 이를 지도하는 력량이다。사회주의의 승리적 건설을 위하여 자본주의의 잔재를 소탕코자 민족 내부에서 로동 계급과 근로 농민이 동맹하는 것, 민족과 소수 민족의 동등권과 자유로운 발전을 위하여 민족적 압박의 잔재를 근절하는 것, 인민들 사이의 친선을 확보하고 국제주의를 공고화하기 위하여 민족주의의 잔재를 근절하는 것, 침략자의 정책과 침략자의 전쟁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압박받고 무권리한 모든 민족과 유일의 전선을 결성하는 것, ——이와 같은 것이 이 민족들의 정신적 및 사회 정치적 면모다。

이러한 민족을 사회주의적 민족이라고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이·브·쓰딸린 전집 제十一권 三三九페지)

봉건주의에 대한 자본주의의 승리는 봉건 사회를 부르죠아적으로 개조하는 과업을 내세웠으며, 그 곳에는 동일의 언어를 사용하는 주민을 하나의 부르죠아 국가로 합동시키는 과업도 포함되어 있었다。하나의 부르죠아 국가의 형성은 모국어를 문학에서 공고화하며 이를 더욱 발전시키는 결과를 가져 왔다。

자본주의의 발전의 초기에 있어서는 경제적으로 고정되는 데 성공한 부르죠아적 민족은 모국어를 문학에서 공고화하는 과업을 해결할 수 있었다。제국주의의 시대에 와서는 식민지 민족의 압박이 강화되었다。강대한 자본주의 국가의 제국주의적 부르죠아는 무례하게도 약소 민족의 자주권을 유린하기 시작하였다。제국주의적 압박은 민족 문화와 민족어의 발전에 장애가 되었다。

민족 문화와 민족어는 오직 사회주의의 기초 위에서만 일반 민주주의적 과업이 해결되는 때라야만 발전하고 완전한 개화에 도달할 수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이 과업이 사회주의 十월 혁명에

의하여 해결되었으며 이 혁명이 민족과 민족어의 동등권을 확정하고, 부르죠아적 민족을 사회주의적 민족으로 개조하는 새로운 력사적 과업을 제기하였던 것이다。

자본주의의 승리가 문학에서의 모국어의 승리를 결정하였다 하면, 사회주의의 승리는 사회주의적 이데올로기의 승리와 사회주의적 정신으로의 모국어의 근본적 개조를 결정한다。

쏘베트 정권이 수립된 이후 우리 나라에서는 볼쉐위끼적 당성과 사회주의적 의식을 기본으로 한 새로운 정신적 풍모를 갖춘 새로운 쏘베트적 인간, 공산주의의 적극적 건설자가 장성하였다。

사회주의의 시대의 쏘베트적 인간은 문화 제고의 강력한 도구인 언어를 사용하면서 이를 사회주의의 정신으로 개조한다。

언어의 사회주의적 개조는 언어 구조의 모든 면에서 여러 가지로 나타난다。어휘의 부면에서 이것은 사회주의 건설의 성공을 반영하는 언어의 어휘적 축적의 비약적 장성에, 낡은 어휘의 의미를 새로운 사회적, 사회주의적 내용으로 개변시키는 데 나타난다。「로동」이라는 단어가 과거에는 피로와 압박을 련상시키고 「고생한다」, 「욕본다」 등의 표현과 련결되어 있었다 하면 오늘날에 와서는 「로동」이라는 단어는 새로운 내용을 얻게 되었다。로동은 명예스러운 일, 영광스러운 일, 용감스럽고 영웅적인 일로 되었다。「쏘베트 동맹에서는 성실한 로동은 높이 평가되고 널리 장려된다——그·므·말렌꼬브 동지는 자기 보고에서 론술한다——생산 관계가 착취와 경쟁의 원칙 위에 근거하지 않고 창조적 협조와 사회주의적 경쟁의 원칙 위에 근거한 사회에서는 이와는 달리는 또한 될 수 없는 것이다」(그·므·말렌꼬브, 위대한 사회주의 十월 혁명 三十二주년 기념 보고)

「경쟁」이란 단어가 자본주의의 조건 밑에서는 적을 박멸하기 위한 무자비한 경쟁, 개인주의적 투쟁을 의미한다면, 사회주의의 나라에서는 이 단어가 인민 경제를 전반적으로 제고시키기 위한 투쟁에서의 근로자 집단의 공동적 노력을 표현한다。「자기 비판」이란 단어가 과거에는 「비판적으로 사색하는 인물」의 퇴폐적인 자기 분석을 표현하였다 하면, 오늘날에 와서는 「자기 비판」이란 단어는 새로운 사회주의적 내용으로 충만되어 사회주의 사회의 진보를 위한 투쟁에서 수백만 대중이 사용하는 날카로운 무기를 의미한다。

사회주의의 조건 밑에서의 민족어의 개화는 언어의 의미론적(意味論的) 체계를 사회주의의 정신으로 개편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방적 부르죠아 민족주의자들은 모국어의 옹호자라는 가면 밑에서 민족어 발전에 있어서의 부르죠아 민족주의적 로선을 고수하였다。이 로선이란 부르죠아 민

족주의자들이, 첫째로, 국제적인 술어, 그 중에도 사회 정치적 술어를 배제하고 이를 지방적인, 민족주의적인 술어로써 바꾸려고 노력하는 데 나타난다. 례를 들면 백로씨야 부르죠아 민족주의자들은 《интернационал》 (국제당), 《бiблiотека》 (도서관), 《оппонент》 (반대자), 《горизонт》 (지평선) 등과 같은 국제적 단어들을 《межнародня》, 《книгарня》, 《супярэчник》, 《поземь》 등의 인공적 소지방적 단어들로써 바꿀 것을 요구하였으며, 《пролетариат》 (프로레타리아트), 《беднякъ》 (빈농), 《соцсоревнование》 (사회주의 경쟁) 《саревнующийся》 (사회주의 경쟁자)등과 같은 사회적으로 분명하고 계급적으로 정확한 술어들을, 《галота》 《злыдень》 《идти на выпрадки》、《выпередник》 등의 부르죠아 민족주의적 어형으로 바꾸려고 시도하였다.

둘째로, 부르죠아 민족주의자들은 로씨야어의 의의를 백방으로 저하시키면서, 외국어에 의거하려고 노력하였다. 백로씨야와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자들은 파란의 소귀족들이 쓰는 어휘로써 모국어를 더럽혔고, 몰다비야의 민족주의자들은 루마니야의 귀족 사교계에서 쓰는 용어를 자기 언어 가운데에 끌어 넣으려고 노력하였으며, 라티쉬의 민족주의자들은 독일 귀족에게 예속되어 자기 언어를 독일화하려고 노력하였다. 우리 나라 동부에 있는 공화국들의 부르죠아 민족주의자들은 또한 아라비야어, 페르샤어 및 토이기어의 요소로써 모국어를 더럽혔다. 본질에 있어 이것은 자기 인민들의 민족적 리익을 배반하려는 정책이었으며 교쓰모뽈리찌즘의 정책이었다.

세째로, 부르죠아 민족주의자들은 로씨야어의 단어와 형태가 모국어에 침투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하여 지방적 단어와 형태를 인공적으로 번식시켰다. 이로써 그들은 모국어를 지방의 지역적 방언의 수준에까지 저하시키고 말았다. 례를 들면, 백로씨야 민족주의자들은 백로씨야어와 로씨야어와의 차이를 인공적으로 크게 하기 위하여 복수 전치격을 《на столах》 (상위에) 등과 같이 널리 보급된 형태 대신에 《на столох》와 같은 협소한 방언적 형태를 옳은 것으로 인정하였다. 언어의 면에서의 이와 같은 로선을 다른 공화국의 부르죠아 민족주의자들도 추구하였다. 민족어 발전의 부면에서의 지방적 부르죠아 민족주의자들의 부르죠아 민족주의적 정치 로선은 폭로되었으며 완전한 파산을 당하였다.

레닌—쓰딸린적 민족 정책의 확고 부동한 실천은 우리 쏘베트 동맹에서 민족어의 발전과 사회주의적 정신으로의 그 개조를 보장하였다.

사회주의의 승리는 민족어와 민족 문화를 발전시키는 사업에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에는 압박받던 민족의 사회주의 경제를 발전시키는 사업에서, 사회주의 국가의 조직적 원조에서 보장되었다.

대 로씨야 민족은 레닌—쓰딸린 당의 지도 밑에 부르죠아의 타도와 사회주의의 승리에 있어서, 전에는 압박받던 인민들의 사회주의적 인민 경제와 형식으로는 민족적이며 내용으로는 사회주의적인 그들의 문화를 발전시킴에 있어서 결정적 역할을 놀았다. 레닌—쓰딸린적 민족 정책은 민족들을 유일의 형제적인 가족으로 단결시키며 사회주의 국가인 쏘련의 위력을 공고화하는 것을 촉진시켰다.

위대한 사회주의 十월 혁명의 결과 새로운 사회주의적 발전 방향을 얻게 된 위대한 로씨야어는 여러 민족어의 풍부화와 개화의 원천으로 되었다. 로씨야어의 진보적 의의는 강국적 특권을 청산하고 모든 언어의 평등권과 모든 민족의 사회주의적 친선을 확보한 결과 무한히 증대하였다.

쓰딸린 동지가 가르친 바와 같이 로씨야 인민은 「쏘베트 동맹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민족 중 가장 우수한 민족이다」 (이·쓰딸린, 쏘베트 동맹의 위대한 조국 전쟁에 대하여, 一九六 페지 一九四九년)

로씨야어는 위대하고 풍부하고 강력하며, 세계에서 가장 선진적인 문화의 도구이다. 로씨야어의 무진장한 보물고로부터 쏘련의 민족어들은 생명수를 받아 들인다. 로씨야어는 위대한 쏘베트 동맹의 모든 인민이 자기들의 문화의 향상과 사회주의적 개조를 위한 강력한 도구로 간주하여 사랑의 마음으로써 연구하는 언어이다.

위대한 로씨야의 사회주의적 민족은 과거에 압박받던 민족들에게 완전한 평등권에 기초하여 그들의 모국어, 즉 민족어를 발전시키는 사업에 있어서 과거에는 억압받던 민족들을 사회주의적 문화로 끌어 들이는 사업에 있어서 거대한 방조를 주고 있다. 로시야어의 전보적 역할은 레닌—쓰딸린의 민족 정책의 확고 부동의 원칙인 언어의 평등권을 실천하는 기초 위에서 실현된다.

로씨야어에 대하여 다른 인민들이 품고 있는 애정과 존경의 마음을 쏘배트 시대의 위대한 시인 브·마야꼽쓰끼는 아름답게 표현하였다.

내가 비록
늙은 흑인일찌언정
락심과 게으름 없이
로어를 배우리라
오직 레닌께서 이 말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 × ×

민족어의 개화와 사회주의 정신으로의 그 발전은 한 나라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의 시대에 있어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 프로레타리아트 독재의 시기의 첫 단계에 있어서도 합법칙성으로 된다고 레닌주의는 가르쳐 준다。

레닌은 오직 사회주의 승리의 조건·하에서만「민족의 급속적인 친근과 합류가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레닌은 비록 프로레타리아트 독재가 전세계적 규모에서 실현된 이후에 있어서도 민족적 차이는 상당히 오랜 기간 보존될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였다。

쓰딸린은 세계어의 발전 로선에 관한 레닌의 학설을 고수하고 발전시켰으며, 전세계적 프로레타리아트 독재의 시키의 첫 단계가 민족과 민족어의 조락의 시초로는 되지 않으리라고 지적하였다。 첫 단계에서는 민족적 압박이 전세계에서 최후적으로 근절되고 민족 사이의 국제적 련계가 회복 강화될 것이며, 전에는 압박받던 민족과 민족어의 개화를 보게 될 것이다。

제국주의적 부르죠아의 반동적 이데올로기인 꼬쓰모뽈리찌즘을 광범히 선전하는 오늘날의 제국주의 변호자들은, 자본주의와 제국주의 시대에 민족과 민족어가 합류하며 이 시대에 유일의 세계어가 창조된다고 하는, 레닌에 의하여 폭로된 반역자 까우쯔끼의 초제국주의에 관한 사상을 자기들의 이데올로기적 방패로 삼고 있다。

그들은 생각하기를 제국주의의 시대에 벌써 한개의 세계어를 제의하여 다른 모든 민족어는 이를 청산하여 버릴 온갖 필요한 전제가 조성된다고 한다。 세계지배를 꿈구는 아메리카 식민주의자들은 영어를 세계어로 삼으려 노력하며, 그들의 리론에 의하면 이 영어는 다른 보든 언어를 삼켜버려야 한다고 한다。

브·이·레닌은 까우쯔끼의 초제국주의의「리론」을 폭로하면서 일반적으로는 자본주의 시대, 특수적으로는 제국주의 시대에는 경제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치적 사회적으로도 모순, 갈등 및 동요가 특성으로 된다고 지적하였다。 첨예화하는 사회적 및 민족적 압박은 자본주의의 시대에 유일의·세계어를 발전시키고 개별적 인민들 사이에 민족적 차이를 제거하기 위한 필요한 조건이 조성되는 것을 방해한다。

브·이·레닌은 가르치기를 제국주의와 프로레타리아 혁명의 시대의 자본주의 사회에는 민족들 사이의 여러 가지 관계가 발전하고 빈번케 되며, 민족적 장벽이 타파되고 자본, 일반적 경제 생활, 정치, 과학 등의 국제적 통일이 조성되는 경향을 그 특성으로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 경향은 민족적 차이의 청산과 유일의 세계어의 창건을 가져올 것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련결된 자본과 국제적으로 련결된 로동 운동파의 사이의 적대적 관계를 가져올 뿐이다。「그것은 제국주의가 —— 쓰딸린 동지는 말한다 —— 식민지를 착취하며 또

그것을 폭력적으로「유일의 전체」의 테두리 안에 불잡아 둠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까닭이며, 제국주의가 오직 합병과 식민지 강탈의 방법으로써만 민족들을 접근시킬 수 있었으며 이것 없이는 대체로 말하여 제국주의란 생각할 수 없는 까닭이다」(이·브· 쓰딸린 전집 제六권 一四七 페지)

브·이·레닌은, 초제국주의의 리론을 내세우는 악명높은 까우쯔끼의 경제적 견해를 폭로하면서 제국주의 단계의 자본주의가 마치 세계적 규모에서 제국주의가 합동되기에 이르기 까지 조직적 정상적으로 발달할 수 있으며 그 다음에 까우쯔끼의 주장에 의하면 사회주의에의 이행이 따른다 하는 명제를 정당화하려는 시도의 온갖 반동성을 지적하였다。 이 반동적「리론」은 금융 자본와 지배가 전세계 경제의 내부적 모순을 실지로는 격화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약화시키는 것같이 보는 아주 그릇된 사상을 내포하고 있다。

자본주의 시대에 유일의 세계어를 창조하는 길로 민족어가 발달한다는 이「리론」은 민족적 압박을 강화하고 억압받는 민족과 민족어를 노예화하며, 이를 폭력적으로 동화시키는 등의 조건 밑에서 언어가 다(多)로부터 일(一)로 성공적으로 발달할 수 있으며, 민족어의 성과를 리용함으로써 유일의 세계어를 형성할 수 있다고 하는 공상적 사상을 내포한다。

영 미 제국주의의 오늘날의 이데올로그들은 세계 지배를 달성하려는 목적으로「다(多)로부터 일(一)로」개별적 독립 국가들로부터 영어를 유일의 세계어로 채택하는 유일의 세계 정부로 라는 표어를 내세웠다。

케이치·브라톤은 一九四八년에「다(多)로부터 일(一)로」라는 서적을 발간하여 그 책에서 자본주의적 질서와 부르죠아의 정권을 보존한 채로 유일의 정부와 유일의 세계어를 가진 전세계적 국가를 아메리카 합중국의 보호 밑에 조직할 것을 호소하였다。

유일의 세계어를 가진 유일의 세계 국가 창건을 호소하면서, 죤·메리와 같은 영 미 제국주의의 앞잡이들은 그들의 합병주의적, 반인민적 강탈 정책을「기독교적 선(善)의 원칙 위에 기초한 민족들의 자유스러운 사회」를 지구 위에 조직할 필요성에 관한 허위적 언사로써 엄폐하고 있다。

아메리카 제국주의의 변호자들은 그들의 민족적 압박과 아메리카 합중국의 세계 지배 정책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영어의 분석적 구조가 우월하다고 하는 인종론적「리론」을 문서고(文書庫)로부터 꺼집어 내왔다。 브·므·쥐르문쓰끼 교수와 같은 몇몇 쏘베트의 학자들도 또한 이「리론」을 짓거리는 자로서 출연하였다。

이「리론」의 후계자들은 영어는 그 성질에 있어 굴절적 구조를 가진 언어보다 우수하며, 후자는 마치 라후한 언어인 것같이 주장하나 이러한 인종론은 과학

과는 아무런 공통점도 없다。

쏘베트 언어학은 어떠한 한 문법적 특성에 근거하여 한 언어는 멸시하고 다른 언어는 높이 평가하려 하는 온갖 시도와 인종론적 잠교대를 폭로한다。

이러한 허위적이고 비과학적인 『리론』들은 전쟁 방화자가 실시하는 제국주의 정책의 도구이다。이·브·쓰딸린은 영어를 사용하는 민족만이 완전한 권리를 가진다고 생각하는 전쟁 방화자의 두목 처칠의 제국주의적 계획을 폭로하였다。

이미 一九二七년에 쓰딸린 동지는 『전에는 세계는 본래 렬등 인종과 고등 인종으로、흑인과 백인으로 분할되어 있어 그 중 전자는 개화(開花)할 능력이 없고、착취의 대상이 될 운명을 지닌 자이며、후자는 전자를 착취할 사명을 띤 문명의 유일의 담당자라고 하는 생각이 「통념」이였다。오늘날에 와서는 이러한 전설은 분쇄되고 파기된 것으로 간주하여야 한다。十월 혁명이 가져온 가장 중요한 결과 중의 하나는 十월 혁명이 쏘베트적 발전의 길로 들어선 해방된 비구라파 인민들이 참으로 선진적인 문화와 참으로 선진적인 문명을 구라파의 인민들보다 결코 못하지 않게 전진시킬 수 있다는 것을 실지에서 증명함으로써 그 전설에 치명적 타격을 주었다는 그 사실이다」라고 썼다。(이·브·쓰딸린 전집 제十권 二四三——二四四 페지)

아메리카 식민주의자들은 고급의 언어와 하급의 언어에 관한 이미 여러번 분쇄되고 폭로된 인종「론」을 다시 끌어 내오고 있다。

쏘베트 언어학은 몽매와 무지의 선전자로서、제국주의 침략과 민족적 압박의 옹호자로서 영어의 인종적 우월성에 관한 허위적 사상을 열심히 전파하는 영미 언어학자들을 네거리의 기둥 위에 못박아 놓았다。

영어의 우월성에 관한 인종론적 잠교대의 기초에는 영어를 세계어로 채택할 것을 강요하며 영어가 다른、민족어를 삼켜버려야 한다는 제국주의적 압박의 반인민적 정책이 놓여 있다。

맑쓰—레닌주의는 가르치기를 어떠한 한 언어의 가지는 문화—력사적 역할은 그의 문법적 표식에 의하여서가 아니라 그가 어떠한 문화、과학 및 예술의 도구로 되는가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한다。로씨야어는 가장 선진적인 사회주의적 문화와 가장 선진적인 과학의 도구이며、평화와 진보의 언어이다。바로 이곳에 로씨야어가 아무런 강제、강요도 없이 다른 인민들 사이의 수백만 대중들로부터 인정을 받게 된 리유가 있다。

로씨야어의 진보적 국제적 역할은 다른 민족어들의 개화와 함께 실행되었다。바로 이곳에 로씨야어가 모든 진보적 인류의 존경과 사랑을、그리고 위대한 쏘베트 동맹의 인민들의 사랑을 언게 된 리유가 있다。

민족어 중의 어느 한 언어만을 유일의 세계어로 강제

적으로 채택하려는 제국주의 정책은 민족과 민족어의 합류를 가져올 대신에 단지 민족적 적대 관계의 첨예화만 가져올 수 있다。

유일의 세계어의 형성은 세계 자본주의 경제의 존재하는 조건 하에서가 아니라 유일의 세계、사회주의적 경제의 완전한 승리의 시기에만 가능하다。

브·이·레닌은 가르치기를 사회주의가 승리하는 때 민족의 급속한 친근과 합류가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사회주의적 민족들의 친근은 인민들 사이의 경제적 정치적 및 문화적 협조의 공고화를 목적한 민족들 사이의 공통어의 형성(민족어들의 발전과 병행하여)을 동반할 것이며、오직 이렇게 된 이후에야 점차적으로 민족어는 조락되기 시작할 것이다。

민족어가 위로부터의 법령 선포에 의한 폐기의 방법에서가 아니라 점차적 조락의 방법에 의하여 소멸할 것은 조금도 의심할 바가 없다。민족어의 조락은 장구하고도 점차적인 과정을 밟을 것이며 이것은 세계 모든 민족의 인민 대중 가운데에서 아무런 강요 없이 자유스럽게 실현될 것이다。

「민족적 차이의 근절과 민족어의 조락이 —— 쓰딸린 동지는 말한다 —— 세계 제국주의의 격파 이후 단번에 말하자면 위로부터의 법령 선포의 방법으로써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을 것이다。이 것보다도 더 그릇된 견해는 없다。위로부터의 법령 선포에 의하여 강제의 방법에 의하여 민족들을 합류시키려 시도하는 것은 제국주의자들에게 리익을 주며、민족 해방의 사업을 파멸시키고 민족들의 협조와 친선 조직의 사업을 매장하는 것을 의미하게 될 것이다」(이·브·쓰딸린 전집 제十一권 三四七 페지)

그러나 민족어의 조락의 문제는 유일의 세계어 형성의 문제와 긴밀히 련결되어 있다。이·브·쓰딸린은 민족어에 관한 레닌의 리론을 발전、풍부화시키면서 유일의 세계어 창조의 경제적 기초는 유일의 세계 사회주의 경제의 창조라고 지적하였다。

쓰딸린 동지는 가르치기를 전세계적 프로레타리아트 독재의 시기의 첫 단계는 세계 자본주의 경제로부터 유일의 세계 사회주의 경제로의 이행의 단계일 것이라고 하였다。

이 시기에는 유일의 세계어가 구성될 수는 없다。그가 형성되기 위한 경제적 기초가 아직 조성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족어의 개화와 그의 사회주의적 개조는 이 시기에서도 언어 발달의 합법칙성으로 된다。

「오직 전세계적 프로레타리아트 독재의 시기의 둘째 단계에서만 —— 이·브·쓰딸린은 말한다 —— 세계 자본주의 경제의 대신에 유일의 세계 사회주의의 경제가、구성되는 그 정도에 따라、오직 이 단계에서만 일종의 공통어가 구성되기 시작한다。그것은 단지 이 단계에

사만 교제의 편의와 경제 문화 정치상의 협조의 편의를 위하여 자신의 민족어와 함께 하나의 공통적인 국제어를 가져야 할 필요성을 민족들이 느끼게 될 것인 까닭이다』(동서 三四八 페지)

오직 전세계적 프로레타리아트 독재의 시기의 둘째 단계에서만 민족어가 일층 발전되는 과정에서 공통어의 구성이 법칙적으로 실현될 것이다。 언어 발전에 있어서의 이 새로운 합법칙성의 경제적 기초는 유일의 세계 사회주의 경제의 형성 과정이다。 그러나 이 단계의 공통어는 아직도 유일의 세계어로는 되지 못하고 단지 국제 공통어로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언어 발전에 있어서의 새로운 합법칙성——국제어의 형성——은 민족어의 개화와 발전을 중지시키지는 않는다。 반대로 언어 발전에 있어서의 이 새로운 법칙성은 민족어의 개화와 그의 사회주의 정신으로의 일층 발전을 전제로 한다。

바로 이곳에 이·브·쓰딸린이 「이 단계에서는 민족어와 국제 공통어가 공존할 수 있다」(동서 三四八——三四九 페지)고 강조한 리유가 있다。

국제 공통어의 구성은 형식에 있어서는 민족적이며 내용에 있어서는 사회주의적인 자기의 문화를 발전시키고 있는 자유스러운 사회주의적 민족들의 경제 문화 정치 상의 협조의 필요성에 의하여 초래된다。

이와 같이 전세계적 프로레타리아트 독재의 시기의 둘째 단계에 있어서 사회주의 정신으로 민족어가 개화 발전되는 것과 국제 공통어가 구성되는 것은 민족어의 조락과 유일의 세계어의 확립을 위한 모든 필요한 경제적 전제가 아직도 농숙치 못한 그러한 유일의 세계 사회주의 경제의 발전 단계를 반영하는 언어 발전의 동일한 과정의 두개의 면이다。

더욱 나아가 쓰딸린 동지는 전세계적 프로레타리아트 독재의 둘째 단계에서 처음에는 구역별 국제 공통어가 구성될 가능성을 예견하고 있다。

「처음에는——쓰딸린 동지는 말한다——하나의 공통어를 가진 모든 민족에 공통적인 하나의 세계 경제 중심지가 조성되는 것이 아니라, 매개의 민족군마다 개별적 공통어를 가진 개별적 민족군의 몇개의 구역별 경제 중심지가 조성되리라고 볼 수 있다」(이·브·쓰딸린 전집 제十一권 三四九 페지)

오직 유일의 세계 사회주의 경제의 일층 발전만이 유일의 세계어의 확립과 그리고 그 다음의 개별적 민족어의 조락을 가져올 수 있다。 구역별 중심지가 사회주의 경제의 하나의 세계 공통의 중심지로 합동케 되며 세계 사회주의의 경제 체계가 충분한 정도로 공고화되고 그리고 사회주의가 인민들의 생활 속에 들어 가게 될 때, 바로 그 때 모든 민족을 위한 하나의 공통어가 조성케 된다。

여러 사회주의적 민족을 위한 지역별 국제 공통어의

형성에 있어서 로찌야어가 결정적 역할을 놀데 대하여는 아무런 의심도 없다。 새로운 사회주의적 민족들의 발생과 함께 로찌야어의 전세계사적 역할과 영향은 확고하게 장성할 것이다。

하나의 국제 공통어가 유일의 세계어로 개조되는 과정은 위로부터의 법령 선포의 방법으로써가 아니라 점차적이고 자유스러운 발전의 방법에 의하여 진행될 것이다。

쓰딸린 동지는 가르치기를 여러 민족어보다도 하나의 공통어가 유리하다는 것을 민족들이 실천을 통하여 확신하게 되는 그 때에라야만 민족적 차이와 민족어들은 전세계 공통어에 자리를 물려 주면서 조락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하였다(동서 참조)。 오직 국가의 조락과 더불어서만 민족어들은 조락되고 유일의 세계어가 창조될 것이다。

이러한 것이 사회주의 시대의 언어 발전의 변증법적 로선이다。 사회주의적 국가들이 전세계적 공고화와 개화를 달성한 이후에라야만 공산주의의 최고 단계에 들어 설 수 있으며, 자본주의적 포위가 소멸되고 유일의 세계, 사회주의의 경제의 강력한 경제적 토대가 구축된 그 때에라야만 국가 조락의 과정 자체가 시작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유일의 세계어의 형성도 민족어와 민족 문화가 사회주의의 시대에 완전한 개화를 달성한 그 이후에라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쓰딸린 동지는 말하기를

「미래에 있어서 민족 문화들이 하나의 공통어를 가진 하나의 공통적인 (형식에 있어서나 내용에 있어서나) 문화로 합류될 것을 주장하는 우리들이 또한 동시에 이 순간 프로레타리아트 독재의 시기에 민족 문화의 개화를 주장한다는 것은 혹시는 이상하게 보일는지 모른다。 그러나 여기에는 아무런 이상한 것도 없다。 전세계 사회주의 승리의 시기에 있어서 하나의 공통어를 가진 하나의 공통적인 문화로 합류시킬 조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민족 문화들을 그가 가진 잠재적 능력을 발현시키면서 발전 전개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프로레타리아가 전세계에서 승리하고 사회주의가 생활 속으로 들어가게 될 때 민족 문화들이 하나의 공통어를 가진 하나의 공통적인 사회주의적(형식에 있어서나 내용에 있어서나)문화로 합류시키기 위하여 한 나라에서의 프로레타리아트 독재의 조건 밑에서 형식에 있어서는 민족적이고 내용에 있어서는 사회주의적인 문화를 개화시키는——바로 이 곳에 민족 문화에 관한 레닌적 문제 설정의 변증법적 성격이 나타나 있다。

이러한 문제 설정은 「모순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모순성」은 국가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들에게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국가의 조락을 찬성한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오늘날까지 존재하였던 모든 국가 중 가장 강력하고 위

력있는 권력인 프로레타리아로 독재를 강화할 것을 또한 찬성한다。국가 권력의 조락을 위한 조건을 준비할 목적으로 국가 권력을 보다 높이 발전시키는 것—이곳에 맑쓰주의적 정신이 있다。이것은「모순된 것」일까? 그렇다。「모순된 것」이다。그러나 이 모순은 생명력있는 것이며、전적으로 맑쓰의 변증법을 반영하고 있다」(이·브·쓰딸린 전집 제十二권 三六九—三七〇 페지)

레닌—쓰딸린적 민족 정책을 실시하면서 쏘베트 정권은 자유스러운 민족들의 동맹 창건에 관한 선진적 인류의 가장 우수한 대표자들의 숙망을 현실에 옮겨 놓았다。쏘베트 정권은 인민들을 해방하고 그들에게 동등의 권리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인민 경제와 민족 문화의 발전을 또한 백방으로 촉진시켰다。여러 민족들에 대하여는 쓰딸린 동지의 말에 의하면 우리 나라 모든 인민 중 지도적 력량으로서의 전반적 인정을 받은、위대한 로씨야 인민이 거대한 원조를 주고 있다。쓰딸린적 五개년 계획의 시기에 쏘베트 동맹의 형제적 가족을 이루는 민족 공화국들은 미증유의 개화에 도달하였다。우리 나라에서는 생산력이 확고하게 발전하고 인민 경제의 수준이 제고되고 있다。「우리 나라의 생산력의 장성과 함께 내용으로는 사회주의적이며、형식으로는 민족적인 쏘베트 동맹 인민들의 문화가 발전하고 있다」(그·므·말렌꼬브、위대한 사회주의 十월 혁명 三十二주년 기념 보고)

우리 나라 인민들은 위대한 로씨야 인민에 대한 그리고 영명한 정책으로써 전에는 압박받던 인민들을 경제적 문화적 개화로 인도하는 쓰딸린 동지에 대한 형제적 애정과 감사의 마음으로써 가득차 있다。

「우리 조국의 력사 상에서 그 넓은 지역에 거주하면서도 인민들이 이같이도 굳게 서로 단결된 일은 일찌기 없었다—그·므·말렌꼬브는 자기 보고에서 말한다—혁명 전에 존재하던 민족들 사이의 반목과 불화는 벌써 오래 전에 우리 나라에서는 모든 인민의 친선적 형제적 협조로써 바뀌어졌다。쏘베트 동맹에서는 민족들의 위대한 협조 가운데에 대소 인민들의 창조적 력량이 발휘되고 있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시기에 있어서의 언어 발전의 기본적 법칙에 관한 레닌과 쓰딸린의 리론은 맑쓰주의적 언어 과학의 높은 단계로 된다。그 리론은 선진적 쏘베트 언어학을 더 한층 발전시키고 온갖 종류의 적대적 학설을 폭로하는 사업에 있어서 우리를 쏘베트 언어학자들을 무장시켜 주며、민족적 언어 건설의 분야에 있어서 공산당과 쏘베트 정부에 의하여、그리고 쓰딸린 동지에 의하여 맡겨진 과업을 성공적으로 해결하는 사업에 있어서 우리들을 무장시켜 준다。

(「철학 제문제」一九四九년 제二호에서)

김 수 경 역

一九五〇년 四월 十 일 인쇄
一九五〇년 四월 十五일 발행

「근로자」 제七호
【정가 三十원】

책임주필 기 석 복
인쇄인 조 훈
평양특별시문수리三〇〇번지
발행소 로동신문사
인쇄소 로동신문출판인쇄소

잡지편집국 전화 국장실 二五七六번
편집실 三八〇一—五번

ㄱ—18706